



12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4)년 제12호

(루계 제806호)

《장군님께서는 늘 인생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한생이라고, 생의 시작이 아름다웠으면 생의 마감도 아름다  
워야 참된 인생이라고 하시면서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였으며 생의 마무리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하시였습니다.》

## 김 정 은

### 차 례

시	장군님과 애국 .....	홍 민 식(5)
	영생의 메아리 .....	김 정 삼(6)
	그리움의 눈이 내리네(가사) .....	양 순 옥(6)
	인민의 마음속에 장군님 계시네(가사) .....	김 학 루(7)
	그리움의 산악 .....	오 정 로(7)
	이해를 보내는 노래 .....	한 원 희(4)
단편	두단령감 .....	동 의 희(8)
소설	증 견 자 .....	변 영 옥(21)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14)
	어머님의 일편단심(시) .....	정 동 찬(15)
	그 포락에 자욱을 찍고있습니다(시) .....	전 승 일(15)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과 시인의 사색(단평) .....	박 정 봉(16)
	주체문학의 대강 .....	(19)
시	신갈과의 나루배 .....	김 길 성(19)
	인민은 행복합니다(가사) .....	류 정 실(19)
	불멸의 세월 .....	황 명 성(20)
	내 그이를 만나뵈오리 강다 .....	염 득 복(30)
	12월에 부르는 노래 .....	김 경 남(33)
	그 이름만 불리도 .....	함 영 주(33)
	시작과 마감처리에 대한 시적형상(단평) .....	차 명 철(31)

#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

단 편 소 설	살기 좋은 내 고향 .....	박 경 철(35)
	집으로 돌아오다 .....	김 달 수(62)
	해 당 화(단막희곡) .....	리 기 창(52)
	휴식날의 이야기(수필) .....	박 혜 란(46)
	적사적사설의 진실성과 묘사의 생동성(평론) .....	조 성 찬(77)

## ◇ 시 ◇

12월	.....	함 영 근(34)
오늘의 영옥이들(가사)	.....	강 현 민(32)
대학생 각에서	.....	김 무 림(45)
탄전의 단풍철	.....	리 명 학(48)
우리 사는 등대마을(가사)	.....	김 명 성(48)
축구열풍—애국열기(시초)	.....	박 철(49)
승전비	.....	박 정 철(72)
언제우에서 외 2편	.....	김 경 석(73)
아들아 두눈을 부릅뜨라!	.....	한 동 선(61)
연 관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자기 위치 앞으로!》	..... 강 영 윤(58)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이상을!	..... 김 청 송(59)
자 료	작가 엄흥섭의 해방전 창작생활	..... 지 선 아(74)
	쏘베트소설가 아. 이와노브와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	..... 리 종 국(75)

# 이해를 보내는 노래

한 원 희

황홀히도 눈부신 기념비와도 같이  
기적과 위훈으로 찬란히 솟아오른 이해  
2014년의 령마루에 높이 올라  
나는 부른다  
이해를 보내는 노래  
가슴벅찬 환희의 노래!

잘 가거라 잊지 못할 해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한해 승리를 안아온 해여  
받아다오 안아다오 불려불려 목메이는  
이 마음의 노래  
내 마음에 넘치는 행복의 노래

이 노래에 내 진정을 다 담았다  
이해에 드리는 한없이 고마운 정  
우리 당이 열어준 건설의 전성기를  
백년천년처럼 빛내인 장엄한 투쟁의 해여  
위대한 변혁의 해여

얼마나 눈시울 뜨겁게 펼쳐놓았는가  
청천강 수백리 굽이굽이마다에  
소리치며 솟아오른 언제들  
철령아래 펼쳐진 사과바다  
세상에 자랑높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이해의 첫아침에  
온 나라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바라시던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 그 말씀 그 축복이  
그대로 인민사랑의 대기념비로 솟았는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걱정을 자아내누나

우리 나라 산업건설의 본보기공장들  
전설속의 궁궐처럼 일떠선 과학자들의 살림집들  
이 땅 그 어디나 웃음소리 넘쳐흐르는

사회주의선경 락원의 무릉도원...

원썬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붉은기 높이 신심높이 달려온 이해  
우리의 체육열풍으로 경기마다 세계체육강자들을  
보기 좋게 놀러딘고 세계상공에 공화국기 울려  
조선의 기상을 세상에 떨쳐온 이해

이 땅을 굽이쳐간 365일에  
영웅의 금빛메달 달아주고싶구나  
우리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그 진리  
그 하나 목숨처럼 귀중한 그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에 새겨준 한해여!

다함없는 경의를 드린다  
열렬한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만 높이 모시고 따르면  
인민의 소원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만복의 열매로 주렁진다는 그 신념  
그 하나 목숨처럼 귀중한 신념을

아, 잘 가거라 2014년이여  
조국이라는 청청 푸른 거목에  
네가 아로새긴 뜻깊은 년륜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리라  
조국의 무궁번영을 무궁번영의 앞날을

부디 잘 가거라 잊지 못할 해여  
너와 굳게 약속한다 맹세한다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변함없는 신념으로 네가 안아올 새해  
더 밝고 더 희망넘친 새해에  
더 세차게 더 장엄하게 총진군길을 이어가리라  
강성국가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리라!

# 장군님과 애국

홍 민 식

12월의 하늘가에서  
평평 쏟아져내리는 눈발속에 어려오는  
아, 그리운 영상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쉬임없이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신 우리 장군님

애국을 위해 탄생하시고  
애국을 위해 바쳐오신 한생이어서  
눈보라속을 달리는 야전철차에서  
생의 마지막순간마저  
애국의 그 길에 바쳐야 하셨던가

해쫄는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이실 맹세 심장에 새기시고  
이 땅 이 하늘  
한줌의 흙 하나의 조약돌마저 품어덥혀오신  
애국장정의 천만리가 뜨겁게 어려오누나

애국장정의 그 나날  
기계소리 뿜은 공장파  
불꺼진 마을 지나  
걷고걸으신 험한 전선길을  
눈비가 쏟아져도 가시고  
밤에도 새벽에도 가시고...

온 나라에 CNC화의 동음을 울려주시려  
조국의 북변땅을 찾아  
넘고넘으신 눈물겨운 그 령길  
쪽잡속에서도 가시고  
췌기밥 드시면서도 가시고...

그 애국의 뜻이 젖줄기런듯  
산은 산마다 푸른 산  
들은 들마다 푸른 들  
목메이게 향기 풍기는 오탁백과

가는 곳 그 어디나  
미래로 달리는 최첨단돌파의 동음소리

그 애국의 뜻이 해빛이런듯  
꿈같은 만복이 꽃피나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무릉도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국의 존엄과 그 위용  
이 행성우에 당당하거니

그리워 장군님 그리워  
가슴벅찬 오늘의 승리에 눈굽젖어  
목메여 불러찾으며  
한생 지니신 애국의 뜻을  
눈물겹게 안아보는 인민의 마음이어

조국사랑  
인민사랑  
미래사랑으로 뜨거운  
그이의 애국의 뜻 애국의 정신을  
원수님 애국의 정화로 가슴뜨겁게 안겨주신  
김정일애국주의!

그 열풍으로 천만심장 불탄다  
그 열풍으로 온 나라가 나태친다  
하여 내 조국은 대원수님들의 축복속에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며  
최후승리의 축포성을  
통일된 3천리강산이 들썩하게 울리리니

애국위해 탄생하시여  
애국위해 한생을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번영하는 내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시리라

# 영생의 메아리

김 정 삼

하늘을 흔들며  
땅을 흔들며  
그리움에 타는 가슴들을 흔들며  
사연깊은 기적소리 메아리쳐오는  
이 나라의 12월  
12월이 왔구나

귀를 기울이면  
백설의 광야를 질풍쳐달려오는  
그날의 야전철차의 바퀴소리 들려올듯  
눈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성큼성큼 우릴 향해 걸어오시는 대원수님을  
금시 눈앞에 뵈는듯만싶어지는  
아, 그리움의 이 불덩이!

못 잊으리  
백두령장께서 정이 폭 드신  
숙소였고 집무실이었던 야전철차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그이 힘차게 힘차게 올려주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여

이제는 더는 찬눈길 걷지 마시라고  
그리도 눈물겨이 아뢰어왔건만  
사랑하는 천만아들팔들을 부르시는  
아버이의 따뜻한 음성만 같아  
우리 마음 언제나 마중가는 야전철차  
우리 마음 언제나 안고사는 기적소리

장군님의 숨결같고  
장군님의 음성같은 기적소리  
그 기적소리 우리 가슴속에 울리지 않았다면  
피눈물의 대지에 영영 쓰러졌으리

거룩한 한생의 체온이 고이 스민  
인민행렬차의 조종간을 틀어쥐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신념의 기적소리로 인민을 일으켜  
이 나라 성스러운 주체의 역사를  
승리의 궤도로 힘차게 이끌어가시나니

말하지 말라 비분의 눈발 날리던 12월  
그 아침에 야전철차가 멈춰섰다고는  
찬란한 향도의 빛발을 안고  
최후승리의 종착역으로 질풍쳐가는  
장군님의 백승의 철차임을 새기라

러져오르는 천만군민의 진군가로  
장군님 오늘도 울리고올리시는  
애국헌신의 기적소리임을 세계여 알라  
못 견디게 사무치는 그리움  
태양처럼 환하신 아버지의 영상  
하늘 봐도 어리어  
들을 봐도 어리어...  
이 행성의 하늘가에 영원히 올려가리  
위대한 태양의 영생의 메아리로...

가 사

## 그리움의 눈이 내리네

양 순 옥

산에도 들에도 흰눈이 내리네  
우리의 그리움 안고서 내리네  
아버지장군님 그 영상 하늘도 못 잊어  
1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내리네  
조국을 위하여 맞으신 눈이런가  
아 오늘도 내리네

낮에도 밤에도 흰눈이 내리네  
헌신의 그 자욱 더듬어 내리네  
아버지장군님 그 업적 하늘도 전하며

1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내리네  
인민을 위하여 맞으신 눈이런가  
아 오늘도 내리네

온 나라 강산에 흰눈이 내리네  
애국의 한평생 전하며 내리네  
아버지장군님 영생을 하늘도 바라며  
1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내리네  
미래를 위하여 맞으신 눈이런가  
아 오늘도 내리네

# 그리움의 산악

오 정 로

얼마나 오고싶던 곳인가  
얼마나 보고싶던 산인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나는 지금 철령을 오른다

우리 집 따뜻한 아래목  
행복의 꿈나라로 가던 요람가에  
한점 스며들지 못한 찬바람  
여기서 다 막아주신  
장군님의 그 야전복 옷자락이  
저 눈발속에 어러오고

해빛밝은 교실창가에  
원썬들의 핵구름 비까지 못하게  
한밤에도 새벽에도 이 령을 넘으시던  
그 야전차의 경적소리  
눈바람에 실려와  
내 마음 뜨거움에 젖어라

얼음갈린 벼랑길에 오르시던  
그 야전차에 우리 앞날이 다 놓여있고  
오늘의 승리가 다 실려있어  
그리고 고생 많으신 우리 장군님

아버이를 잃고 철이 들어  
내 오르는 굽이굽이  
눈사태 내리는 천길벼랑  
눈보라 내려쬐히는 만길 낭떠러지  
바라볼수록 자꾸만 자꾸만 쏟아져내리는 눈물!

그리워 그리워라  
못 견디게 장군님 그리시는 우리 원수님  
철령아래 사과바다라고  
그리고 정겹게 불러주신  
청춘파원이 여기로 파도쳐오는 철령이여

아, 철령  
너는 장군님 높이 모시고  
천년만년 받들어갈  
세월따라 더욱 높이 솟는  
그리움의 산악

내가 오르고 인민이 오르고  
조선이 올라  
최후승리 그날로 가는 우리앞에  
철령이여 너는  
그리움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있으리

가 사

## 인민의 마음속에 장군님 계시네

김 학 룰

백두의 설한풍속에 탄생하시어  
우리에게 봄빛안고 오신 장군님  
기쁨의 2월을 알았던 인민  
슬픔의 12월은 우리에게 없네  
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장군님 계시네 장군님 계시네

피눈물의 언덕에서 락원의 길로  
천만군민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행복한 2월을 알았던 인민

맹세의 12월이 우리에게 있네  
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장군님 계시네 장군님 계시네

사나운 폭풍해처 지켜온 붉은기  
유산으로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그 붉은기 높이 드신 우리 원수님  
최후승리 한길로 인민을 이끄시네  
아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히  
장군님 계시네 장군님 계시네





동 의 희  
그림 김 광 석

1

새해 아침이었다.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일군들을 만나시었다. 새해를 맞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하는 설인사에 따뜻한 답례를 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여느날과 다른없는 사업이야기였다. 처음으로 만나신 건설부문 책임일군에게서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진척정형에 대해서 알아보시었고 보건부문 책임일군을 만나시여서는 의사담당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주시었다. 그들이 돌아간 다음 나타난 사람은 가금총국장 리인배였다.

리인배는 수령님께서 전쟁전에 직접 류학을 보내시였던 사람이었다.

시교외의 닭공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품종의 닭알낱이물을 알아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두단에 있는 오리목장에 대해서도 물으시었다.

《참, 그곳 〈두단령감〉이 잘있소?》

일순 리인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한동안 어찌할바를 몰라 주뿔거리던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저… 최근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있는 회의에 오지 못했었는데도 미처…》

《그래?》

수령님께서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는 리인배를 이윽도록 보시다가 눈내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혹시 앓는게 아닌지.)

성글게 내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지었다. 뽕애지는 눈발속에서 《두단령감》이 차츰차츰 다가오는

듯 했다.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들은적이 언제였던가.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추억의 문을 여시었다.

…

전쟁이 끝난 이듬해 초여름. 수령님께서서는 평양 가금목장(당시)에 나가있는 리인배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으시었다.

《수령님, 오늘 오리작업반이 분가했습니다. 이젠 오리목장을 꾸릴수 있습니다.》

《오리작업반이 분가했다? 술한 오리들을 차에 싣고 옮기느라 동무가 땀을 뻘뻘소.》

오리작업반의 분가는 앞으로 오리목장을 꾸리는 사업에서 선차적인 문제로서 수령님께서서 관심하시던 일이었다.

《수령님, 저는 사실… 제가 차를 구하느라고 시내에서 어물거리는 사이에 주인들이 폐목을 무었습니까.》

《폐목을?》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흥미가 있어 되물으시었다.

《예. 거기 오리작업반에 있는 한 동무가 그런 착상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폐를 물았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을 무사히 옮길수 있었습니다.》

《거 아주 불만 했겠소. 그 동무가 류벌공출신 이요?》

《아닙니다. 해방전에는 평천부두에서 가대기군으로 일하다가 목장으로 들어온 동무인데 엉뚱한 생각도 곧잘하고 무슨 일이나 열성입니다.》

리인배가 자랑하듯 말쑤울리었다. 평소에는 너인처럼 아리잠직하고 침착했는데 오늘은 어찌나 흥분되었는지 목소리가 여간 높지 않았다.

《음, 그 동무 이름이 뭐요?》

《최성준이라고 합니다.》

《최성준, 좋은 동무구만. 나이는 몇살이요?》

수령님께서 수첩을 꺼내들고 이름이며 나이를 적으시었다.

《그래 오리목장 지배인감을 플라봤소?》

수령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리인배를 바라보시었다. 언제부터 새로 일어설 오리목장 지배인감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던것이다.

《저 아직...》 갑자기 리인배가 어줍게 웃으며 머뭇거리었다.

《이제 그 최성준이라는 동무는?》

리인배가 별스레 우물거리기만 했다. 이제껏 자랑은 했지만 지배인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동문 열성은 있지만 학력이 없습니다.》

낮으나 자기의 견해를 뚜렷이 밝히는 리인배의 대답이었다.

《그전날 말하던 그 오리작업반 반장은 어떻게 소?》

《수령님...》 갑자기 리인배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 동문 며칠전에 경비실에서 반동놈들과 싸우다가 그만 잘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손에 들었던 수첩을 펴갈번 하시었다. 가슴이 찢릿하게 마쳐오시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되고있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것은 아까운 인재를 잃는것이였다. 그 오리작업반 반장도 리인배가 늘 자랑하군해서 수령님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았었다. 앞으로 일떠서게 될 오리목장에서 한몫 하리라 믿었던 그가 그렇게 되다니...

수령님께서 가슴속에서 소중한것이 똑 떨어져나간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철진이라고 했습니다.》

《음, 박철진. 젊은 사람이라고 했지. 가족은 누가 있소?》

《가족이라야 그의 처는 이미 미국놈 폭격에 잘못되고 다섯살짜이 딸이...》

리인배의 목소리가 갑자기 꼭 잠기어들었다.

《딸? 그럼 그 애가 고아가 됐다는게 아니요?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소?》

《친척되는 사람네가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친척네 집이라, 그래도 친척이 있다니 다행이였다. 그런데도 왜서인지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 친척히 책상을 한바퀴 도

시였다.

《수령님, 제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리인배가 얼른 앞으로 나섰다.

《됐소. 그 문젠 내가 알아봅시다.》

수령님께서 화제를 돌리시었다.

《리인배동무, 거기서 현장기사를 하는 동무는 어떻게 소?》

《그 동문 전쟁때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자꾸 앓습니다.》

수령님께서 가슴속 단숨을 내그으시며 양복웃 단추를 벗기시었다.

오리작업반 반장은 없고 현장기사는 부상자고, 그렇다면 오리목장 지배인은 누가 하는가.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시었다. 문득 폐목을 물고가는 사나이의 모습이 우렁이 떠오른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달구지 한대도 돌려쓰기 어려운 때 폐목으로 오리며 살림살이를 옮길 생각을 한것은 확실히 기발하면서도 대담한 생각이였다.

그런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것이다. 허나 배우지 못한것이 제일 아쉬웠다. 먹성이 좋고 무탈하게 자라는것이 오리인것 같지만 역시 오리는 생물체여서 사육에서는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그에 못지 않게 어린애를 안아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정성이 있어야 한다. 문득 수령님의 사색속으로 한 녀인의 모습이 소리없이 들어섰다. 령길밀의 외판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녀인이였다.

《폭격에 엄마를 잃고 울고있는 아이들이 남의 애 같질 않아서 한명한명 안아온게 한구들 되였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키울 생각입니다.》

단잠에 든 아이들을 일별하시던 수령님의 시선이 녀인에게서 멎으시었다. 병아리들을 품안은 어미닭 같은 녀인.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그가 조용히 머리카락을 비다듬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수령님앞에서 당황하여 익은 감마냥 얼굴을 붉히던 녀인, 그런 어머니같은 심정이면 얼마든지 오리를 기를수 있는데...

그는 지금 그곳 애육원 원장으로 되였다.

오리작업반 반장의 딸이 또 생각나시었다. 강변에 홀로 떨어져 애처롭게 갈갈거리는 새끼오리같은 불쌍한 아이, 그 애도 그런 녀인의 품에 안기면 마음을 놓으련만.

수령님께서 쓰러오는 가슴을 누르시며 말씀하시었다.

《인배동무, 지배인감을 더 물색해보오. 내밀성도 있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오리들을 자기의 살점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첫째라고 보오. 그런 견지에서 사람을 더 찾아보오.》

...

《휘—이—》

창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소리에 수령님의 사색이 끊어지시었다. 어느새 눈발이 가늘어지고 바람질이 시작되었다. 뽕안 눈발속에 드러나던 최성준의 모습은 사라지고 휘익휘익하는 세찬 바람소리만 더 커질뿐이었다.

수령님께서 천천히 팔걸이의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앉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리인배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시었다.

《내가 동무를 만나 지금껏 고기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많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품을 내어 말한 적은 드물었지. 동문 아직 내 소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지?》

《예.》 리인배는 호기심어린 어조로 대답올리었다.

《오늘 내 산에서 싸울 때 일을 하나 이야기하겠소.》

수령님께서 눈내리는 창가에 시선을 주시었다.

《유격대를 창건한 이듬해 봄날이었소. 그때 부대는 두만강연안의 작은 마을에 주둔했는데 난 늙은 내외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집에 들게 되었소.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았고 짐승이라고는 종자닭 한마리뿐인 그런 집이었소. 하루는 집주인이 그 닭을 가슴에 안고 맥없이 들어오는게 아니겠소. 그가 하는 말이 대장한테 닭을 대접하려고 동네를 돌아보아야 대장이 보이지 않는다는거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는 대장이 자기 집에 류숙한다고 말들을 한다면서 몹시 노여워했소. 아무렴 대장이 그렇게 젊었을리 만무하고 또 자기같이 못사는 평백성네 집에 들수 있느냐는거요. 그때 내 나이 20대초였고 더구나 난 평대원들과 달리 생활하지 않았으니 그 로인이 그렇게 생각할만도 했지. 할수 없이 나를 밝히고 로인을 설복하기 시작했소. 〈로인님, 집재산 하나 변변한게 없고 어린 손자한테 고기 한점 먹이지 못하고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닭을 잡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퍼그나 오랜 시간을 걸쳐 설복을 하자 로인은 세상에 이런 군대도 있는가고 하며 내 손을 놓지 못했소. 하지만 난 그날 밤 잠을 잘수가 없었소. 언제면 우리 조선사람들이 고기와 알을 실컷 먹을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서 말이요.》

그때부터 내 가슴속엔 두가지 소원이 생기었는데 하나는 일제를 쳐물리치고 반드시 조국해방을 이룩하는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이는것이였소. 그래서 나라를 해방했을 때부터 축산문제 생각을 했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도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소. 전후시기부터 축산에서 은이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두단령감이 오리기르는 일을 성공시켰소.》

《그가 열성이 높았습니다.》

수령님께서 리인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소. 그가 많은 일을 했지,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다시 들은것은 협동농장이 갖 조직되던 때였소.》

그날 수령님께서 대동군의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신 후 늦게야 돌아오고계시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길가로 락엽이 굴러다니고있었다. 마가울철인 것이다.

수령님께서 벌써 두번째로 시계를 보시었다. 내각협의회시간이 빠듯했다.

운전사도 수령님의 심중을 알고 더욱 속도를 높였다.

차가 살림집건설이 한창인 시내중심의 보통강기슭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아버지!》 하는 처녀애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령님께서 시선을 돌리시었다.

어둑어둑해지는 보통강기슭으로 쫓겨머리 처녀애가 콩당콩당 뛰어가고있었다. 다섯살쯤 됐을까? 처녀애는 연방 아버지를 불러댔다. 이어 정이 함백배인 남자의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차창밖으로 작업복차림의 한 사나이가 그 애를 덥석 그러안는게 보이였다. 아버지인 모양이였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모양이군.)

불시에 오리작업반 반장의 딸이 생각나시였다. 다섯살이라고 했으니 저 애만큼 될게다. 연방 캐드득거리는 처녀애의 웃음소리가 수령님의 사색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 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리인배에게서 사연을 들으신 후 수령님께서 애육원 원장에게 그 반장의 딸을 찾아 애육원에서 키우도록 하시었다. 이제는 그 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언제인가 다시 만난 원장이 아직 아이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깔깔거리는 동갑이쯤 되는 애를 보시니 다시 그 반장의 딸이 생각나시였다.

수령님께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차는 미끄러지듯 달렸다. 흘러가는 차창밖으로 보통강가에 물켜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연방 하하 웃어댄다.

팔애를 안은 그 아버지가 강기슭으로 내려갔다. 또다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웃음소리, 그 반장의 딸도 저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딸을 내려놓은 그가 물속에 뛰어들며 쪽배에 붙는게 보이였다. 이런 스산한 날씨도 안중에 없

는듯 했다. 보매 물고기나 잡으러 나온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보니 여기는 보통강에 전개된 오리목장근방이었다.

오리목장 종업원들이 하루일을 끝마치고서도 오리에게 보충해줄 먹이를 해결하러 강에 나온것이 분명했다. 혹시 광물질먹이를 보충하려고 골뱅이를 잡는것은 아닌지...

수령님께서는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부관동무,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보오. 저기 저 애 이름이 무엇인지도 좀 물어보오.》

친척네 집에 있다는 반장네 딸이 여기 있을수는 없지만 그 또래의 애들을 보기만 하시면 애바른 걱정이 살아나는걸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그 애를 찾아내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마음을 좀 놓으련만.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차에 오르시였다. 앞으로 오리목장은 공업화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오리목장자리로는 이렇게 도시중심이 아니라 교외이면서도 물이 있는 안침진 곳이어야 한다. 수령님의 눈앞으로는 언제부터 아껴오시던 부지가 떠올랐다. 그곳은 그야말로 오리들의 보금자리였다.

내각청사에 도착하시여 회의준비를 하시는데 부관이 들어섰다.

《수령님, 그들은 오리목장 사람들인데 광물질먹이로 쓸 골뱅이를 잡고있었습니다. 책임자동무의 이름을 알아보았는데 최성준이라고 한답니다.》

(최성준? 그럼 폐목을 물었다던 그 사람?)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최길옥이랍니다.》

《최길옥?》 역시 예견대로 반장의 딸은 아니였다.

수령님의 가슴속으로 이제껏 안타깝게 고르던 지배인감을 찾았다는 기쁨이 스며들었다. 최성준이야말로 오리목장 지배인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신것이였다.

...

이렇게 되어 지배인이 된 최성준이였다. 그런 그가 왜서인지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 2

눈덮인 동쪽으로 차를 달리는 리인배의 가슴속에는 불안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있었다. 도대체 최성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왜 요즘은 보이지 않고?

전번회의때 물어보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기사장이 참가한것을 보고 지배인이 무슨 바쁜일이 있어 대리로 보냈겠거니 하고만 생각했었다.

매사에 세심치 못한 자신이 죄스럽기만 했다.

그의 눈앞으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새로 이사한 오리목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 화면마냥 흘러갔다.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목장에 들어선 리인배는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째서인지 덩실하게 큰 목장이 빈집처럼 조용했다.

혹시 이 사람이 집에서 휴식하는게 아닌가?

리인배는 또다시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침 사무실에서 나이가 들어보이는 녀인이 신발을 끌며 급하게 나왔다. 언제인가 본적이 있는 창고원이였다.

리인배는 바빠 그에게 다가갔다. 지배인이 어디 갔는가고 물으니 모두 부업지로 나가 모내기를 하고있는데 자기가 지배인을 찾아오겠다며 반달음을 쳤다.

리인배가 수령님께 새로 늘어난 축사를 한창 설명해드리는데 최성준이가 신발을 든채 맨발로 달려왔다. 논판에서 모를 쫓던 차림이였다.

《어버이수령님, 목장지배인 최성준입니다.》

그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인사를 드리였다.

《아, 지배인동무, 반갑소.》 수령님께서 다가가시여 손을 내미시였다.

《아니, 제 손은 이렇게 흠이...》

성준이가 당황하여 들고있던 신발을 떨구며 손을 옷자락에 대구 문질러댔다.

《일없소. 난 일하던 동무의 이런 차림이 더 좋소.》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그의 흠문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어서 신을 신소. 령감처럼 얼굴에 수염까지 그렸구만.》

그제야 성준이 황황히 자기의 주체를 내려다보았다.

건어울린 바지가랭이, 흙투성이 맨발. 그의 얼굴이 타오르는것처럼 붉어지였다. 수령님의 뒤에 있던 리인배가 그에게 다가갔다.

《지배인동무, 어서 저기 수도에 가서 세면도 하고 신을 신소, 빨리.》

최성준이 수도가로 달려갔다. 그가 덤벼치며 세면을 하고 흙탕이 게발린 발을 씻기 시작하자 수령님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시선을 돌리시였다.

《오리들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구만. 정말 좋소.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저기에는 채종농장이 자리잡고.》

수령님의 말씀에 리인배도 고개를 돌리였다. 오리목장 옷쪽에 자리잡고있는 채종농장에서 무우, 배추 장다리꽃향기가 기분 좋게 풍겨오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정말 명당자리에 잡아주시었습니까.》

《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보통강으로 분가할 때에 이 자리가 욕심났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리인배가 그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었다.

《이 자리를 욕심내는데가 많았소. 살림집을 짓겠는지, 식료공장도 짓겠는지 또 벽돌공장도 짓겠는지. 그때는 정말 벽돌 한장이 귀할 때였소. 전후 복구건설때니까 제기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소. 하지만 난 승인할수 없었소. 여긴 수도시민들의 후방공급기지가 되어야 할 적지이기때문이요. 남새가 나고 고기와 알이 쏟아질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요. 이제야 내 소원이 풀릴수 있게 되었소.》

리인배는 수령님께서 하시는 소원이라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사이 몸차림을 바로 한 최성준이가 다가와 경건한 자세로 수령님을 우러렀다.

그가 오리목장 지배인의 중임을 맡았을 때 리인배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외우시던 소원에 대해 제일먼저 알려주었었다.

《지배인동무, 저기 보이는게 어디요?》

수령님께서 최성준에게 맞은편을 가리키시며 물으시었다. 결코 몰라서 물으시는것이 아니었다. 성준이가 조심히 입을 열었다.

《수령님, 만경봉입니다.》

《웁소, 만경대요.》

눈앞으로 푸르른 대동강 건너 소나무가 청청한 만경봉이 안겨왔다.

《여긴 만경대 앞동네요. 오리도 잘 키우고 저 뒤쪽에는 2, 3층짜리 아파트도 짓고 문화생활도 하라구. 앞으로 저 만경대쪽에두 큰 닭공장을 세울 생각이요. 이 지구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지면 정말 나의 소원이 풀릴수 있소.》

뒤집을 지신채 이윽도록 만경봉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예나 지금이나 만경봉의 푸른 소나무는 변함이 없군.》

숭엄한 기분에 잠겨 수령님을 우러르던 리인배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수령님께서 조용하신 음성으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읊으시는게 아닌가.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입술을 깨우는 리인배의 눈앞이 금시 뿌옇해지

었다.

일제침의 폭압이 아무리 잔악하고 참기 어려운것이라 하더라도 혁명가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기어 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의지와 숭고한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구절구절!

선생님의 그 념원 가슴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친지들까지 다 잃으시면서도 오로지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얼마나 감회가 깊으시랴.

리인배는 대동강 푸른 물결우에 등실 솟은것 같은 오리목장을 눈물속에 바라보았다.

놀이장마다에 차고넘치는 하얀 오리떼와 푸른 대동강물이 그림같은 조화를 이루어 유정한 풍경을 이루는 이곳. 아, 선생님께서 살아계시여 오늘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만경봉 소나무숲에 선생님의 모습이 어려오든듯싶으시여 가슴 한가득 차오르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외우시는 수령님!

리인배는 끝내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지 못했다, 옆에서 최성준의 헉- 하고 터치는 흐느낌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박박거리는 오리들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리인배는 고개를 들었다.

《이 오리들이 새 품종 오리들이 아니요?》

어느새 종금오리놀이장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 반색을 하며 물으시었다.

리인배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 전쟁시기에 보내주신 알에서 깨운 오리를 보존하고있는 종자오리입니다.》

리인배는 그러는중에도 구름떼마냥 물려오는 오리들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일반적으로 오리들은 놀이장에서 놀거나 한가하게 었디여있다가도 인기척이 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해 디뎛거리며 달아나는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례외였다.

오히려 수령님을 뵈오려 경쟁이나 하듯 비좁게 밀려들고있었다. 말 못하는 오리들도 자기들을 아끼시는 위인을 알아보는걸가?

《저 오리들을 가져오느라 총국장동무가 가슴을 조였지. 그때는 참으로 준엄한 시기였소.》

깊은 감회에 잠겨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이시었다.

《수령님, 우리 인민은 가끔력사에 깃든 수령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종자오리에 깃든 사연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리인배는 눈물이 그렇게서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있던 어느날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던 때였다.

드디어 종자오리알을 구했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놀랐던가. 그러나 다음 말씀은 더 놀라웠다. 오리들을 군용비행기로 날라온다는 말씀이었다.

(군용비행기로 오리알을 날라오다니.)

너무나 예상밖의 일이었다.

(아직은 그 나라와 국제항로도 없는데 운임은 얼마나 비싸겠는가.)

《이미 총참모부에 파업을 주었소. 비행기가 무사히 오리알을 날라오도록 대공방어를 철저히 하라고 말ियो. 그래서 미국놈들이 하늘과 땅에서 비명을 지르도록 하잔 말ियो. 얼마나 멋있소!》

수령님의 담대한 배짱과 신심이 어린 통쾌한 웃음을 들으며 리인배는 가슴속 걱정을 이렇게 터치하였다.

(아, 우린 이긴 전쟁을 하고있구나!)

바로 그때의 오리알에서 까난 종자오리가 지금 저렇게 번성한것이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새끼오리물놀이장으로 걸음을 옮기고계시였다. 이 물놀이장은 오리들을 새끼때부터 물에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곳이었다.

《지배인동무, 오리를 기르려면 꼭 물이 있어야 하오?》

새끼오리들이 봄비는 물놀이장을 내려다보시던 수령님께서 최성준에게 물으시였다.

《물 말입니까?》 성준이가 선듯 앞으로 나서는 순간 리인배는 긴장해지였다. 학력이 없는 그가 수령님께 어떤 대답을 올릴지 알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 사실 오리는 물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집단사육할 때에는 꼭 물단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더우기 비육용인 경우 너무 운동을 시키면 먹이단위만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과 달리 주견이 있는 대답이었다. 리인배의 가슴으로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듯 했다. 수령님께서 리인배를 바라보시였다.

《총국장동무의 생각엔 어떻소?》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생산현장에서는 더우기 절실한 문제라고 봅니다.》

리인배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웁소. 그게 중요하오. 빨리 살을 찌워서 내자는게 아니요. 자, 이젠 새로 꾸리고있는 종금사를

좀 봅시다.》 하고 돌아서시였다.

성준이가 흠칫하더니 그 자리에 굳어졌다. 리인배 역시 어지간히 당황하였다.

종금사로 가자면 해묵은 풀쭈과 개울을 지나야 했다. 개울엔 다리가 아니라 통나무 한대가 건너질러 있을뿐이었다.

거길 건너가다니, 리인배의 온몸에 진땀이 짙내돌았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저쯤 앞서고계시였다. 그는 수령님앞으로 달려갔다.

《수령님, 거길 풀이 무성한데다 온통 질척거리는 진탕이고, 게다가 외나무다리여서 못 가십니다.》

《그전에 산에서 싸울 때 우린 험한 사득판도 건너다녔소. 난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이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 험한 길이라도 건넌소.》

수령님께서는 그냥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가막사리와 진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때였다. 최성준이가 나는데 외나무다리앞으로 먼저 달려갔다. 그는 주저치 않고 다리에 성큼 올라섰다. 물때가 오른데다 외통나무다리인지라 첫 발부터 미끄러지었지만 그는 용케 몸을 다잡았다. 엉성하게 두손을 벌리고 경중경중 반달음으로 다리를 건너서는 질척거리는 바닥도 아랑곳없이 뚫어앉아 외나무다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뚫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리인배는 가슴을 찼다. 아, 내가 왜 이 다리생각을 못했던가. 고생도 많이 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오늘날에 와서까지 이런 험한 길을 걷게 하시다니.

《일없소. 지배인동무, 어서 일어나오.》

수령님께서 건너편의 최성준에게 손짓하시였다.

《수령님, 외나무다리가 미끄럽습니다.》 최성준이가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들었다.

《일없소. 일어나라는데.》 수령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최성준은 일어날념을 앓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서있읍시다.》 수령님께서 여유작작한 표정으로 뒤짐을 지시였다.

할수 없는듯 최성준이 고개를 뚫군채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자 수령님께서 성큼 외나무다리에 오르시였다.

아! 리인배는 땀배인 두손을 으스러지게 쥐었다. 그 순간엔 심장의 박동도 멎는듯 했다. 자기의 온몸에서 피기가 완전히 가서진듯, 한초한초 숨가쁜 정적의 순간이 흐르는데 《보시오.》 하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다리건너편에 서계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걸고 우리의 혁명사상을 정력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런 과정에 지도핵심들을 소문없이 키워냈다. 그리고 그 핵심들로 반일청년동맹도 조직하고 부녀회도 조직하였다. 조용하던 산골마을은 드디어 우리의 위력한 활동지반으로 되었다. 김정숙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웅군애병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부녀회원들, 청소년들과 함께 원호물자들을 준비하여 부대에 보내주곤 하였다. 그가 원군교양을 얼마나 잘하였던지 도천리부락에서는 산동지방에서 온 중국이주민들까지 발동되어 인민혁명군에 원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아동단원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총탄을 수집하였다.》

리인배의 가슴에선 단숨이 확 내뿜졌다.

《자, 건너오오. 다리에 힘을 주고 중심을 딱 잡으면 아무 일 없소.》

수령님께서 이쪽에서 굳어져있는 리인배에게 손짓하시었다.

그러시다가 최성준을 돌아보시고 무척 놀라시었다.

《아니, 이게 뭐요? 이 얼굴, 응?》

최성준의 얼굴은 흠칠, 감탕칠로 얼룩져있었다. 다리를 움켜잡았던 흠문은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마구 닦았던탓이라.

당황해한 최성준이가 벅 벅 문지르는데로 그의 얼굴은 더더욱 험상해지었다.

수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었다. 리인배도 이제까지의 긴장했던 마음을 풀며 슬며시 고개를 돌리었다.

《지배인동무가 령감처럼 또 수업을 그렸구만. 응? 허허허... 동무를 보니 산에서 싸울 때 <대통령감>이라고 부르던 한 투사가 생각나는구만. 령감이라고 하지만 그의 나이는 지금 지배인동무의 나이보다 젊었겠소. 마흔네댓 나이였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령감이라고 했겠소? 그는 담배를 지독스레 피우곤 했는데 꼭 대통에 담배를 담아 피우곤 했지. 나무잎사귀만 한 종이쪼박이 생겨도 건사했다가 거기에 자료를 깨알같이 박아서 쓰곤 했소. 그 누가 백지에 담배를 말면 무섭게 욕을 했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소. 그는 자기가 쓴 자료들이 이다음 해방된 조국앞에 드릴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배낭속에 건사하곤 했소. 전투가 벌어지고 힘겨운 행군을 하는 속에서도 늘 자료를 쓰고 일기를 쓰곤 했소. 그는 조국광복회창립때도 일을 많이 했지만 3.1월간 주필사업도 훌륭히 맡아했소. 혁명앞에 그렇게 성실하고 량심적인 그런 인간을 왜 존경하지 않겠소. <대통령감>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속에는 바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이 담겨있는거요. 오늘 동무를 보니 그를 보는

듯 한 심정이 살아나 <두단령감>이라고 부르고싶구만.》

수령님께서 자애깊은 눈길로 최성준을 바라보시었다.

《수령님!》 최성준이가 무슨 말을 할듯 하면서도 더 하지 못하고 입술을 떨기만 했다.

《두단령감!》

리인배는 심장이 터져나오는듯 한 커다란 충격을 안은채 수령님을 우러렀다. 한없는 사랑과 정이 담긴 그 부름. 그 부름속에는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 담겨있는가.

...

갑자기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리인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차는 오리목장입구에 들어서고있었다. 목장입구는 물론 하얗게 눈이 쌓인 동쪽에까지 프락뜨르며 달구지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복작거리고있었다. 리인배는 차에서 내리었다. 목장기사장이 달려왔다.

《무엇들을 하고있소?》

《야외우리에 었을 이영을 엮으려고 벼짚을 실어오고있습니다.》

《야외우리? 벌써 시작했소?》

야외우리를 지을 파업은 수령님께서 목장에 주신것이였다.

《그런데 지배인이 왜 보이지 않소?》

《지배인동진 야외우리용 기둥감때문에 자강도에 갔습시다.》

《자강도?》 리인배의 눈이 커다래졌다. 하지만 《이 겨울에?!》 하는 말은 입안에서 잦아들고 더 나오지 못했다.

리인배가 잠시 기사장과 말하는 사이에도 벼짚을 가득 실은 프락뜨르들이 연방 들이닥치고있었다.

눈이 쌓이고 동장군이 독을 쓰는 이 겨울에도 목장은 계절을 앞당겨오느라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어머님의 일편단심

정 동 찬

내 오늘도 가끔  
어머님의 생각에 젖어  
타향의 그 봄날에 남긴  
한상의 사진을 마주할 때면  
백옥같이 빛을 뿜는  
일편단심의 미소를 뵈옵습니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어도  
그리움을 자아내는 미소  
뵈고싶어 다시 보는 모습은  
어쩌면 그리도 맑고 정에 넘친  
친위전사의 모습입니까

조국을 잃었고  
한점 혈육마저 다 잃었던  
간고한 세월에 간직한 일편단심  
이 조선의 운명을 지켜드린 충정이어서  
그대로 닳고싶은 마음입니다

흑한속의 길고긴 밀림의 밤도 가고

품에 품고 말리운 옷을 내놓으실적에  
얼어든 어머님의 정상 하도 눈물겨워  
한평생 두고두고 잊지 못하시던 수령님 추억  
이 가슴 못 견디게 울려줍니다

그처럼 결곡함을 안겨주는 한상의 사진을  
삶의 거울처럼 모시고  
내 가슴을 조용히 짊어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고생 뒤에 묻어두고  
자라는 후대들앞에 보여드리는  
어머님의 미소  
나를 다정히 곁에 부르며  
일편단심의 불타는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탄우속에서도  
불속에서도 타지 않은 일편단심  
이 나라의 태양복을 만대에 이어놓으시는  
어머님의 일편단심  
이 마음 붉게 물들어갑니다

## 그 프락에 자욱을 찍고있습니다

전 승 일

방금 어머님고향집  
프락을 밟았던 이 자욱이  
추녀높은 회령관 보석홀을 밟습니다  
한자욱한자욱 생각깊이 밟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유년시절  
눈물겨운 자욱자욱이 숨배인  
고향집프락은 그리도 좁았던만  
평범한 이 공민이 찍어가는 발밑에  
그리도 눈부신 보석홀을 깔아주었습니다

고삭은 추녀아래 그 작은 프락을  
종달바구니 안고 들어서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빨갭게 얼어드는 손에 물동이 안으시고  
그 작은 프락으로 들어서시는  
어머님 그 모습이 사무쳐옵니다

조국이 없는 설음을 안고  
그리도 숨막히게 살아오신 어머님이시기에  
피눈물 뿌리며 그 작은 프락마저 떠나신것

아닙니까  
이 나라 수천수만 그 가난의 프락을 없애주시려  
눈덮인 만주광야와 백두산발을 달리시여  
해빛 눈부신 조국을 우리에게 안고오신것 아닙니까

날마다 내 걷는 드넓은 거리와  
백화만발한 공원길들  
우리 아이들이 때없이 밟고오르는  
학생소년궁전의 하얀 대리석층계들 그 맨앞에  
우리 누리는 행복의 가치를 칠리처럼 새겨주며  
아, 어머님고향집 작은 프락이  
고요히 놓여있나니

나는 지금  
보석홀을 밟습니다  
보석홀을 밟으며  
한자욱한자욱 회령관으로 들어섭니다  
했어도 불덩이처럼 뜨거운 이 심장은  
천년만년 인민이 생각깊이 밟고 또 밟을  
어머님고향집 작은 프락에 자욱을 찍고있습니다



#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과 시인의 사색

박 정 봉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과 시인의 사색은 시가 시로 될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의 심장이 불타올라 생활에 대한 정서적 체험이 깊어지고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아져야 시 문학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키고 명시, 명가사 풍년을 안아올 수 있다.》

정서적 체험이 깊어야 사색도 깊어진다. 사색은 정서적 체험으로부터 짙어지며 깊어진다.

서정은 시인의 사색을 조건지어주는 요인이다.

정서적 체험이 없이 붓을 들면 생활의 진실과 본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

정서적 체험과정은 시인이 생활의 진실과 본질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생활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적 체험은 좋은 시를 낳게 하는 필수적 요인으로 된다.

정서적 체험과정에 착상이 이루어지고 생각을 더듬고 사고를 거듭하는 과정에 서정적 핵이 잡혀지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풍부한 서정이 흘러넘치게 된다.

정서적 체험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자리잡게 되어 마침내 시적 환상과 기지, 기량의 도움으로 개성적인 시세계를 펼쳐보인다.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과 사색으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노래한 서정시들 가운데는 작품집 《그리움의 세월》중에서 《눈보라속의 한생》(황성하), 서정시 《뜨거운 눈송이》(강은별)도 있다.

이 작품들은 피눈물의 12월 눈보라속에서 어버이 장군님과 영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의 눈물겨운 모습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인의 체험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서정시 《눈보라속의 한생》(황성하)에서는 생전에는 우리 인민이 맞을 눈을 모두 맞으시고 우리결을 떠나실 때조차도 이 땅의 차가움을 다 안고 가신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노

래되고 있다.

그리움의 한해를 보내며 강산에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을 바라보며 시인은 장군님의 한생에 대한 추억깊은 사색을 펼친다.

...

눈이 내리면

눈이 포근히 내리면

축복의 꽃보라로 우리 맞군 했건만

어이하여 이 아침에 내리는 눈은

왜 그리도 이 가슴에 깊은 생각 불러내는 것이냐

...

장군님을 모시고 《축복의 꽃보라로》 맞군 하던 흰눈!

그 흰눈이 12월의 아침 류다른 깊은 추억을 안고 내린다.

12월의 흰눈에 대한 시인의 추억의 세계는 장군님의 고결한 한평생, 헌신의 한평생에 대한 수많은 추억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고의 성스러운 백두밀림》의 흰눈우에 첫 자욱을 새기시고 이 세상 모든 눈을 다 맞으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가 감동깊은 시적 화폭으로 펼쳐진다.

...

멀고 험한 전선길 굵이 굵이

철령의 눈을 제일 많이 맞으시고

북방의 희천땅에 내리는 눈

동해의 공장길과 들길에 내리는 눈

마지막날까지 다 맞으시더니

...

눈덮인 철령을 넘으시여서는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보고 싶어왔다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강도 눈보라강행군길을 달리시여 눈내리는 희천을 찾으시여서는 야전차에 매달린 고드름을 보며 눈물속에 아뢰이는 인민들에게 비약의 불길을 지펴주

신 장군님!

조국땅 그 어디에나 그이의 사랑이 닿지 않은  
곳, 그이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인민들이 언제나 춥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마  
음덥게 살라고》 한평생을 눈보라와 함께 사시고  
우리결을 떠나실 때조차도 《이 땅의 차거움을 다  
안고가시느라》 눈보라속을 가신 장군님에 대한 시  
인의 간절한 그리움이 강렬한 서정으로 펼쳐지고  
있다.

...

우리들이 춥지 말라고  
따뜻한 집에서 마음덥게 살라고  
한생 눈보라속에  
이 땅의 차거움을 다 안고가시느라  
가실 때도 정녕 가실 때에도  
눈보라속을 가셔야 했던가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눈보라천만리가 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봄만이 깃들었고 그이의  
한생속에 언제나 존엄높은 인민의 삶이 있다는것이  
시인의 주장이다.

끝없는 추억을 불러오는 12월의 흰눈에 대한 시  
인의 축적된 감정은 마감에 와서 폭발하여 시의 사  
상정서적특성을 해명하고있다.

...

오, 그래서  
우리들이 울지 말라고  
장군님 웃으시며 가시는 그날  
슬픔의 장막을 겹겹이 드리우며  
모질게도 내리던 눈은  
눈속에 보내드릴수 없어 몸부림치며 절규하던  
이 나라 인민의 눈물이었거니

아, 그리움의 눈은 뜨거워라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우리 장군님을  
목놓아 불러찾는 마음의 하늘가에  
끝없이 내리는 아, 눈이어!

...

한평생 눈보라를 맞으신 장군님과 영결하는 그  
길우에 솟웃주단을 깔아드리며 생전에 아버이를 더  
잘 모시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령구차를  
바래우던 우리 인민의 눈물이 그대로 흰눈이 되어  
내린다는 시인의 주장은 그리움에 대한 깊이있는

서정으로 해명되고있다.

시에서는 령구차앞에 모신 장군님의 태양상을 자  
책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우리를 두고는 절대로 못  
가신다고 장군님을 목이 메이도록 피타게 부르고  
또 부르던 영결식연도의 모습을 한쪽의 그림처럼  
방불하게 형상하고있다.

시인의 사상감정을 주관화하여 펼쳐보이는것이  
시의 특성이라고 놓고볼 때 시인의 눈물겨운 체험  
세계가 깊고 감정정서를 일관성있게 끌고나가는 형  
상능력이 높아야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시를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시에는 장군님과 피눈물속에서 영결한 시인의 가  
슴터지는 체험세계가 구절구절마다에 깃들어있고  
그에 맞는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시적대상을 설정  
하여 시작품의 사상주제적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시인의 개성과 기량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는 민족의 아버이를 잃고 피눈물속  
에 몸부림치던 가슴아픈 추억을 그리움의 추억으로  
형상하여 보여줌으로써 12월의 흰눈은 곧 그리움으  
로 뜨거운 인민의 눈물이라는 사상정서적핵을 예술  
적으로 훌륭히 해명해내고있다.

이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작품들가운데는 서정  
시 《뜨거운 눈송이》(강은별)도 있다.

시에서는 장군님의 한생이 어리여있고 장군님의  
념원이 깃들어있는 추억깊은 12월의 눈송이에 대  
한 시인의 감정정서가 깊이있는 체험속에 노래되  
고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집집의 창가에 내려쌓여 그  
리움의 추억을 불러오는 눈송이에 대한 서정이 펼  
쳐지고있다.

...

눈덮인 2월의  
천고의 밀림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을 눈보라전선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  
가실 때마저 눈속에 바래워드렸으니  
아, 오늘도 이 마음에 내려쌓이는  
그날의 흰 눈송이

...

이처럼 시에서는 시작부터 눈보라와 함께 헤쳐오  
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펼쳐고있다.

흰눈덮인 백두밀림의 작은 귀틀집에서 장군별로  
탄생하시고 흰눈을 맞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과 영

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한생은 정녕 눈보라전선길에 계신 한 생이었다.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찬눈을 다 맞으시고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에는 전선길의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조국의 운명을 지키는 사생결단의 조국수호전의 길에 나서신 장군님의 한생이 이처럼 길지 않은 시어속에 형상되고있다.

장군님의 한생에 대한 시적형상은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사상정서적바탕으로 하고있다.

시인의 이러한 사상정서는 자연의 눈송이는 녹을수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내려쌓이는 그날의 흰 눈송이는 정녕 녹지 않는다는 시인의 주장으로 표현된다.

...

솜웃이며 수건우에 내리는 눈송이는  
녹을수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날의 눈송이는  
정녕 녹을수 없구나

...

그날의 흰 눈송이, 그리움의 흰 눈송이에 대한 시인의 시적환상은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시던》 백두밀림의 흰눈으로, 다박술초소와 철령, 오성산에 내려쌓였던 흰눈으로, 강계와 회천을 찾아 눈보라강행군길을 걸으시는 장군님의 《야전차차장을 가리우던》 흰눈으로 펼쳐지고있다.

시인은 이러한 서정을 펼침으로써 뜨거운 사연을 간직한 눈송이들이기에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내려쌓여 녹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명하고있다.

장군님의 헌신의 한생이 어리어있고 장군님께서 남기신 념원을 속삭여주는 추억깊은 력사의 흰 눈송이에 대한 시인의 시적사색은 맹세의 흰 눈송이, 뜨거운 흰 눈송이로 승화되어 노래되고있다.

...

천만군민의 가슴에 변함없이  
아버이의 유훈 지켜갈 맹세  
이 가슴 불태워주는 흰 눈송이  
뜨거운 흰 눈송이이다

...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시종일관하게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추억이 흰눈과의 련관속에서 펼쳐지

고있으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그리움의 추억만이 아니라 불타는 맹세의 사상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그것은 시의 서정구조의 측면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시의 첫머리에서 장군님을 잃고 보낸 그리움의 날들에 대한 추억인양 창가에 내려쌓이는 눈송이를 시적계기로 끌라잡고 그것이 시인의 사색속에 흰눈에 대한 추억으로 감정이 승화된다.

점차 승화된 시인의 사상감정은 송이마다에 뜨거운 사연을 간직하고있어 세월이 흘러도 녹지 않고 마음에 내려쌓인다는 시인의 주장으로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축적된 감정정서는 추억깊은 그 흰 눈송이가 맹세로 뜨거운 흰 눈송이라는 발견으로 사상정서적핵이 밝혀지면서 해결된다.

이처럼 시에서는 서정의 흐름이 순탄하고 자유로우며 감정정서가 론리적인 련관속에 생동하게 펼쳐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시의 사상정서적핵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두 시는 다같이 장군님을 잃고 맞는 12월의 흰눈을 시적대상으로 잡고 그에 대한 시인의 감정세계를 펼쳐지고있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깊이있는 정서적체험과 그에 대한 시적일반화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시는 모두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형상하고있다.

그러나 시에서 시인들의 발견은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같은 시적대상을 시화한다고 하여도 시인의 감정세계가 다르고 그의 창작적개성과 예술적기량이 각이하면 그에 대한 시적일반화도 다르게 표현된다.

서정시 《눈보라속의 한생》에서는 그리움으로 뜨거운 인민의 눈물로 표현하였다면 서정시 《뜨거운 눈송이》에서 시인이 12월의 흰눈을 맹세의 흰 눈송이, 뜨거운 흰 눈송이로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시인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르는 발견이 서로 다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시적일반화의 능력이 서로 다른데서부터 오는 결과이다.

이렇게 두 시는 흰눈속에 사무쳐오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계를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이것은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의 세계가 깊고 시인의 사색의 세계가 비상히 높을 때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인민이 사랑하는 작품을 내놓을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문학에서는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써야 한다.

사람의 미학적기호는 시대와 함께 변화발전한다. 지난 시대에 쓰던 낡은 형상수법으로써는 오늘 우리 인민의 새로운 미감에 맞는 소설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소설이나 시나 할것없이 방향을 잘 세운 다음에는 곧추 가든 돌아가든 가는 방법을 한개 틀에 얹어맬 필요가 없다. 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은 작가가 재간껏 탐구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 신갈파의 나루배

김 길 성

철썩 처절썩...

강기슭을 적시는

신갈파나루터의 물소리

수난의 그 세월 거치른 물결 헤치며

압록을 오가던 한척의 작은 나루배

오직 일편단심 혁명을 위해

삶의 순간순간을 불같이 사신

어머님의 뜨거운 그 숨결 그 손길

그대로 배전에 어려있어

못 잊을 그날의 사연 전하여주는 나루배

민족의 태양 장군님의 해발이 되시어

피맺힌 겨레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큰뜻 투쟁의 불을 지펴주시며

그들을 조국해방성전에 묶어세우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도천리와 신갈파

신갈파와 도천리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낮이나 밤이나 오고가시던

어머님의 그 사생결단의 배길이어

그날의 만단사연 전해주는 신갈파의 나루배

쌀과 소금 천과 등사잉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으신 정찰자료...

어머님 보내주신 적정자료로 하여

전투마다에서 울린 승리의 함성을

온 나라 방방곡곡 겨레의 가슴가슴에

실어나른 나루배

정녕 망국노의 슬픔과

눈물만을 싣고 오가던 나루배

어머님께서 신갈파에 오신 그날부터

희망과 신심 투쟁과 승리만을 안겨주는

혁명의 전함으로 되었나니

아, 도천리와 백두산

신갈파와 사령부 끝없이 끝없이 넓어지는

혁명의 전구 투쟁의 바다로 달리는 나루배

오늘은 원수님 안아오실 최후승리 그날 향해

천만군민의 마음싣고 달리고있어라

가 사

## 인민은 행복합니다

류 정 실

자애론 그 모습은 태양입니다

환하신 그 미소는 해빛입니다

온 나라를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민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따뜻한 그 품엔 그늘이 없습니다

다정한 그 손길엔 병든 자식 없습니다

사회주의천만복 꽃피우시는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조국이라 부르며 사는

인민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이와 천만군민 한식술입니다

일심의 강국은 세상에 하나입니다

이 조선 무궁미래 그 품에 맡긴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영원토록 길이 모셔갈

인민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 불멸의 세월

황 명 성

걱정의 눈물로 불을 적시며  
만세의 환호를 터치던  
못 잊을 그날이 어제만 같은데  
어언 삼년이 되었던 말인가

못 잊어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우리 달려온 3년세월

평범한 날과 달이 아니었다  
십년... 아니 100년과도 맞먹는  
내 조국 력사에 찬연할  
거창한 위업을 선군총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평장의 빛나는 세월

감회에 젖어 돌아보니  
저 푸른 창공에 나뭇기는  
최고사령관기의 붉은 자락이  
뜻깊은 천만사연 전해주는가

피눈물 흐르는 슬픔의 바다에서  
인민을 한품에 안아일으키시고  
흰눈덮인 전선길을 달리던  
최고사령부 야전차의 경적소리  
사랑하는 병사들과 어깨를 결고  
다정히 전우라 불러주시던 그이의 음성

굽이굽이 오성산 칼벼랑이라  
파도너머 무도의 섬초소이라  
천리방선 병사들이 사는 곳 그 어디나 울리어  
무적강군의 위용이 엄엄한 철의 대오  
멸적의 기상안고 치솟는 불락의 요새

빨찌산일가의 혈통을 이어  
백두산을 닮은 그이의 담력이시였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그이의 지력이시였다  
억세게 틀어진 선군의 총대로  
제국주의아성에 멸망의 파멸구를 내고  
쫓라닥거리던 종파놈들의 숨통을 끊어  
억년 드눌지 않게 반석같이 다진 우리 혁명의 진지

궁지높이 안아보노라  
장군님의 한생이 깃든 선군을  
불변의 신념으로 최고사령관기에 새기고  
천만군민을 승리에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우리 원수님의 전선일지 불멸의 세월이어

그 세월우에  
강국의 숙원이 열리어  
하늘에서는  
수령영생송가 울리며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속에서는 불의 퇴성을 터치며  
정의의 핵폭발이 우리의 자주권을 지켜  
평화를 짓밟는 침략의 흉계들을 짓부셔버렸나니

그 누구도 가늠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핵억제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며  
최고사령관 그이 정도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리라

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사는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 년대와 년대는  
내 조국이 백두산대국으로 무궁번영할  
태양조선의 불멸의 세월이여라!



## 변영옥

### 1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새 퍼붓고도 성차지 않은듯 오늘 한낮까지도 그냥 쏟아져내렸다. 산도 강도 다 눈속에 묻어버리려는듯싶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리는 눈을 그대로 맞으시며 발전소건설장을 굽어보고계시었다.

부판이 우산을 받쳐드리려 했으나 건설자들이 눈을 맞으며 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엄하게 막으시었다.

세멘트와 강재, 골재를 가득가득 싣고 내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들, 와르릉와르릉 기세차게 돌아가는 혼합기들, 언제우에 쉼없이 쏟아지는 혼합물, 그것을 다짐봉으로 다져가는 건설자들, 호각소리, 압축기소리, 방송차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소리...

건설장에서는 마치 더운 열기가 훅훅 풍겨나는듯싶었다.

두손을 허리에 얹고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을 이윽히 내려다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여기 발전소건설자들의 기상이 대단하오. 큰물피해때문에 은근히 걱정했는데...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깊은 산중에 거대한 인민의 재부가 또 하나 생겨난다는 생각에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흐뭇해지시었다.

《자, 이젠 우리 건설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가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얀 솜눈우에 성큼 큰걸음을 내디디시었다. 그때까지도 눈은 멎지 않았다.

그 눈은 장군님께서 건설자들 생활을 구체구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태천발전소건설장을 떠나실때에야 멎었다.

대신 차디찬 바람이 더 세차지면서 휘유히유히 눈갈기를 몰아왔다.

승용차는 눈보라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눈보라가 회오리치는 차창밖을 잠시 내다보시다가 인차 옆에 쌓아놓은 문건에 손을 가져가시었다.

지금 온 나라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길에 펼쳐나섰다. 성장에서는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투를 벌리고있고 대흥청년광산(당시)에서는 우리 식으로 마그네사크링카를 생산하기 위해 고심분투하고있다.

황철... 강선... 홍남... 락원... 그 어디나 들끓고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도 성과가 대단하다.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단호히 맞설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또 다음문건...

레성강발전소건설장에서 올라온 문건이었다. 지난해 장마때 큰물피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되었는지 펴 궁금하시었다.

급히 문건표지를 번지시었다. 문건에는 레성강발전소건설장 실태가 그대로 적혀져있었다.

100년만에 처음 보는 대홍수, 사뭇쳐내린 흙탕물, 무너진 발전기실과 웅벽들, 군데군데 파헤쳐나간 토언제와 끊어진 송전선...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

도자체의 힘으로 하는 공사여서 그런지 피해복구가 힘들게 진행되고있다.

문건의 마지막부분에는 언제공사를 당분간 중지하고 준비를 원만히 갖춘 다음에 계속했으면 한다

는 의견이 적혀있었다.

《당분간 중지라.》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시어 혼자소리로 조용히 뇌이시며 그 밑부분에 마지크로 줄을 쪽 그으시었다.

문득 언제인가 황해북도에서 자체로 폐성강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문건이 올라왔던 일이 생각나시었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문건을 보신 첫 순간에 저으기 흥분하시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폐성강이 지금은 건달강이나 갈소. 그 강을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일하는 강으로 만들자면 그곳에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게 간단치 않거던… 해방전에 일본놈들이 몇번이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물러나고말았소. 그러나 우린 꼭 건설해야 하오. 바로 그 발전소가 황해북도의 생명선이나 같기때문이요.》

장군님께서서는 곧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정연길을 부르시었다.

《수령님의 로고가 어린 곳에 도자체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겠다는데 나도 찬성이요. 합시다. 쉽지 않은 공사인것만큼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야겠소. 그래 이 건설을 누구에게 맡기려 하오?》

《저… 차옹도라고… 손탁이 세고 배짱있는 동무입니다.》

《차옹도?》

《예, 그… 12차세계청년학생축전때…》

《아, 그 동무!》

장군님께서서는 얼핏 떠오르는 생각에 반색을 하며 웃으시었다.

《알만 하오. 황철출신이지? …그 동무라면 능히 해낼거요. 그 동무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알았습니다.》

정연길은 그길로 황해북도에 내려갔다.

도에서는 인차 청년돌격대가 무어지고 이어 폐성강반에는 발전소건설의 첫 발파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어느해 12월 어느날 폐성강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한참 솟구쳐오르기 시작한 언제의 모습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젖빛안개를 긴팔로 휘감으며 우람한 콘크리트혼합물통을 하늘공중 떠올리는 회전기중기들과 한쪽 사석언제무에서 호각을 불며 빨간 신호기로 기중기들을 지휘하는 처녀의 모습이 유난히 이채롭게 안겨왔다. 그 모습을 대견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저 처녀동무가 이 건설장의 총지휘자같구만. 응? 건설교향악단의 지휘자같단 말이요.》 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기쁨에 넘치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차옹도가 자랑스런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저 동문 단발머리시절부터 여기 발전소건설장에서 일하고있는 처녀소대장입니다. 박순아라고… 정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합마전이면 합마전, 마대전이면 마대전… 저 왼쪽회전기중기운전공이 바로 수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 일하는 그의 애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망대의 차디찬 란간우에 손을 얹고 빨간 신호기를 춤추듯 맵시있게 휘저으며 지휘하는 처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훌륭한 청년들이요. 그런데… 가만, 처녀가 단발머리시절부터 일했으면… 지금 몇살이요?》

《스물여섯입니다.》

《저런, 이제 시집을 가야겠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수행원들을 둘러보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차옹도동무, 내가 알기엔… 여기 건설장에서 수십쌍의 청년돌격대부부가 결혼식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동무들은 언제 결혼식을 한다오?》

《…발전소를 완공하고 장군님께 기쁨드린 다음에야 결혼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뭉클해오시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그 마음이, 그 랑만이 가슴후덥게 안겨오는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인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군들을 둘러보시다가 《그러니 우리가 발전소건설을 더 힘껏 밀어주어야겠구만.》라고 하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에도 이런 문건이 올라온 것이다.

《당분간 중지라?…》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뇌이시며 마지크로 밑줄을 그은 문구를 내려다보시었다. 아무래도 속이 내려가지 않아 그 문구에 동그라미를 그리시었다.

그 동그라미속에 큰물피해를 가시느라 안타까이 뛰어다니다가 당분간 중지한다는 말에 몹시 실망하여 무너진 토언제뒤에 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남몰래 울고있을 처녀의 모습이 그려지시었다. 그들은 발전소를 완공하고야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당분간 중지라면 처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어쩐지 실패자료뒤에 그 문구를 써넣은 일군들의 처사가 너무 랭혹한것만 같이 생각되시었다.

차옹도는 지금 어찌고있는가, 러져나간 방수로, 끊어진 도로와 다리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고나가겠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있을것이

다. 그러다가도 폐허나 다름없이 된 그곳에 앉아 한숨을 쉬고있을지도 모른다.

장군님께서는 그 동그라미속에서 차옹도의 모습도 그려보며 또 한번 동그라미를 덧그리시었다. 그러시다가 단호히 동그라미위에 사선으로 한번 또 한번 힘있게 내리그으시었다.

그런 피해는 레성강발전소건설장에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100년만에 온다는 이번 큰물로 여러곳의 철길과 다리들이 파괴되고 탄광, 광산들이 물에 잠겼다. 농경지들도 많이 류실되었고...

문제는 그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더 훌륭히 일떠세우려는 일군들의 신념과 배짱이 흔들리지 않는것이다.

여기 래천발전소건설자들처럼 자연피해를 단숨에 가시고 더 높이 나래쳐오르기 위해 떨쳐나서면 된다. 그런데 차옹도는 왜 이렇게 주저앉을 생각을 하는가.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허전해지시었다.

(일군이 주저앉으면 언제는 오르지 못한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소리가 나게 덮고 표지에 《다시 료해할것!》라고 박아쓰시었다.

## 2

정연길은 차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래간만에 다시 레성강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그였다.

자기를 레성강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내며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쟁쟁했다.

《그곳 건설자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것 같소. 얼마전까지만도 정동무가 관계하던 건설장이니 동무가 현장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시오. ... 그리고 갔던 걸음에 그 처녀소대장도 한번 만나보고... 언제공사를 당분간 중지하러 한다니 어쩐지 그들의 일이 걱정되누만.》

정연길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이께서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것이 그 말씀에서도 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언제인가 그이께서 레성강발전소건설장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보니 힘이 생긴다고, 자본주의사회에선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무런 보수도 바람이 없이 인민들의 행복의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저렇게 떨쳐나섰다고 하시던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발전소건설을 힘껏 밀어주자고, 앞으로 그 처녀소대장의 결혼식도 보란듯이 크게 차려주자고 하시었는데...

이 무슨 일인가.

정연길은 심기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다른 부문사업을 맡아보느라 레성강발전소건설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더니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질줄이야.

문득 그의 뇌리에는 발전소건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도에서 청년돌격대가 무어지고 첫 발파소리를 울렸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무실안을 거니시다가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차옹도가 일을 시작했단 말이지, 차옹도가...》

장군님께서는 흐뭇한 눈길로 수삼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설레이는 정원쪽을 바라보시었다.

정연길은 장군님께서 저 수삼나무들을 바라보시며 차옹도의 모습을 그려보고계신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수 있었다.

정연길이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대표단을 책임지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였다.

축전의 열기가 한창 고조를 이루고있던 어느날 정연길은 대표단을 데리고 소연회에 참가하기 위해 크지 않은 식당에 간적이 있었다.

당시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 서방의 자본주의문화와 생활관이 견잡을새 없이 흘러들던 시기였다.

연회가 시작되고 원형식탁우에 놓인 빈 술잔에 접대부들이 차례로 술을 부어나갔다.

오묘한 미소를 담고 술을 부어가던 한 접대부는 뜻밖에도 순서를 잊은듯 차옹도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 대표의 술잔에 술을 부었다.

순간 차옹도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차옹도는 접대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찾았다. 그리고 자기의 빈 술잔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 대표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마디 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가던 길도 되돌아가고 질러가던 길도 에돌아가군 하니 접대부도 착각한 모양이군. 조선동지들도 세계의 그 와류속에 어차피 피할수 없는 길을 가야겠지요?》

그러자 모두가 긴장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차옹도를 쳐다보며 키득거리기도 했다.

차옹도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것이 접대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임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알미운 그 대표를 향해 쇠장대같은 팔을 내흔들며 우뢰같은 소리로 토박토박 적어말하였다.

《지구의 자리길이 바뀌었다는 말을 당신은 들어보았소?... 못 들었겠지, 그럴수밖에... 지구는 어제도 오늘도 자기 궤도를 따라 태양주위를 변함없

이 돌고있소. 똑똑히 알아두시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되돌아가기도 하지만 우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0.001미리의 편차도 없이 곧바로 끝까지 갈것ियो.»

차응도의 불같은 말에 소연하던 장내는 물을 뿌린듯 순간에 조용해졌고 접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정쩡해서 서있었다. 주최측의 책임자가 실수를 했다면서 사죄를 하고 접대부에게 무슨 말을 해서야 접대부는 인츰 태도를 바꾸고 교태를 부리며 한손으로 붓던 술을 두손으로 공손히 부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차응도의 그 배짱이 마음에 든다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사람은 그 어디에 가든 그렇게 자기의 존엄을 지킬줄 알아야 하오.》

그러시고는 이윽도록 창박을 바라보시었다.

《저 수삼나무들을 좀 보시오. 얼마나 곧고 억세게 자라는가. 모진 광풍에도 끄떡없거던.》

그처럼 차응도를 믿으신 장군님이시었다. 하기에 그가 레성강발전소건설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그리도 대견해하시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연길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승용차는 점심시간이 펍 지나서야 건설장에 들어섰다. 건설장에서는 와와 환성을 울리며 체육경기를 하고있었다.

《레성강, 이겨라!》

《은천강, 이겨라!》

《영-차!》, 《영-차!》

굵은 바줄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머리를 잔뜩 뒤로 젖힌채 바줄당기기를 하는 량권선수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박수소리, 북소리, 징소리가 고막을 얼얼하게 했다.

한쪽에서는 두사람이 한류안에 들어가 어깨걸고 발을 맞추며 뛰여가는 경기를 하고있었다. 또 한쪽에서는 초급일꾼들이라 짐작되는 청년들이 애 어린 돌격대원들의 발밑에 손바닥만 한 나무토막을 하나 하나 놓아주며 《위험한 징검다리구간》을 넘게 하는 경기도 하고있었다....

정연길은 여기 어디인가 차응도가 있을듯싶어 경기장을 휘돌러보았다.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경기가 끝난듯 긴 호각소리가 울리더니 확성기로 《대렬을 정리하십시오.》하는 소리가 울렸다.

정연길은 웅성웅성 대렬을 정돈하는 돌격대원들의 옆을 지나 현장지휘부쪽으로 향했다.

차응도는 현장지휘부 천막안에 있었다. 책상을 마주하고 사업수첩에 무엇인가 쓰다가 털모자를 벗으며 들어서는 정연길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아니?... 부부장동지가 어떻게?...》

《왜? 난 이제 여길 오면 안되오. 그새 잘 있었소?》

《예, ... 저희들이야 뭐. ...》

《지금같이 어려운 속에서도 체육경길 하는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만. 허허, 하긴 이런 배짱이 없으면 차응도가 아니지.》

차응도는 눈을 내리깔며 어줍게 웃었다.

《우린 부부장동지가 다른 부문을 맡아보신다기에... 우리를 아주 잊은줄 알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비판이구만. ... 달게 접수하오. 그런데 무슨 일ियो. 경기장엔 안 나가고 혼자 숨어서 뭘하고있소?》

차응도는 얼핏 자기 사업수첩을 내려다보고나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바위산에... 물주머니가 터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돌생산이 중단되고 건설도...》

그러니 차응도는 천막안에서 그것때문에 혼자 고심하고있은게 분명했다. 그는 차응도가 원하는 의자에 가서 앉으며 물었다.

《그래 대책은 세웠소?》

《예,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다른 곳으로 뽑아버리자는겁니다. 그간 돌격대원들이 너무 지쳤기에 오늘은... 하루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공사를 당분간 중지했으면 한다는건 무슨 소리요? 수령님의 뜻을 받들자고 장군님께서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요구되는 설비, 자재들을 다 보장해주면서 힘껏 밀어주고계시는데... 정말 다른 방도가 없겠소?》

차응도는 대답없이 또 한숨을 내쉬며 두주먹을 마주잡고 딱딱 손가락마디를 꺾었다.

정연길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를 건너다보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갑자기 눈곱이 시큰해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던 그가 별로 허우룩해졌던것이다.

불뚝이처럼 이글거리던 눈은 별정계 충혈되었고 눈언저리와 이마엔 잔주름이 가고 입술도 까실까 실해졌다.

사람이 1년새에 이렇게도 변하는가.

정연길은 슬며시 눈길을 돌려 그의 뒤 나들문옆 벽에 걸어놓은 흙투성이작업복을 쳐다보았다. 그러느라니 언제인가 그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부부장동지, 자연과의 투쟁이 정말 힘이 듭니다. 애써 쌓은 토언제가 장마에 떠내려갈 땐 이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는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쌓은 언제를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간에 먹어치우는것이 바로 저 건달장이니...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이 건달장을 우리 손으로 길들이지 못하면 청년돌격대가 아닙니다. 이 차응도도 아니



고...》

그러던 그가 오늘은 정말 주저앉아버린것이다.

정연길은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사연은 어떻게든 장군님께서 이 레성강발전소건설때문에 걱정을 하시게 한것이 불만스럽기만 했다.

《말해보오. 왜 그런 문건을 올렸소?》

잠시 고개를 못들고 머뭇거리던 차웅도는 이윽해서야 쥐어짜는듯 한 피로운 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부장동지, 제가 제일 피로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발전소건설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일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언제공사를 중지하겠는가. 그런 말이 두려워서 주저앉았소?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어야지.》

차웅도는 고개를 숙이고 피롭게 숨을 몰아쉬었다.

《부부장동지, 우린 솔직히 주저앉지는 않았습시다.》

《그럼 문건내용은 뭐요. 그게 차웅도인가?》

정연길은 안타까이 책상을 두드렸다.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그건...》

피득 고개를 들었던 차웅도는 다시 눈길을 내리깔며 말끝을 흐리었다. 아태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결심한듯 천천히 이어가는 그의 어조는 약간 떨리고있었다.

《부부장동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고 살피주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닙니까, 우린 지금껏 그런 사랑속에 살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레성강발전소건설을 위해선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정말 아낌없이 다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모든걸 지켜내지 못하고... 떠나려갔으니 너무 억이 막혀...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체면에 또 손을 내밀겠습니까. 예? 지금 국가적으로 태천발전소, 어랑천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건설이랑 힘을 집중할데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피해는 크게 입었지만 언제공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장군님께서서는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먼길을 또 오실겁니다. 어떻게 하나 추켜세우자고... 하지만 장군님께서 오시여 이 실태를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로고는 또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죄스럽게 그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자고 말입니다.

도건설지휘부와도 토의했습니다. 당분간 언제공사를 중지하고 청년돌격대의 기본로력을 영천세멘트공장과 고연광산을 현대화하는데 보냈습니다.

남은 로력으로 목재해결과 바위산 돌채취에 집중하면서 피해입은 설비들을 원상복구해나가고있습니다.》

《?!》

정연길은 놀란 눈길로 차웅도를 건너다보았다.

그럼 그때문에?...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것을 느꼈다. 코허리가 시큰해지고 눈곱이 시어졌다.

그의 말이 옳았다.

지금 태천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서 더 많은 설비와 로력, 자재를 요구하고있었다. 국가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할 곳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걸 알기에 여기 발전소건설자들은 애초에 결의했던대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는 길을 택한것이다.

정연길은 아무말없이 자리를 일었다.

《음, 그렇구만. 그래서 언제공사를 중지했던 말이지?》

어차피 그들의 결심을 지지할수밖에 없었다.

정연길은 잠시 지휘부안을 거닐다가 다시 차웅도와 마주앉았다.

《좋소. 함께 방도를 토의해봅시다.》

### 3

해질무렵 승용차들은 북으로 달리고있었다.

하늘을 뽀얗게 가리우며 훑날리는 눈가루들, 눈갈기를 쳐들고 이리저리 휘몰려다니는 칼바람, 모진 광풍을 뚫고 살같이 달리는 승용차들...

장군님께서서는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정연길이 가져온 문건을 거듭 읽으시었다. 마지막장을 덮으시는 장군님의 가슴은 저으기 뜨거워지시었다.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조용히 이르시었다.

《차를 세우시오.》

장군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눈보라가 휘몰아와 그이의 야전솜옷자락을 훑날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저 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었다.

눈가루가 뽀얗게 떠서 휘몰려다니는 산꼭대기에 땡땡하게 언 초생달이 꼬부리고서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 그너머 썩 멀리에 레성강이 있을것이다.

문득 그이의 눈앞에는 눈보라 사납던 겨울 그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오르시었다.

소한추위가 대지를 땡땡 얼구던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현지도일정을 레성강발전소건설장으로 정하시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하나인 전력생산에서 그곳 발전소가 차지하는 몫이 자못 크기때문이었다.

그날 건설장전망대에 오르시여 건설장을 굽어보실 때 정녕 얼마나 기쁘시었던가.

얼마전까지만도 기초에 불과했던 곳에 발전기실이 우뚝 일떠섰고 잔디웃까지 입은 토언제가 아득히 뻗어갔다. 류역변경의 시발점인 완공된 방수로, 그 수로를 따라 연연히 뻗어간 물길, 한창 솟구쳐 오르고있는 무덤이언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집중하면 계획한것보다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겠소.》

그이께서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마디마디 힘을 주며 강조하시였다.

《런판단위들에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겠습니다. ... 내각에서는 이 발전소건설을 다 먹어놓은것으로 생각하면서 준공테프를 끊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인 운수수단들과 굴착기, 압축기 등 필요한 설비들을 보내줄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철도역이 멀어 설비들을 수송해오자면 돌격대원들이 고생할수 있으니 해당 단위들에서 건설장까지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떠나실 때에는 현장일군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청년들이 집생각을 하지 않게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후방물자와 로동보호물자를 떨구지 말고 넉넉히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때 차옹도는 솟구치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련속 훔쳐냈었다. 그리고 떠나시는 장군님의 손을 꼭 잡고 움직이는 차를 어련애마냥 따라서며 《장군님,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장군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부디...》하고는 목메여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순박하고 진실한 그 모습에서 장군님께서는 그만이 아닌 청년돌격대원들모두의 진정을 가슴뜨겁게 느끼시였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은...

문득 박순아소대장이 불렀다는 노래가 생각나시였다. 정연길이 건설장에 갔다와서 들려준 이야기였다.

...정연길이 차옹도와 함께 도자체로 공사를 맡고 나가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고나서 박순아를 만나러 그의 대대로 갔을 때였다.

대대에서는 오락회를 하고있었는데 마침 박순아가 지명당한 모양이였다.

돌격대재복을 가뜰히 차려입은 그는 하얀 토끼털모자를 벗어 가슴에 꼭 대고 중발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절절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눈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그 어데 찾아가십니까

찬눈을 맞으며 가시는 길에  
이 마음 따라섭니다  
이 땅의 눈비는 우리가 다 맞으리니  
장군님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

그가 울면서 불렀다는 그 노래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으시였다.

가득한 우리 청년들...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보다 나라의 전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최고사령관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

낯익은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장군님결으로 뒤따라온 차에서 내린 정연길이 조심조심 다가왔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지 않으신채 뜨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언제는 벌써 다 일떠선셈이요.》

《예?》

정연길은 미처 그이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정쩡해있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들이요.》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을 도와줍시다.》

장군님께서는 정연길을 돌아보시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례성강으로 갑시다.》

정연길이 깜짝 놀라며 그이를 우려했다.

《아니, 이밤에 어떻게 그 먼델... 장군님!》

정연길이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드리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 동무들은 얼마나 장군님을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건설도... 자체로...》

《그래서 더 가자는거요. 정동무도 알지 않소.》

우리가 어느 한 전선에 힘을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대상을 소홀히 할수 있는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가 다 소리치며 곧바로 내달리게 하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투쟁방식입니다. 태천이랑 다룬데서 만세를 부를 때 그들은 뒤에서 박수만 쳐주겠는가. 언제를 다 쌓은 다음 새로 생긴 인공호수에서 꽃배를 타고 결혼식을 하겠다던 그 처녀소대장은 또 어떻게 하고...

도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운 공사요. 난 그러다 그들이 기가 죽어 일어서지 못할가봐 걱정스러워 그러오. 우리에겐 물에 떠내려간 자재나 설비보다 그게 더 중요한거요.

자 어서 떠납시다.》

장군님께서는 차에 오르시였다.

남쪽으로 차머리를 돌린 승용차가 눈보라를 헤치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정연길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보라속을 달리는

장군님의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길옆에서 자라는 그리 크지 않는 수삼나무들에 눈길이 갔다.

지난해 여름 장마때 장군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 가 차를 멈추고 비바람에 기울어진 수삼나무를 바로 세워주시던 일이 불쑥 떠오른다.

정연길이 황황히 달려갔을 때 그이께서는 벌써 밀등주위를 킁킁 밟아주고계시었다.

《나무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로 세워주어야 곧게 자라거든. …》

왜 그때 일이 새삼스레 되새겨지는지 알수가 없었다.

다만 장군님께서 이밤 그 차옹도네를 위해 또다시 먼 눈보라길을 가셔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어오를뿐이었다.

승용차들은 계속 달렸다. 굽이굽이 령길이었다.

그다음엔 산기슭을 따라 뻗은 산골길, 비탈길, 들길…

정연길은 눈물이 그렇게서 앞서달리는 장군님의 야전차를 바라보았다.

명절날, 쉬는 날 따로없이, 최전연전호가와 서해기슭의 농장길, 복변의 공장길 끝없이 걷고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장군님의 현지도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이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속에 얼마나 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는지, 장군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시는지 사람들은 과연 알기나 하는가.

휘유— 우—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었다.

#### 4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건설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산사태에 묻힌 발전기실과 군데군데 터져나간 토언제, 형체도 보이지 않는 가물막이둑과 림시다리들…

가물결은 있어도 장마결은 없다고 대홍수는 언제밀의 모든것을 거의다 쓸어간듯 했다. 지금까지 피해복구사업을 했었지만 보이는것마다 가슴이 아릿하시었다.

옆에는 수첩과 연필을 든 차옹도가 머리를 푹 숙이고있었다. 마치 건설장의 모든 피해가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지길라도 한것처럼.

별로 좋아든듯싶은 축 처진 어깨와 까실까실 말라든 입술, 목에 감겨진 알릴듯말듯 보이는 봉대…

크고작은 일감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건설장을 메주밟듯 뛰어다니며 고심하는 성실한 일군의 체취가 그대로 안겨왔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좀더 일찍 오지 못한 후회도 드셨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장군님, 저희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큰물피해가 동무들 잘못이야 아니지. 기운을 내오. 우리가 이런 피해를 한두번만 받은게 아니지 않소. 돌격대숙소는 옮겨지었구만.》

차옹도는 어망결에 고개를 쳐들었다가 《예, 저방수로뚝아래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며 말끝을 흐리었다.

《이번에 돌격대숙소도 피해를 받았소?》

《그렇습니다. …》

《음… 가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방수로뚝아래쪽으로 먼저 걸음을 내짚으시었다.

그 순간 차옹도는 긴장이 온몸에 전류처럼 쭉 흐르는것을 느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돌보는것이 이전에는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어왔었지만 큰물피해를 입은 후부터는 늘 현장에 붙어있어야 하다보니 대원들의 생활에 그전처럼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 장군님을 따라걸으며 마음이 불안해져 자꾸만 발이 허둥거려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 걱정은 괜한것이 아니었다.

장군님을 모시고 어느 한 대대식당에 들어서는데 어디에선가 한 청년의 청높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던것이다.

《동무! 동무가 열을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게 열판리공인줄 아오?》

청년의 볼부는 소리에 이번에는 애어려보이는 처녀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럼 어떻게요. 콩나물들이 모두 자라목이 되었는데.》

《그러길래 내 말하지 않던가, 콩나물은 실리가 맞지 않는다고. 숙소와 목욕탕에 보내는 열도 모자라 그러는데… 지금 뭘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아오?》

《어마나, 어쩔 또 그런 말을… 이건 러단장동지가 우리 식당책임자들에게 준 특별분공이란 말이 예요. 〈전투 전기간 콩나물을 절대로 떨구지 말것!〉. 콩나물이 건강에 어떻게 좋다는거야 동무도 알잖아요.》

《그래두 지금은 그전과 또 달라. … 그야 동무도 알지 않아. …》

그 말에는 대꾸를 못하겠는지 다른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차옹도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지금은 그전과 또 다르다고 한 마지막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한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식당 한켠에 있는 비닐박막집을 눈여겨보시였다. 그안에는 콩나물을 얹힌 가루스름한 시루들이 순서대로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열판리공청년의 말대로 대소환추위에 가설막에서 콩나물을 기른다는것은 사실 실리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차웅도가 그걸 알면서도 전투 전기간 식탁우에 콩나물을 떨구지 않도록 한것은 그만큼 돌격대원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과 다르다니...

장군님께서는 완강히 부정하시였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이들이 머리를 땀땀이 쳐들수 있게 힘껏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도 더 굳어지시였다.

이윽고 건설장으로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무덤이 언제에 눈길을 주시며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100년 대홍수가 들이닥쳤지만 저 무덤이언제만은 끄떡없구만. 만년대계의 건축물답게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아주 잘하였소.》

장군님께서는 방수로푼에 올라 무덤이언제를 보시다가 곁에 서있는 차웅도에게 피해복구자금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고 나직이 물으시였다.

차웅도는 선듯 입을 열지 못했다.

해당 일군들과 함께 수십번 계산하고 논의하다가 끝내 《당분간 중지》하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는데로 방향각을 돌리게 한 엄청난 수자를 감히 입에 올릴수가 없었던것이다.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모든것을 헤아려보신 장군님께서는 다시 언제를 바라보시며 서운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난 동무가 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에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했다는 말을 잊지 않고있소. 그제 바로 내가 아는 차웅도였소.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요... 물론 피해가 크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겠는가. 동무는 날 생각해서 그런다는데 난 순간이라도 에둘거나 주춤거리는걸 좋아 안해.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을 공격전에 서계신것처럼 나도 공격전만을 주장하오. 공격전! 알겠소?》

장군님께서는 주먹으로 차웅도의 가슴을 쿡 치시였다.

차웅도는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의 두눈이 다시 황황 불타기 시작했다.

《알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내밀며 힘있게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보시며 틀어쥔 주먹을 힘있게 흔드시였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종전보다 더 훌륭하게, 더

현대적으로 건설하시요. 설비, 자재걱정은 말고 다시 한번 본때를 보이라구.》

그러시고는 둘러선 일군들에게 힘을 주어 강조하시였다.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힘껏 밀어줍시다. 여기 폐성강발전소청년건설자들이 결승테프를 땀땀이 끊게 말이요.》

차웅도는 온몸이 한껏 격동되는것을 느끼며 그이의 말씀을 농칠세라 수첩에 토박토박 받아썼다. 해당 부문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자, 도에서 현대화하고있는 광산과 세멘트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국가적으로 해결해주자, 발전소건설과 송전선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자, 발전소건설장에서 중앙방송야회도 크게 조직하며 이틈있는 배우들과 예술단체도 보내주어 청년돌격대원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자, 살림집이 부족하여 수력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이 애로를 느끼고있다는데 그들의 살림집을 당에서 책임지고 보란듯이 훌륭하게 지어주자...

정연길은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가슴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이 폐성강발전소 건설에 돌려주시는 그 설비와 자재들을 위해 또 어떤 멀고 험한 길을 가셔야 하며 어떤 눈물겨운 로고를 바쳐야 하는지 어느 누가 다 알수 있으랴.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다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

그렇다.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는 온 조국땅이 다 안겨있었다. 그이께서는 조국땅을 통채로 품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고계시는것이다.

장군님의 그 헌신, 그 로고가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그런 한없이 숭고하고 열렬한것이기에 이리도 더더욱 눈물겨운것이 아니겠는가.

## 5

간고한 투쟁끝에 드디어 폐성강발전소가 완공되였다.

현지에 나오신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눈길로 웅장하게 일떠선 발전소전경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산과 산사이로 강을 쪽 가로질러간 아득한 언제, 짝-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물줄기, 뽕얹게 일어나는 물보라, 고르롭게 울리는 발전기의 동음...

전기가 흘러가는 송전선을 따라 서리꽃이 하얗게 핀 산너머로 시선을 옮기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평양하늘쪽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언제인가 폐성강발전소를 두고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삼삼히 어려오시였다.



《수령님, 기뻐하십니까. 수령님의 념원대로 폐성강에 발전소를 일떠세웠습니다. 속절없이 흐르던 건달강이 이제는 인민을 위해 일하는 행복의 강, 보배강으로 되었습니다.》

이 땅우에 세계적인 창조물이 일떠설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과 나누시는 뜨거운 마음속 대화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흐뭇한 눈길로 다시금 발전소를 바라보시였다.

《볼수록 장관이요. 정말 멋있소. 흠잡을데 없이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훌륭하게 일떠세운 청년돌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그러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새로 생겨난 호수로 미끄러지듯 떠가는 꽃배를 바라보시다가 차응도에게 물으시였다.

《참, 그 처녀소대장동무가 결혼식을 했소?》

차응도는 어깨를 짝 펴며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그 동무는 장군님을 이 언제우에 모시고 기쁨을 드린 다음 결혼식을 하겠다면서 아직…》

장군님께서는 감개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빨리 결혼식을 하도록 합시다.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며 속을 태웠겠소. 우리가 결혼식상을 차려줍시다. 인민을 위해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값있는가를 만사람이 다 알게 내세워줍시다. 표창도 크게 하고…》

장군님께서는 단발머리시절부터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장에서 일해온 그가 정말 기특하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는 수력건설연합기업소의 그의 애인도 쉽지 않은 동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차응도는 자꾸만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 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은 내가 동무들에게 해야 하오. 감때사나운 이 건달강을 길들이느라 동무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후더워오름을 느끼며 천천히 언제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서리꽃들,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대인공호수, 그우에 자르르 흐르는 금빛보석물결.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언제를 굽어보시였다.

이 언제에 박순아네들의 땀과 함께 청춘시절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그대로 스며있다고 생각하시니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단해.》

이때 차응도가 장군님곁으로 다가가 잠시 머뭇거

리다가 《장군님,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장군님께서 발전소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무릅없이 청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래, 그거야 해야지. 청년들의 위훈을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이름을 의미있게 달아줍시다.》

장군님께서는 찬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며 잠시 언제우를 거니시였다.

생각도 깊어지시였다. 정녕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큰 위훈을 세웠는가.

당의 부름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을 떠돌기며 내닫는 우리 청년들…

돌이켜보면…

해주—하성철길건설때도 그랬고 북부철길건설때도 그랬고 또 청년영웅도로건설…

이 땅우에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어디에나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런 위훈이 빛나고있었다. 그래서 《청년》이란 그 성스러운 이름이 기념비적창조물들에서 빛나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그렇다.

오늘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청년들은 선봉대, 돌격대로서 맨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다.

력사는 로동당시대, 선군혁명시대의 청년들을 길이길이 잊지 않을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차응도를 돌아보시였다.

《폐성강청년1호발전소라고 하는게 어떻소?》

《장군님,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꼭 맞는 이름입니다.》

《동무들이 마음에 든다니 그렇게 부릅시다.》

장군님께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발전소의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난 여기 이 발전소건설과정을 시작부터 마감까지 다 보았소.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이 언제에 물어왔는지 다 듣고 보았소.… 그러니 나는 이 발전소건설의 증견자라고도 할수 있소.》

《증견자!》

정연길은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되뇌이였다. 불시에 목이 꺾 메여올랐다.

그렇다, 그이이시야말로 이 거창한 창조물의 위대한 증견자이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이시였다.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청년건설자들



# 내 그이를 만나 뵈오려 간다

## 염 득 복

낮이면 더욱 그리워  
마음 언제나 달려가던 곳  
내 꿈결에도 원수님 만나뵈오려  
당중앙으로 간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  
모든 사연 아뢰이고싶어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이  
원수님사랑속에 박사가 된 자랑

그리고 예쁜 머느리를 맞아  
옥동자를 안아보았다는 행복도  
막내아들이 위성과학자되어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는 경사도

이 시각 그이께선 무엇하고계실가  
새로 지을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보고계실가  
평범한 산촌마을녀인이 삼가 올린  
고마움의 편지를 보고계실가

그이 계시는 집무실문가에  
잠시 걸음 멈추고 옷차림도 단정히  
손기적을 올리려는 순간  
나는 그만 굳어지고말았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에 것처럼 바쁘신 그이  
최전연초소에서 돌아오신 밤길로  
집무실에서 새날을 맞으신 그이  
오늘은 또 어떤 경사가 세인을 경탄케 하라

허나 나는 너무도 평범한 녀인  
선군시대 이름난 공로자도  
새로운 발명으로 이름떨친 과학자도 아닌  
어제날의 방직공

내 어이 원수님을 만나뵈울수 있으랴  
온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  
그이의 한순간은 조국의 십년 백년!  
그이의 한자옥은 조국의 천리만리!

허나 순간도 그이와 헤어져 살수 없어  
멀리 계셔도 가까이 계셔도  
항시 내 마음 그이께만 달려가거니  
이것이 어찌 꿈이라

나는 날마다 원수님 만나뵈오려 간다  
그이는 천만군민이 안겨사는  
그리움의 품 아버지의 품  
우리 삶의 전부여라!

을 걸음걸음 손잡아 위훈의 상상봉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여기 레성강의  
청년건설자들을 생각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신 우리 장군님!

정연길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마음속 진심을 터  
놓았다.

(장군님, 장군님의 그 애국헌신과 로고의 증  
견자는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입니다. 그리고 시  
대의 기념비인 이 언체입니다. 아니, 이 땅위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모두입니다. 이 조국은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해  
갈것입니다.)

짜— 처절씩—

바람이 더욱 세차지며 인공호수에서 밀려오는 파  
도가 언제기슭을 쳤다.

장군님께서는 곁에 서있는 차웅도의 손을 잡아  
쥐시고 몇번이나 어루만져주시다가 감개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손이 다 뒀구만... 제철소에선 이 손으로 쇠  
물을 짹짹 뽑아 온 나라를 들었다놓았는데 여기서  
애 어린 청년들을 말아 훌륭히 키워냈소... 이 깊  
은 산중에 인민생활의 큰 밑천을 마련해놓았거던.  
그러니 동무는 이 레성강의 영웅이요. 영웅! 고맙  
소. 앞으로도 이 기세로 2호, 3호... 계속 본때를  
보이시오.》

《장군님!》

차웅도는 장군님을 목메여 부르며 와락 그이 품  
에 안겼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끼며 차웅도  
의 어깨를 어루쓸다가 《자, 그럼 이젠 우리 돌격  
대원들과 사진을 찍으려 갑시다.》 하시며 그의 팔  
을 끼고 돌격대원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순간 《만세!》의 환호성이 우렁차게 터져올  
랐다.

그 만세소리는 레성강반을 울리며 멀리멀리 메  
아리쳐갔다.

# 시작과 마감처리에 대한 시적 형상

차 명 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정시창작에서도 시작을 잘 떼고 마감처리를 잘하는것은 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시적형상의 완벽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시의 대상에 따라 인간생활의 외적인것과의 통일속에 있는 내적인것을 표현하여야 할 특성을 가지고있는 서정시에 있어서 시작과 마감처리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첫시작에서 벌써 작품의 양상이 결정되고 그 길이도 예견될수 있으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격식은 없다.

그러나 첫시작은 시인이 체험한 생활감정의 축적된 시작이어야 하며 전개부분과의 정서적인 련계를 지어놓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조선문학》 2014년 8호에 실린 서정시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변홍영)에서는 시작과 마감처리를 형상적론리성과의 관계속에서 펼쳐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맺는것은 생활의 일반적인 발전형식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흔히 처음에는 작은 현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크게 번져지게 되는것이다.》

서정시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에서는 우선 첫시작부터 작품이 말하려는 기본사상을 암시하고 그 시작 또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고있다.

시의 첫시작은 시인이 체험한 생활감정의 축적속에서 많은것이 생략되고 비약된 시작이어야 하며 다음 전개부분과의 정서적인 련계를 지어놓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 시의 첫머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였다.

일제백만대적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백두산호랑이의 호탕한 웃음이 금시라도 들려오는 듯 삼지연못가에 서서여 위대한 수령님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은 그대로 항일전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인것이다.

이 첫 련은 다음련과의 정서적인 련계를 지어주고있을뿐아니라 시의 밝고 사색적인 정서의 색깔을 특징지어주고있다.

《삼천리조국땅을 굽어보시는 청년장군》이라는 형상을 통하여 볼수 있는바와 같이 그리운 조국땅

을 한품에 안으시였던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이 오늘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하나의 영상으로 안아볼수 있도록 펼쳐보이고있다.

시에서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백두산에 왔구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화를 제시해줌으로 하여 대원수님을 우러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이 더욱 부각되게 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수님의 가슴속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영생하시며 언제나 힘을 주신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이 시는 여섯번째 련까지의 감정의 실마리를 풀면서 일정한 생활축적을 쌓은 다음 시의 절정으로 이끌어가고있다.

...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도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곳  
백두산사령부뜨락에서 첫걸음 내짚으시고  
백두의 천만산악을 딛고 넘어  
선군혁명전장에 붉은기를 휘날려오셨거니

위대한 수령님 개척하시고  
장군님 한평생 이어오신  
조선혁명의 피어린 천만리길  
파란만장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사를  
자욱자욱 새겨보시는가  
열혈장군 우리 원수님의 가슴속엔  
우뢰치는 백두의 퇴성  
심장의 피를 끓이는 백두의 적기가

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빛나고  
불멸의 혁명생애가 어려있는 성산  
여기서 시작한 조선혁명은  
오직 줄기찬 승리의 한길만을 가리라

그 어떤 모진 광풍도 훔날려버리며  
태양이 빛나는 백두의 하늘을 누리에 펼쳐가리라

이 시의 두번째 부분으로 된 이 정서의 구조속에는 첫시작에서 암시하고 제기한 물음에 대한 근거가 펼쳐짐으로써 시에 진실성을 부여했을뿐아니라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여주고있다.

시의 형상적화폭에서는 빨찌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형상으로 보다 감명깊게 펼

쳐지고있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포성을 자장가소리로 들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상을 통하여 대를 이어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우리 조선혁명의 자랑스런 역사를 보여주고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피어린 천만리길과 파란만장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력사를 새겨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의 세계에 대한 시인의 강렬한 시적감흥이 펼쳐지기때문에 시의 시적계기가 마련될수 있었고 그 시적감흥에 토대함으로써 주제해명이 형상적론리성을 가지게 될수 있었다.

이처럼 시의 시작과 시의 전개부분에서 다음에 비약과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감정의 축적을 마련하였다.

서정시에서는 다음으로 시의 주제적인 내용에 기초하여 말하려는 사상을 심화시키면서 마감을 잘 맺기 위한 정서의 조직을 잘하고있다.

시의 마감을 잘 맺는것은 시작을 잘 떼는것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에서는 축적된 정서가 시의 마지막련에서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애써 맺어놓은 시의 전반형상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되도록 마감을 잘 맺어야 한다.

...

우리 장군의 심장의 엄숙한 선언이  
삼천리강토에 우뢰친다  
백두에서 높이 추켜든 붉은기아래  
조국통일의 열병식도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광장도

장쾌하게 펼쳐리라

아아,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탑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영원히 백두산에 있다!

이 결속은 첫시작에서 제기한 사상을 주제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대구법형식으로 끝을 맺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자육에 대한 칭송,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열렬한 토로로 시의 서정구조가 이루어지고있으며 마지막에 가서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탑/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영원히 백두산에 있다!》라는 명백한 결론을 주고있다.

이것은 커다란 주제를 안고있는 이 시의 특성에 맞는 형상이며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사상적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이러한 대구법형식은 시형상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시형상을 간명하게 함으로 하여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는 언제나 백두산에 자리를 잡고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고가리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있다.

시는 이처럼 작은것을 가지고 큰것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시작과 마감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서정시 《우리 혁명의 사령부는 백두산에 있다》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시작과 마감을 잘 처리하여야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는것을 일정하게 보여주고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시작과 마감처리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려 시창작에서 끊임없는 변혁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가 사

# 오늘의 영웅이들

강 현 민

축구우승 자랑높이 공화국기 날리고  
조선의 장한 딸들 승리하고 돌아왔네  
기쁨안고 인사하며 울고웃는 얼굴들  
하나같이 월미도 영웅이 같구나  
조국이 사랑하는 녀자축구선수들  
포성없는 오늘의 영웅이들이다

영웅이 부르며 간 그날의 노래를  
열한명 처녀들이 목청껏 부른다  
소녀시절 품고자란 고운 꿈 장한 포부

나라앞에 거레앞에 통쾌하게 펼쳤구나  
조국이 사랑하는 녀자축구선수들  
포성없는 오늘의 영웅이들이다

승리떨친 처녀들은 나라의 영웅이라  
온 민족이 자랑하며 축하를 보낸다  
어머니당의 믿음 빛내인 그대들  
선군시대 꽃으로 길이 남아있으리라  
조국이 사랑하는 녀자축구선수들  
포성없는 오늘의 영웅이들이다

# 12월에 부르는 노래

김 경 남

돌아보면 긍지로 가슴 부풀고  
바라보면 희망으로 가슴 설레는  
이해의 12월  
심장은 쿵쿵 열정에 넘쳐 뛴뛰누나

이 땅을 들썩이며 세인을 놀래우며  
2014년이여 너는 우리에게 빛을 뿌리누나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육아원과 애육원...  
쫓기도 가슴벅찬 창조물들이여  
부르면 환희넘치는 노래같은 기념비들이여

너를 안아보며 불러보는  
내 가슴 걱정의 눈물에 젖누나  
세상에서 최상의것을  
한시바빠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사랑과 정 신념과 의지를 안으신 원수님

이해의 그 하루하루에  
한달맞잡이로 일을 하시고  
하루의 1분1초에  
하루 이틀에 할 일을 하시며  
지새우신 밤과 걸으신 자욱우에  
창조의 열매들 주렁졌거니

아, 마식령이여 세포전역이여 청천강반이여  
연풍호반의 경사여 송도원의 환희여  
세월에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라  
네 품어안은 그 모든 창조물들  
장군님의 리상을 우리 원수님 꽃피워주신  
애국충정의 불멸의 기념탑이라고

사랑과 충정의 기념비 한껏 품어안은 조국이여  
그러만 보아도 가슴 설레이는 2015년이여  
어머니당창건 70돐을 맞는 2015년  
그 한해에 또 얼마나 높이 키쫓구며  
하늘가득 솟아오를것인가 인민사랑의 탑들이

아,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문명강국뜨락에 우리 들어설진대  
우리 어찌 하루에 하루를 살며  
한해에 한해를 살라

승리와 영광의 상징  
사랑과 행복의 영원한 품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조국번영의 속도 조선속도로  
안아오리 2015년이여 너의 한해에도  
어머니조국의 무궁세월에 빛날  
인민사랑 조국번영의 창조물을 안아오리

## 그 이름만 불러도

함 영 주

앞에는 항구도시  
사철 배고동소리 높은 정다운 포구들  
뒤에는 마식령  
령을 넘어서면 웃음폭포 쏟아지는 스키장

우리 원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명당자리에 멋쟁이공장이라고  
그리도 만족해하셨으랴  
물고기세척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화된 갈마식료공장

아, 우리 원수님 몸소 지어주신 그 이름만 불러도  
만선의 포구에 선듯

《바다만풍가》의 흥겨운 가락  
절로 떠오르는  
물고기가공기지의 표준공장이여

궁전같이 화려하고  
티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너의 모습을 위해  
천금같은 전선시간을  
두차례나 바치시였구나

건설의 날엔  
하루빨리 완공의 날을 앞당기라고  
일당백근위병들을 보내주신 원수님

조업의 그날엔 큰일을 하였다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우리 원수님

목메이노라  
만세의 환호성 터쳐오르던  
6월의 그날이 눈앞에 펼쳐진듯  
가슴젖노라  
명란젓 창난젓가공법을  
세세히 가르쳐주시던 그이  
8월의 그날처럼 저 가공실에 계시는듯

포장공처녀들의 차림새를 보아도  
흐름선을 타고 끝없이 쏟아져내리는  
제품을 보아도

우리 인민밖에 모르시는 그이의 정  
철철 넘쳐나는 인민사랑의 기념비여

네앞에선 령넘어 구름넘어  
저 멀리 북방의 외진 립산마을도 이웃처럼  
아침저녁 피어나는 즐거운 웃음소리  
가까이 들려오거니

아, 갈마식료공장  
그 이름만 불러도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치는 이 땅  
강성부흥의 새 살림 보란듯이 펼쳐가는  
내 조국 방방곡곡이  
해쓷는 바다처럼 한눈에 보인다!

## 12월

### 함 영 근

오늘은 년말총화하는 날  
우리 소대 모여앉았네  
열다섯명 탄부  
한식술같은 얼굴들이 모두 함박꽃  
경애하는 원수님 신년사를 받들고  
일년내내 뛰며 날아온 우리 아니나

누구는 반년동안에 한해 계획 넘쳐했다네  
또 누구는 세건의 발명권을 받았다네  
그래그래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소대장이 총화모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새해결의 승벽내기다

좋다 우리의 12월은  
사람마다 긍지를 안고  
자랑스럽게 총화하는 기쁨의 달  
지혜를 합치며 땀을 흘리며  
온 나라가 조선속도로 내달리는 모습  
신문에서 읽으며 가슴끓이던 열정의 한해

공장이라 농촌이라 어촌이라  
학교와 유치원이라 애육원과 육아원이라  
어데 가나 행복의 노래 넘쳐흐른다  
가시는 곳마다에서 그리도 만족하시어  
환히 웃으시는 원수님모습 뵈오며  
환희에 들먹이던 가슴가슴들이어

그래서 우리의 걸음 더 빨라졌네  
거리는 거리를 이어 끝없이 뻗어가고  
초소는 초소마다 철벽으로 다져지고  
공장은 멧쟁이 배들은 풍어기

사회주의문명국이 지척으로 당겨진듯

벗들아  
우리 지하에서 검은 금을 캐낼 때  
땅우에는 건설의 기념비 하늘가득 솟았으니  
우리 어찌 원수님만세 부르지 않으랴  
이 땅에 로동당만세소리 넘치지 않으랴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다 안겨주시려  
그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물놀이장 놀이터 로라스케트장  
여기 탄광마을에도 꾸려져있어

어른 아이들 모두 좋아하니  
한해를 하루같이 달렸어도  
지칠줄 모르고 새힘만 솟거니

생각하노라  
땅은 넓어 나라도 민족도 많지만  
12월

자부심을 안고 긍지에 넘쳐  
우리처럼 한해를 뜻깊게 총화해보는  
그런 나라 그런 인민 또 어디 있으랴

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정도따라  
부흥조국건설을 앞당길 총정의 한마음  
백배천배의 결의다지며  
오늘은 그대와 나 우리 소대가  
한해를 하루같이 달려온 년말총화를 한다  
새해도 한해를 하루같이 달려갈 맹세를 다진다





박 경 철  
그림 김 광 석

1

5월의 훈훈한 바람이 높고 험한 산들을 부드럽게 어루쓸어내리는 밤이다.

어디선가 돌돌돌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가락맞게 울려울뿐 사위는 비교적 조용했다.

히나 명포축산전문농장 관리위원장방에서는 밤이 깊어가는줄 모르고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었다.

농장의 삼두마차라 할수 있는 관리위원장과 기사장, 리당비서가 마주앉아있었다.

책상 오른쪽에 앉은 보통키에 몸이 다부지고 반고수머리에 얼굴이 곱살하게 생긴 50대 중반기의 사람이 관리위원장 김윤섭이고 왼쪽에 앉은 윤섭과 나이는 비슷하나 몸집이 크고 눈썹이 튼튼한 시꺼먼 사람이 기사장 신철준이다. 그가운데 심판원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리당비서였다.

사실 지금 이들이 론쟁하고있는 문제는 축산전문농장의 본분에 맞게 범산을 대담하게 개척하여 농장의 기본지표인 염소와 양방목을 하자는것이였다. 범산은 명포리 소재지에서부터 30리 떨어진 멀고 험한 곳으로서 골짜기와 등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명포리를 기다란 빨래방치에 비긴다면 그 손잡이부분이 바로 범산이라 할수 있었다. 아직 인가가 몇집밖에 안되는 외딴 곳이었지만 방목에 필요한 풀과 나무잎이 무진장했다.

여기서 이동방목을 한다면 젖생산량은 물론 증체률도 부쩍 높일수 있었다.

그런데 기사장 신철준은 이제부터 바쁜 농번기인데 술한 인원을 그곳에 보내면 농사에 큰 지장을 받을수 있다며 반대하고있는것이였다.

안타까운듯 김윤섭이 다시 성급하게 말을 이었다.

《아, 몇번이나 말해야 알아들겠소. 현재 각 축산작업반들과 분산사육을 하는 세대들이 자리잡고있는 골짜기와 그뒤의 등성이, 봉우리들에는 점점 먹이가 고갈되어가고있다는거야 기사장동무도 알고있지 않소. 때문에 그곳들을 한두해 쉬우면서 인공풀판도 조성하고 자연적으로도 풀과 나무를 무성하게 키우자는거요. 농사에 대하여 말할 때 언제까지 축산반이 농산반을 도와줄수는 없소. 올해부터는 포전담당제도 실시해야 하니만치 농산반들도 제힘으로 농사를 짓도록 요구성을 부쩍 높여야 한단 말이요.》

명포축산전문농장에는 농산반이 4개, 축산반이 4개로서 5:5비율이다. 하지만 농산반의 토지는 얼마 안되고 거기서 나는 알곡생산물도 그 량이 매우 작았다. 그런데도 지난 시기 농산반의 일이 팔려한창 파종기나 김매기시기, 가을걷이때에는 축산반의 신세를 지곤 했던것이다.

신철준이 다시 검질기게 반박을 했다.

《포전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관심밖에 두었다가 농사를 망치면 그뎨 누가 책임지겠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그러게 농산반이 무조건 자기 일을 책임지게 만들자는거요.》

그때까지 참견않고 묵묵히 듣고있던 리당비서가 오른손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다.

《됐소. 축산도 중요하고 농사도 해야 하는것만 큼 이렇게 합시다. 관리위원장동문 축산을 맡아 이동방목을 실현하고 기사장동문 농사를 맡아 농산반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농사짓는 방향으로 나가

야 하겠소. 그러나 둘다 농장의 책임일군들이것만 큼 서로의 일에 항상 관심하며 모든 일이 다 잘되어 나가도록 조치해야겠소.》

년장자인 리당비서의 말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두 사람은 드디어 입을 다물고 씩씩히 고개를 돌렸다.

한자리에 그런듯이 앉아있던 김윤섭은 얼마후에야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집을 향해 별빛내린 소로길을 스적스적 걷기 시작했다. 어쩐지 기사장이 이동방목을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났다. 물론 그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농장은 어디까지나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것만큼 모든것을 축산을 잘하기 위한데로 지향시키고 북돋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윤섭에게는 명포축산전문농장 관리위원장으로 되기까지의 일이 어제런듯 선히 떠올랐다.

...명포리는 우리 나라 서북부의 깊은 두메산골,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동서남북이 높고 험한 산들로 둘러막혀있어 아침이면 해가 늦게 뜨고 저녁이면 빨리도 지는 곳, 옛날에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렸다는 고장이다. 리면적의 90프로가 산이고 나머지 10프로의 땅도 온통 돌투성이고 척박하기 이를데 없어 조나 기장, 고추, 강냉이 같은것을 심어가꾸었는데 소출도 얼마 나지 않았다. 흰쌀밥먹기가 정말 조런치 않아 대다수가 잡곡밥을 먹었다. 하긴 도토리를 우려서 죽을 쑤어먹고 손님이 오면 느릅쟁이국수를 눌러대접하는것이 고작이었던 옛날보다는 생활이 퍼그나 나아졌지만 도시나 별방수준을 따라가자면 아직 멀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난 윤섭의 어린시절 꿈과 소원은 자기 고향도 다른 고장 못지 않게 잘사는 곳으로 만드는것이였다.

그래서 윤섭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신철준이와 함께 농업대학 농산학부에 입학하였다.

원래 총명하고 똑똑한 그였기에 고향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면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부터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것, 그러자면 배워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여 한해두해 세월이 흐르고 졸업이 점점 가까와오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농사지을 땅이란 얼마 없고 온통 산뿐인 고향을 무슨 수로 잘살게 만든단 말인가?

회의심에 사로잡힌 윤섭은 졸업하면 별방으로 배치받을 궁리까지 해보았다.

이것을 한호실에서 먹고자고 한교실에서 공부하는 신철준이 모를리 없었다.

하루는 그가 격분한 어조로 윤섭을 다블러세웠다.

《고향을 드렸다는건 제 어머니를 버리는것과 같애. 잘나도 못나도 제 어머니를 버릴수 없듯이 우린 제 고향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살아야 해. 그따위 허튼 생각을 다시 했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철준의 말이 옳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떻게 하나 고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떠날 궁리까지 해보다니...)

자기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한 김윤섭은 대학을 졸업하자 신철준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처음 농산반에서 분조장으로 일했다.

몇해 일하고나서 장가도 들었다. 서른이 갓 넘어서는 같이 농산작업반장으로 임명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김윤섭이 자기는 결원중에 있는 축산작업반장으로 일하겠다고 제기해나섰다.

신철준은 깜짝 놀라 시키면 눈섭을 꿈틀거렸다.

《정신나가지 않았나. 말이 축산반이지 집짐승 몇마리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받고있는 축산반을 말아안고 대체 어찌자는건가? 농산반은 그래도 일정하게 토대가 있지 않나.》

《물론 축산반의 토대가 약하고 집짐승을 기르는게 보통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란걸 나도 아네. 하지만 농산반에서 몇년간 분조장으로 일하면서 찾은 결론은 산이 대다수인 우리 명포리에서는 결정적으로 축산을 발전시켜야 잘살수 있다는거네. 해마다 농사를 지었됐자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 이상 알곡소출이 오르지 않고 그 낱알만 가지고서는 어렵도 없네. 산이 많은 유리한 조건에 맞게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여 고기와 알, 젖을 짤 수 있어야 생활이 윤택해질수 있다는거야 너무도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일찌기 산을 깬 고장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현명한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오늘에야 깨닫고있는 자신이 환멸스럽네. 못사는것을 팔자탓, 고장탓이라고 하면서 운명에 순종해온 옛날 부모들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고 보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농장의 축산을 본때있게 일으켜세울 결심이네.》

원래 고집이 센데다가 결심이 너무도 확고한 윤섭이어서 철준은 더이상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다. 자진하여 축산작업반장이 된 윤섭은 그때부터 짬짬이 축산학을 공부하며 축산반을 일으켜세우는데 달라붙었다. 건물도 새로 번듯이 짓고 인원들도 더 보충하고 집짐승마리수도 종류별로 따라 더 확보하면서 밤낮이 따로없이 아글타글하여 몇년어간에 축산반을 쭉 때벗이시키고 기름지게 만들었다. 속이 커진 그는 온 농장적으로 통이 크게 축산을 해볼 욕망으로 전망계획도란것을 품놓아 그렸다. 그 전망계획도에 의하면 축산반을 3개 더 늘구고 집짐승마리수도 지금보다 4배이상으로 불구는것이 골자로 되어있었다.

그외에도 할일이 수다했다.

그 전망계획도를 그새 기사장이 된 신철준이한테 가져갔더니 그는 대수강 보고나서 한열으로 밀어놓는것이였다.

《축산을 한다는게 어디 떡먹듯 쉬운줄 아나? 아이 한명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면 집짐승 한마리 키우는데는 적어도 그 절반공수는 든다고 말할수 있지. 농사에는 그래도 농한기라도 있지만 축산

에는 축한기라는게 없네. 사철 쉬임없이 집짐승을 돌보고 다뤄야 한단 말일세. 산이 많다고 해서 축산이 절로 될것 같으면 벌써 온 나라 산들에 짐승 떼가 육질거렸을거네.》

그때 철준이와는 달리 이 전망계획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새로 배치된 리당비서였다. 어느날 리당비서는 그 전망계획도를 군당에 가지고나갔다. 상급에 제기하여 진지하게 토론했다. 윤섭의 가슴은 터질듯이 울렁거려왔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과 달이 바뀌어도 전망계획도와 관련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윤섭에게는 점차 실망감이 생겼다.

처음 굴뚝처럼 솟구치던 흥분과 욕망은 어느새 불꺼진 화로처럼 되어버린듯 했다. 하긴 축산을 한다는게 어디 공기마시듯 쉬운 일인가.

그것도 온 농장을 축산전문농장으로 만들고 실리가 나게 운영한다는것은 보통 결심과 의지, 노력, 열정을 가지고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사장도 반대한것이 아니겠는가.

안해도 남편의 이런 고충을 눈치챘는지 한마디 깨끼였다.

《제 보기에요 당신의 그 전망계획도는 실현되기가 힘든것 같군요. 그래서 우에서도 침묵하는게 분명해요.》

윤섭이도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래, 인간은 때에 따라 무모한 욕망을 누를줄도 알아야 한다.)

그는 전망계획도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말은 일만 묵묵히 해나갔다.

그러던 그해도 다 저물어가던 마지막날이었다.

이날 농장에서는 한해농사총화와 대렬편성모임이 있었는데 군당책임비서가 회의지도성원으로 참가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농사총화가 끝난 후 뜻밖에도 군당책임비서가 연탁에 나서서 말했다.

《국가의 조치에 의하여 오늘부터 명포협동농장은 명포축산전문농장으로 개편되었음을 알립니다.》

조용하던 장내에 급기야 웅성거림과 설레임의 잔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쳤다.

하나 더 놀라운 일은 다음에 있었다.

《…축산반장을 하던 김윤섭동무가 새로 개편된 명포축산전문농장 관리위원장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윤섭동무는 지난 기간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농산반 분조장으로 일하다가 축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축산반반장이 되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농장이 전문적으로 축산을 할수 있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전망계획도까지 훌륭히 완성하였습니다. 고향을 자기 피와 살처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고 통이 큰 생각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위원장과 한마

음한뜻이 되어 당의 뜻대로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으로써 명포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김윤섭동무는 주석단으로 나오시오.》

일시에 터져오르는 요란한 박수속에 윤섭은 자기 귀를 의심한채 마치 남의 다리로 걷는듯 한 걸음으로 주석단에 올라갔다. 그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자 사회자가 《이제부터 새로 조직하는 명포축산전문농장 대렬명단을 관리위원장동지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윤섭은 여전히 닥쳐든 이 현실이 꿈만 같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후들거려나는 다리를 가까스로 가누며 연락으로 걸어나갔다.

처음엔 목이 짝 메여 입조차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자꾸만 눈시울이 젖어들뿐이었다.

윤섭은 안개가 낀것처럼 뿌예진 눈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자기를 향해 기대어린 눈길을 모으고 있는 온 고향사람들의 그 뜨거운 화답의 마음을 읽는 순간 윤섭은 이름할수 없는 크나큰 힘이 온몸 가득 뻗쳐오름을 느꼈다.

드디어 그는 큰소리로 또박또박 대렬명단을 읽어내렸다....

생각에서 깨어난 윤섭은 한순간 나약해지려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나는 축산전문농장 관리위원장이야. 그 어떤 경우에도 축산을 뒤자리에 놓을수는 없다. 축산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지을수 있게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 뛰고 또 뛰자.)

## 2

윤섭은 이틀동안 각 축산반을 다니며 이동방목준비를 서둘렀다. 축산반마다 100마리씩 되는 양들은 이미 다루던 처녀사양공들이 그냥 몰고가면 되는것이고 문제는 전부 분산사육의 방법으로 기르고있는 도합 2 000여마리나 되는 염소였다.

그전에는 부부가 서로 도우며 집부근에서 방목을 했지만 이제는 먼곳에 이동하여 방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다.

세대주들이 이동방목을 가고 안해들은 집살림을 돌보며 풀판조성과 짐승먹이발가꾸기 등을 하도록 했다.

세대주도 멀리 갈수 없는 사정이면 축산반의 처녀총각들이 대신 이동방목을 가고 그들이 하던 일을 맡도록 했다. 그리고 축산반의 처녀총각들에게 호소하여 될수록 그들이 이동방목을 많이 가도록 했다. 그밖의 준비정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빈틈없이 대책하고서야 어둑된인 집마당에 들어서던 윤섭은 아래방에서 울려나오는 어이떨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러니 너두 래일부터 이동방목을 간다는거

냐? 모를 소리다. 너야 돼지관리공이 돼놔서 작업 반을 뜨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다시 토론이 있었어요. 아버지 청년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 돼지관리를 세대주가 가정사정때문에 먼곳에 갈수 없는 분산사육세대에 맡기고 그 집대신 립시염소방목을 하는것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찬성했지요 뭐. 나뿐아니라 많은 처녀총각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 염소방목과 사양관리방법을 잘 배우고 나두 앞으론 분산사육세대가 되어 염소를 키우겠어요.》

《헛참, 분산사육세대가 되려면 시집부터 가야 할텐데 범산인지 뭔지 하는 그 깊은 산에 무슨 총각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따위 허튼 공상은 싹 걸어치우고 축산반에 그냥 붙어있거나 해라. 그러지 않아도 울어뜰엔 무슨 마련을 봐야겠다.》

《어머니두 참, 저 범산에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총각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난 꼭 가고 야말겠어요.》

《원, 누굴 닮아 고집이 센지. 다 령감탓이라니까.》

그제야 윤섭은 허허 웃으며 방문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여보, 우리 은정이가 하자는대로 놔둬시다. 알겠소? 저 애가 정말 범산에 가서 범같은 신랑감을 붙들어올지. 그보다두 난 이 일에서 우리 관리위원장세대부터 앞장서야 하기때문에 이러는거요. 나나 당신이 범산에 가서 냇다 방목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걸 대신해주는 우리 은정이가 난 세상에서 제일 곱고 막 업어주고싶단 말이에요.》

윤섭의 안해는 그만 할말을 잃고 남편을 향해 땀 지 않은 눈총을 땅 쏘다.

다음날 농장의 많은 축산반처녀총각들과 분산사육세대의 세대주들이 작업반 순서대로 염소떼와 양떼를 몰고 범산으로 떠나갔다. 그 앞장에는 자전거를 탄 윤섭이 있었다.

문득 그의 뒤를 바짝 따르던 한 애리에리한 총각방목공이 이동방목가는것이 그리도 좋은지 사기가 나서 물었다.

《관리위원장동지, 범산을 왜 범산이라고 합니까?》

《오- 그건 먼 옛날에 황소만 한 범이 이 산에서 살며 립근 수백리 산의 왕노릇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누만.》

《지금두 그런 왕범이 있을까요?》

《글쎄, 최근년간엔 범을 보았다는 소릴 못 들었소. 이젠 저 염소떼, 양떼가 이 범산의 왕이라 할수 있지.》

《범산의 왕이요? 거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휘휘, 어서 가자 범산의 왕들아.》

총각방목공은 자기가 물고가는 염소떼에 호기있게 회초리를 휘둘러댔다.

범산에 도착한 그들은 윤섭의 지휘하에 축산작업

반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개하여 세대주들과 총각들이 들 초막과 처녀들이 들 초막 그리고 염소와 양들이 들 우리들을 짓기 시작했다.

그밖의 여러가지 일처리까지 꼼꼼히 끝내고 오후 너덧시경에야 관리위원회로 내려오던 윤섭은 명포리의 중간쯤 지점인 합수목 큰길가에 덩실하게 서있는 젓가공실에 들렀다.

《이제부터 젓가공준비를 잘해야겠소. 폐년에 비해 더 많은 염소젖이 보장될테니 말ियो.》

《염소떼가 모두 범산으로 올라가던데 그 먼곳에서 젖을 날라오자면 사람들이 더 고생하겠어요.》

몸집이 뚱뚱한 젓가공실 책임자녀인이 범산쪽을 흘끔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뇌이는 소리였다.

이전 일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것이다.

이전에는 술한 염소들이 사방에 널려있다니 사람들이 아침마다 젖이 들어있는 동이나 비닐통, 바께쓰를 이고들고지고 혹은 자전거에 싣고 이곳으로 모여오곤 했었다. 그러면 그것을 저울로 달아 그 키로수를 명부에 기록하고 후에 평가하곤 했었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좋으니 젓가공만 팡팡 잘해서 탁아소, 유치원과 소학교에 보내주오.》

자전거를 바삐 몰아 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윤섭은 발에서 돌아오는 신철준을 만났다.

《아무래두 농장의 소형트랙토르 한대를 전문 젖운반에 돌려야 할가보오. 그 먼 범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젖을 가공실에까지 날라올수야 없잖소.》

《농사일에 써야 할 트랙토르를 그런 일에 돌려도 일없겠소? 그러지 않아도 농산반의 로력이 약해서 야단인데. 올해초에도 두명의 농산반 로력을 축산반에 돌리지 않았소.》

그것은 사실이였다. 해마다 집짐승마리수가 늘어나는데 따라 농산반의 로력을 일부 조절하여 축산반에 돌리고있었던것이다.

《기사장동무, 그렇다고 인원보충을 안해준거야 아니지 않소. 다만 선후차를 가려서 그렇게 한거지. 어쨌든 젖운반이자 그것두 농사일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 아니겠소. 당장 산에서 젖이 쏟아질텐데 뭘 그러오. 그런 수확물을 생각하면 절로 배가 부르고 가슴이 빠근해지지 않는가 말ियो.》

《허허, 그래두 난알이 난알이겠지. 관리위원장이 정 그렇게 나오면 할수 없지요.》

철준은 마지못해 응대하는듯싶었다.

다음날부터 소형트랙토르 한대가 통통통 정다운 동음을 울리며 범산으로 달려가 젖을 실어오곤 했다. 젓가공실에서 나는 젖산유를 싣고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이따금 알맞게 비까지 내리자 산판은 시간이 다르게 푸르고 기름져갔다.

범산의 염소떼들은 늘 배가 불러 맛있는 풀들만 골라먹을 지경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거스름한 젓통이 너무도 팽팽 부풀어 염소들은 고통스러워하



는것 같았다. 젖통을 쥐기 바쁘게 희뿌연 젖이 분수처럼 짹짹 뿜어져나오곤 했다.

젖을 다 짜서 젖통이 훌쩍해져서야 염소들은 시원하다는듯 맏-애 한다.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윤섭은 새벽일찍 일어나 범산으로 떠났다. 농장의 여러 사업을 돌보면서도 매일 한두번은 그곳에 다녀오고야 마음을 놓곤 하는 그였다. 큰길에 나선 그는 자전거에 올라 힘껏 발디디개를 밟아댔다.

기다렸다는듯 맑고 싱그러운 공기가 속으로 한껏 흘러들어 심신을 정화시켜주는것만 같았다. 손에 잡힐듯이 바라다보이는 우중충한 산들, 큰길과 나란히 흐르는 수정같은 개울물, 귀전에 쉬임없이 들려오는 잣새며 참새, 호르래기새들의 즐거운 지저귂소리 그리고 집집마다에서 청높이 울려나오는 돼지며 닭, 염소, 개사니들의 힘찬 울음소리들… 삽시에 기분이 상쾌해진 윤섭은 이슬에 축축히 젖은 큰길에 바퀴자국을 남기며 썩썩 자전거를 몰아갔다. 범산이 시작되는 기본풀어구까지는 그런대로 자전거를 타고갔지만 끝에 들어서자부터는 온통 울퉁불퉁한 돌투성이올리막길이어서 자전거를 밀면서 걷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불꼬불한 좁은 소로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느라니 목은 새초를 베어엮은 초막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매매, 메메 하는 염소, 양울음소리가 도간도간 울리기 시작했다. 어떤 부지런한 방목공들은 벌써 젖을 짜느라 부산을 피우고있었다.

윤섭은 딸이 방목하는 염소들의 젖을 짜보고싶어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코앞의 무성한 수풀속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은정이, 힘들지? 해종일 날구뛰는 염소들을 뒤쫓아 험한 산밭을 탄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밤엔 염마생각이랑 날거야.》

《술직히 축산반에서 고스란히 돼지를 키울 때보다 곱절이나 힘들어요. 하지만 날을 따라 젖생산이 올라가고 염소들이 포동포동 살이 지는걸 보면 힘든줄 모르겠어요.》

《웁아, 나두 같은 심정이야. 어쨌든 내가 여기에 오길 잘했지. 글썄 아버지가 그닥 달가와하지 않는걸 때를 쓰고 왔다니까. 하마트면 은정이를 매일 보지 못할번 했어.》

윤섭은 목소리의 입자들이 다름아닌 자기 딸 은정과 기사장의 아들 신진호임을 알아차렸다.

진호는 작년 가을에 군대에서 체대되었는데 농산반에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뿌리치고 스스로 은정이네 축산2작업반에 들어와 먹이분쇄공이 되었다. 그도 이번에 어느 한 분산사육세대의 염소들을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범산으로 올라온것이였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흰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였다.

윤섭의 가슴이 별안간 후두둑 뛰놀았다.

요전번에 은정이가 제 어머니한테 저 범산에 하늘에서 내려온 총각이 있을지 어찌 알라고 하던 말이 의미심장하게 떠올랐기때문이었다.

혹시 우리 은정이가 진호를 사랑하는게 아닐까? 정말이라면 그야 좋은 일이지. 체대군인이겠단, 축산반에도 자진하여 들어왔겠다, 축산을 본때있게 해볼 욕망이 온몸에 가득찬 청년같은데 이런 청년이라면야 백번 사위삼을만 하지. 다만 기사장이 어떨는지… 하던 윤섭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은정이가 방목하는 50여마리의 염소가 들어있는 우리앞에 이르렀다. 지금껏 말던 싱그러운 숲냄새대신 누릿한 냄새가 풍겨왔다.

윤섭은 서둘러 어미염소우리에서 한놈을 끌어내어 젖짜기틀에 결박했다. 이어 불길한 젖통을 물결레로 깨끗이 씻은 다음 젖을 짜기 시작했다.

그가 터질것처럼 팽팽 부푼 젖통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내리훑을 때마다 희뿌연 젖이 바깥쪽에 주룩주룩 쏟아져내렸다. 마추신 새끼염소우리에서는 머리에 뽕뽕뽕뽕한 뿔이 쌍으로 돋은 새끼염소들이 이모양을 말뚱말뚱 쳐다보며 연방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고있었다. 갓 젖을 뺐으니 그럴만도 했다. 또 한놈 갈아댄 윤섭은 먼저번 놈보다 더 힘차게 젖을 짜다. 가만 보니 이놈은 첫 새끼를 낳은 염소여서 젖살이 풀어지게 손아귀에 힘을 더 주어야 했다.

이때에야 나타난 은정은 《어마, 아버지 오셨네.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깜빡…》하며 얼굴을 활짝 붉혔다. 윤섭은 모르는체 하고 계속 젖을 짜며 염소방목과 관련하여 이것저것 묻고 필요한 조언도 주었다.

《…우리바닥을 늘 건조하게 해주고 매일 자기량의 소금을 먹이는것과 함께 염소들이 폐염, 진드기병, 촌백충병, 음병, 발쪽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수의방역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구 박새풀과 같은 독풀을 먹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야 한다. 그놈의 독풀들을 보면 짓궂게서 땅속에 묻어버리는게 상책이다. 또한 맹수와 벼랑, 다래닝쿨 같은것도 주의해야 한다. 일전에 염소새끼 한마리가 옹노처럼 생긴 다래닝쿨에 목이 걸려 죽을뻔한 일이 있었던단다.…》

어지간히 시간이 흘러 젖을 다 짜고났을 때 귀익은 프락포르발동소리가 범산골안에 울려퍼졌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작은 비닐통과 바깥쪽들을 손에 든 방목공들이 외곽외곽 수풀을 헤치고 우야 프락포르를 마중내려갔다. 프락포르의 얼마후 범산에서 쏟아진 흰 염소젖을 커다란 비닐통들에 가득 담아 싣고 골짜기를 빠져나갔다.

《관리위원장동지, 오늘 아침은 우리와 함께 식사합시다. 맛있는 도라지채와 산나물국도 있습니다.》

축산2작업반 취사원으로 올라온 애어린 처녀가 말했다. 은정과와 함께 염소방목을 하는 처녀들도 저저마다 윤섭을 야외식탁으로 이끌었다.

윤섭은 기꺼이 응했다. 꽃같은 처녀들과 함께 공



기 좋고 물 좋은 산판에서 아침식사를 하니 별로 맛있고 달았다. 식사가 끝나자 은정은 작업복을 가쁜히 줄라매고 회초리를 손에 들었다.

염소우리문들을 활짝 열어놓자 억센 쌍뿔을 머리에 인 염소무리가 턱밀의 방울과 수염을 흔들며 우르르 쏟아나왔다. 새끼들은 어떻게 제 어미를 아는 지 그 사타구니에 대가리를 들이밀고 훌쩍해진 젖꼭지를 빨려 하다가 어미들이 뒤발질을 하면서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 화풀이를 하듯 연방 매매거리며 제 먹이를 찾아 호도독호도독 뛰어간다. 그러다가도 한낮이 되면 어떤 틈을 타서라도 어미젖을 조금씩 훔쳐먹는다.

이런 과정에 완전히 젖을 떼고 살이 포동포동 오르는 것이다.

한발 기장의 싸리회초리를 휘휘 저으며 갓 떠오른 해빛에 이슬젖은 풀잎들이 눈부시게 번들거리는 산판으로 염소떼를 몰아가는 은정이의 뒤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야 윤섭은 그 자리를 떴다.

범산의 여기저기를 훑으며 방목공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가능한껏 풀어주었다.

오전내껏 범산에 머무른 그는 오후가 되어서야 산을 내리다가 웬일인지 기슭에 멈춰섰다.

뒤돌아 산판을 올려다보던 그는 입을 하 벌렸다.

푸르디 푸른 수풀속에 널려있는 염소떼가 마치도 목화송이같은 흰구름이 소리없이 피어흐르는 것처럼 안겨왔던 것이다.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같은 그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의 모습도 갈데없는 한쪽의 명화였다. 기분이 붕 뜬 윤섭은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산 넘어 들 넘어 구름너머...》하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농산반으로 향했다.

저녁 늦도록 4개의 농산반을 다 돌면서 당면한 영농작업을 지휘했다. 어쨌든 그는 한개 농장을 책임진 관리위원장이었던 것이다.

### 3

밤꽃이 피는 계절이라 명포리의 산들은 푸르다 못해 검푸르게 질어가고있었다. 그 어디를 둘러보나 푸른 산, 푸른빛이요 아득한 수목의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져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장쾌한 바다가 헤아릴수 없는 잔물결을 일으키며 쇠파 파도쳐 일렁인다.

윤섭은 요즘 며칠째 범산이동방목지에서 침식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것은 먹이가 풍부한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한그람의 젖이라도 더 생산하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래서 은정리와 함께 품놓아 방목을 하면서 염소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해보다가 저녁이면 젖통이 벌써 아침처럼 팽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종일 영양가 높은 좋은 먹이를 많이 먹은 결과였다. 뭔가 뇌리에 번개치는 것이 있어 저녁에 젖을

짜주고 밤에 먹이를 충분히 주었더니 아침에도 적지 않은 양의 젖이 나왔다.

윤섭은 즉시 이 방법을 모든 방목공들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때부터 모두가 더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오전 해가 한발 떠오른 때에 기사장 신철준이 헐떡헐떡 숨을 몰아쉬며 범산에 나타났다.

《자, 이젠 여기 범산에서만 솟아나는 맛 좋은 샘물이요.》

윤섭은 우선 목부터 추기라고 시원한 샘물을 한사발 떠서 내밀었다. 철준은 정말 목이 마른지 그물 한사발을 꿀꺽꿀꺽 다 들이마셨다.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었던 땀방울이 자취를 감추자 그는 비로소 찾아온 사연을 넋지시 터놓았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농산반들에서 김매기실적이 떨어져 그러니 축산반로력을 좀 돌리자는 거요.》

순간 윤섭은 저도 모르게 온몸의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뭐요? 그건 절대로 안되오.》

두부모 자르듯이 말한 그는 성급히 이었다.

《아, 지금 여기서도 젖 두번짜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로 손이 팔려 야단인데 언제 농산반일까지 도와줄 겨를이 있는가 말이요. 방목공들의 사기를 떨구고 활활 타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일 때문이라면 두번다시 여기로 찾아오지 마오.》

철준은 시커먼 눈섭을 꿈틀하면서 또 한번 사정했다. 그러나 윤섭은 꺾끗한 한본새였다.

뚝박의 모욕 비슷한 행대를 받은 철준은 성이 독같이 나서 획 돌아섰다. 그 기다란 몸으로 길 아닌 수풀속을 와락와락 헤치며 향방없이 걸어갔다. 그러다가 아들과 마주친 모양 통명스러운 말소리가 도간도간 울려왔다.

《오늘 저녁엔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내려오너라. 네 이모가 읍에서 처녀를 데리고와 선을 보이겠다고 했다.》

《아버진 또 그 소립니까? 나한텐 이미 대상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거... 은정이 말이나. 흥, 어제까지는 좀 생각이 있었다만 오늘 보니 안되겠다. 싹 걷어치워라. 그러니 허튼 생각일랑 말고 저녁에 꼭 집에 내려오너라.》

《싫습시다, 아버지.》

그러더니 잠잠해지고만다.

윤섭은 하늘을 향해 혼자서 히히 웃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산을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곧 걸어서 범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요전번 돌많은 골짜기로 자전거를 밀며 올라오다가 주브가 더졌는데 아직 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까짓거, 자전거를 못 타면 뭐라나. 걸어서 가지 뭐. 어려서부터 산길을 많이 탄 그는 지금도 이삼십리길 같은 것은 제 집 트랙 건듯 한다.

그가 범산밑에 거의 내려왔을 때 자전거를 탄 신

철준이 큰길을 따라 냅다 달려가고있었다.

큰길에 올라선 윤섭은 더 빨리 씌영씌영 걸었다.

어느덧 큰길옆에 자리잡고있는 젓가공실이 가까와졌다. 참새 방아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아니 들려볼수가 없었다. 그를 맞이한 책임자녀인은 첫마디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어제부터 중학교 초급반, 고급반학생들에게도 젓산유를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렇소? 거 들던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로군. 그 기쁜 소식을 왜 인제야 대주오?》

《아까 기사장동지가 범산으로 올라가던데 말 안했어요? 헌데 중학교에도 공급하고 남아 오늘부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랍쇼. 반가운 소식이 또 나오는군. 어떻게 처리하다니, 국가계획도 다 했으니 남은거야 농장원들에게 공급하면 되잖소. 난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요. 하하하...》

윤섭은 너무도 가슴이 후련하여 한바탕 큰소리로 웃어제졌다. 또 한번 고생한 보람이 크다는 생각에 속이 뭉클해나면서 불쑥 지난날이 돌이켜졌다.

축산전문농장 관리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전망계획도의 과업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밤잠도 잇다 싶이하며 뛰고 또 뛰던 일, 축산반을 3개나 더 늘구고 인원보충과 집집승마리수 확보를 위해 별의별 고생을 다하던 일, 염소분산사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리저리 안타깝게 고심하던 일...

여기서도 제일 어렵고 피로운것은 축산이 힘들고 품이 많이 든다는데로부터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오히려 뒤통을 놓거나 뒤다리를 잡아당기는 기사장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과의 사상적인 투쟁이었다. 어쨌든 그 험치 않은 나날에 이제는 비교적 토대가 잡혀 계획도 수행하고 고향사람들이 여러모로 축산의 덕을 입고있었다.

명절때마다 고기와 알이 세대들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학생들은 한여름철 매일 젓산유를 먹고있으며 농장원세대들에 대한 집집승새끼공급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져 세대축산도 활기를 띠고있었다. 축산이 잘되니 질좋은 유기질 거름생산도 부쩍 늘어나 척박한 땅들이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옥토로 전변되었다. 결과 이전에 비할수 없는 많은 고기와 알, 젓이 생산되고 농산반의 정보당수확도 올라감으로써 농호당 평균수입과 생활수준도 현저히 높아졌다.

하지만 윤섭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중학교학생들과 농장원들에게도 젓산유를 먹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어제 오늘 드디어 풀리게 되었으니 그는 이 마당에서 한바탕 명실명실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

이때 젓산유를 싣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차례로 돌고난 프락포르가 정다운 발동소리를 울리며 젓가공실마당에 들어섰다. 운전칸에서는 뜻밖에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은 리당비서가 내렸다.

《아, 마침 관리위원장동무도 와있구만. 남은 젓산유들을 농장원들에게 공급하는것이 어떻소?》

《예, 저두 방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젓산유를 싣고 농산반들을 동원시키지 않고서는 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없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농장원들에게 정치사업을 들이대보잔 말이요.》

비로소 리당비서의 말뜻을 알아차린 윤섭은 두팔을 걷어올리고 젓산유를 싣는 일에 달라붙었다.

얼마후 그들은 나란히 프락포르에 올라 농산반으로 향했다. 먼저 당면한 김매기실적이 제일 뒤떨어진 3작업반으로 프락포르를 몰아갔다.

피약벌아래서 발길을 매던 농장원들이 웬일인가 하여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프락포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느 한 발머리에 서있는 커다란 오리나무밑에 프락포르를 멈춰세운 윤섭은 반장을 찾아 농장원들을 전부 모이게 했다.

리당비서를 쳐다보니 그는 이제부터 모든것을 관리위원장이 맡으라는듯 한쪽눈을 껌쩍해보였다.

윤섭은 우선 모인 농장원들에게 젓산유를 팔고루 공급하도록 했다. 농장원들은 뜻밖의 일에 눈들이 켜해졌다가 새큼달달한 젓산유를 몇고뿌씩 꿀꺽꿀꺽 받아마셨다.

《야, 거참 맛 좋다!》

《땀이 쑥 기여들고 새힘이 솟는구만!》

《헌데 이거 아이들 먹을거 우리가 먹는거 아니요?》

윤섭이 때맞추어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농장원들에게도 매일 젓산유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반장이 펄쩍 놀란 소리로 물었다.

다른 농장원들도 믿어지지 않는듯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죄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축산반의 처너총각들과 분산사육세대의 세대주들이 집을 멀리 떠나 높고 험한 범산에서 이동방목을 하며 한그람이라도 더 많은 젓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입니다. 그런데 농산반사람들은 이게 뭐니까? 집에서 편히 자고 먹으며 평지에서 일하면서도 김매기실적이 떨어지고있으니 이게 어디 될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축산반에 도와달라고 손까지 내밀고있으니 이런 럽치없는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축산반의 덕을 입으려 하는것은 정말 럽심없는 행동입니다. 그러구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농장은 철두철미 축산을 잘해야만 잘살수 있다는겁니다. 우리모두 이런 마음으로 농사일도 해나갑시다!...》

윤섭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고 흥분으로 하여 약간 떨리기까지 했다.

둘러선 농장원들의 머리가 점점 수그러들었다.

그속에서 누군가가 번쩍 머리를 들었다.  
반장이었다.

《관리위원장동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건달이었던 말입니다. 다시는 축산반에 손을 내밀지 않고 모든 농사일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해낼테니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다른 농장원들도 호응하며 기세충천히 포전으로 밀려갔다. 윤섭은 트랙토르와 함께 나머지 농산반들도 돌면서 이런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벌렸다.

그 효과는 대단히 컸다. 그날 김매기실적이 1.5배로 쟁쟁 뛰어들었던것이다.

저녁에 관리위원장방에서 열린 농장일군들의 모임뒤끝에 리당비서가 신철준에게 한마디 했다.

《기사장동무가 오늘 범산에 축산반로력을 달라고 찾아간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오. 관리위원장동무처럼 그런 방법으로 농산반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면 왜 당면한 김매기가 떨어지겠소. 무슨 일에서나 그 성과여부는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시키는가에 크게 달려있다는걸 항상 명심해야겠소. 그러구 한마디 더 충고하고싶은것은 기사장동무도 축산에 웅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다는거요.

동무도 축산전문농장을 책임진 일군이기에 하는 말이요.》

신철준은 정통을 찢리운듯 얼굴을 붉히면서 《예.》하고 나직이 대꾸했다. 그리고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바빠 관리위원장방에서 나가버렸다.

#### 4

젖산유를 실은 소형트랙토르는 날을 따라 더욱 힘차게 달렸다. 이제는 명포리사람들 누구나 이 트랙토르를 가리켜 《젖차》라고 정답게 부른다.

젖산유를 실은 이 젖차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발머리로 달리는 모습은 참으로 이 명포리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이 젖차의 만가동을 위해 범산의 숨은 방목공들은 여전히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성실한 구슬땀을 묵묵히 산판에 바쳐가고있었다. 그들을 찾아 윤섭은 오늘도 범산으로 떠났다. 단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못살것만 같은 미더운 방목공들이었다.

더구나 이제는 장마철이어서 수의방역을 기본으로 하여 장마철피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했다.

벌써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량의 비가 내리고 대기는 습기를 잔뜩 머금고 눅눅했다.

경험은 장마철에 집집승들한테 불리한 여러가지 병이 생기며 그로 인한 폐사률이 높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때문에 윤섭은 범산에서 방목하는 집집승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여기에 수의사를 주둔시킬 목적밑에 길을 떠난것이였다.

그는 오전내껏 산판들을 돌면서 염소, 양들의 건

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염소, 양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그렇다고 당장 수의사를 주둔시킬 필요는 없는듯 했다. 웬간한 병치료 같은것은 자체로 하는 방목공들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결심을 못 내린채 팔네 염소 우리초막에 내려오니 진호가 그안에서 똑딱거리며 무엇인가 하고있었다. 가만 보니 이미 깔았던 젖은 나무발판대신 바짝 마른 나무로 만든 새 발판을 한 뿔정도 띄워 설치하고있었다. 염소들한테 보다 건조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있는셈이였다.

《하, 이거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수풀 하나만.》

윤섭의 칭찬에 진호는 별로 웅색해하면서 슬며시 피하려고 했다. 어느새 나타난 은정이가 두팔을 벌리고 총각의 앞을 막아나섰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저의 아버지와 함께 하자요.》

《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일을 해줬으면 웅당 보상을 받아야지.》

윤섭이도 진호의 등을 떠밀어 은정이가 따로 차려놓은 야외식탁으로 갔다.

은정이가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따끈따끈한 우유고뿌를 내밀었다.

《자, 이젠 내가 끓인건데 맛보세요. 참나무장작으로 까풀이 지도록 보글보글 끓인 염소젖이예요. 사랑가루까지 착 쳤으니 그 맛이 팬찮을거예요.》

윤섭이 먼저 맛보니 허까지 따라넘어갈 정도로 그 맛이 정말 기막혔다. 다들 그 우유를 서너고뿌씩 마시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인차 술을 놓고말았다.

《허, 고기와 알, 젖을 많이 먹으면 식량을 절약한다더니 결국은 이 범산에서 술한 난알이 쏟아지는셈이군.》

《웁아요. 아버지, 어제 리당비서동지가 가져다준 〈로동신문〉을 독보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자들에게 가슴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신 이야기가 실렸더군요. 그 사랑에는 여기서도 하루빨리 난알처럼 귀중한 고기와 알, 젖이 폭포처럼 쏟아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기쁘지고 윤택해지길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전 생각해요.》

《관리위원장동지, 제 한가지 제기하랍니까?》

그때까지 별로 말이 없던 진호가 벌떡 일어나 큰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두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에 뭔가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모두가 사양관리를 더 잘하여 가을에 가서 살찌고 튼튼한 종자염소들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은 제기요. 얼마전 리당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소.》

비로소 윤섭은 여기 범산에 꼭 수의사를 고정배치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장에 종자염소들을 보내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

마리도 폐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뇌리를 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음날 갑자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어느 한 군축산전문농장에서 열리는 강습에 참가할데 대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신철준에게 꼭진히 부탁했다.

《범산에 수의사를 꼭 고정배치해야겠소. 매일 올라가있기 곤란하면 힘들어도 통근하도록 해주오.》

《알겠소.》

철준은 범상히 대꾸했다.

윤섭은 다음날 강습지에 도착하여 보여주기사업과 강습에 참가하였다. 이번에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축산전문농장은 펍 오래전에 생겼는데 명포농장에 비해 토대가 더 그존하고 축산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집집승사양관리와 수의방역, 축산물가공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세계축산업발전의 현주위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나가는데서 전국의 모범이 되고있었다. 윤섭은 이제 돌아가면 명포리에서도 축산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겠다고 마음다졌다. 며칠간에 걸치는 강습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체험한 윤섭은 농장을 떠나기 전에 명포리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그새 별다른 일이 없었나해서였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리당비서가 뜻밖의 상서롭지 못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범산의 이동방목지에 갑자기 음병이 퍼져 현재 네마리의 자넨종염소가 죽고 그 종의 염소 수십마리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아니, 수의사는 뭘하고있다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수의사도 현재 출장을 떠나있소.》

《예? 그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윤섭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렸다.

《농장에서 쓸 가솔과종용납내씨앗들을 구하러 기사장이 도에 있는 채종농장에 떠나보냈다더군요, 아무리 둘러봐야 보낼만 한 사람이 없다면, 그래 내 지금 기사장동무를 호되게 비판하고있는중이요. 축산에 대한 관점이 글러먹었다고 말이요.》

윤섭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송수화기를 든채 한동안 뉘없이 서있었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나랑 기사장동무랑 울리뛰고내리뛰고하면서 이러저러한 대책을 세워보느라 하고있지만 도무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번져지고있소. 농산학을 전공한 기사장은 물론 내가 무슨 맥을 추겠소.》

《리당비서동지, 제 곧 돌아가겠습니다.》

《수의사한테도 연락했으니 인차 올거요. 오래간만에 평양에 갔는데 하루이를 구경이랑 하면서 쉬고 떠나오.》

《아닙니다. 그 귀중한 자넨종염소들이 죽어가는

데 제가 어떻게 맘편히 설수 있겠습니까.》

윤섭은 그길로 약을 구하기 위해 시내의 곳곳으로 뛰어다녔다. 그새 축산학을 짹짹 공부한 보람이 있어 그는 음병에 제일 효과가 크다는 약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어느 한 기관에 마침 그 약이 있다고 하여 윤섭은 안주머니에 따로 건사했던 돈을 서슴없이 꺼내놓았다. 집을 떠날 때 안해가 딸의 레장감을 잊지 말고 사오라고 넣어준 돈이었다.

(은정이 예민 좀 나무랄수 있어도 은정이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지. ...)

윤섭은 약꾸레미를 푹푹 싸서 가방에 넣고 한결 마음가벼이 급행렬차에 올라앉았다.

불현듯 자넨종염소들이 눈앞에 얼른거리며 그를 10년전의 추억으로 이끌어갔다.

...이제는 명포땅에 갖가지 집짐승들이 퍼그나 늘 어났지만 윤섭은 만족할수 없었다. 그는 모든 재래종을 우량종으로 개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무슨 일에서나 종자가 첫째라고 축산에서도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적극 길러야 그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였다. 이것을 절감한 윤섭은 어디에 어떤 우량품종의 집짐승이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 무조건 구해오곤 하였다.

하루는 이웃도의 어떤 농장에서 자넨종이라고 부르는 우량품종의 염소들을 기르고있다는 정보가 윤섭의 귀에 날아들었다. 윤섭은 그 소리를 듣기 바쁘게 신철준을 만나 몇마리 구해오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우량종염소를 몇마리 구해온다고 갑자기 생산이 올라가겠소?》

《그래두 농장의 앞날을 생각해서 새끼를 퍼쳐야지요.》

《난 그런데 신경쓸 사이가 없을것 같네. 지금 농산반의 로력이 팔려 김매기가 축 처졌는데 그것부터 대책해야 하지 않을까.》

윤섭은 그만 속에서 불이 확 이는것을 느꼈다.

관리위원장이 되자부터 자기를 시들하게 대해오며 여전히 축산일에 애써 몸을 적시지 않는 기사장을 언제부터 고깝게 생각해오던터이라 저절로 어성이 높아졌다.

《축산일에 손발이 시리면 그만두오. 내가 갔다 올테니.》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딸 은정과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길을 떠났다. 은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의 기준축산반인 2작업반에서 돼지사양공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는 도소제지의 상업학교에 갈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뿌리치고 자진하여 고향땅의 축산작업반에 뿌리내렸던 것이다.

그의 꿈과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축산으로 고향땅을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꿈과 목표를 안고 처음부터 자기가 맡은 일에서 남다른 열성을 내고있었다.



이번에 윤섭은 다른 처녀를 데리고 떠나려 했으나 은정이가 너무 가겠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시야도 넓혀줄겸 동행자로 삼은 것이었다.

자동차는 오전시간을 부지런히 달려 오후에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차를 멈춰세운 윤섭은 낙근무성원에게 용무를 말하면서 관리위원장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그는 관리위원장방에서 언뜻거리는 녀성의 모습을 띄어보았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갔다 나온 근무성원은 관리위원장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 아닌가. 며칠전에 출장을 떠났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리위원장방을 다시 슬쩍 휘둘러살펴더니 헛참 어느새 꿈무늬를 뺀지 텅 비어있었다. 윤섭은 근무성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우량종염소를 주지 못하겠으니 어서 돌아가라는 무언의 배척이나 다름없었다. 순간 윤섭은 심한 모욕감으로 하여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존심갈아서서 꼭 견어내까리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종자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에 부각부각 피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지리 눌렀다. 그는 운전사에게 일렀다.

《차를 여기 관리위원장집앞에 가져다세우고 기다리오.》

그는 은정이를 데리고 축산반을 찾아갔다.

마침 방목을 마친 자넨종염소매가 맑은 시내가에 놓여진 다리를 건너오고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한눈한눈이 다 실하고 젖통 역시 탐스럽게 크다는 것이 알렸다. 이런 우량종염소가 한 삼백여마리는 실히 될것 같았다. 저절로 군침이 돌고 눈뿌리가 뻗혀져나가는듯싶어 멍하니 바라보던 부녀는 다시 이곳 관리위원장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밖에 자동차가 뿌리박힌듯 서있었다.

윤섭은 이곳 녀성관리위원장을 만날 때까지 열흘이고 한달이고 기다릴 심산으로 대문밖에 떡 버티고섰다. 기다리던 그 녀성관리위원장은 밤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허허, 난 천리만리밖으로 영영 달아난줄 알았는데 오시긴 오시누만요. 하긴 성화먹이는 이들이 우리뿐이 아닐겁니다. 그래두 어찌했습니까. 좀 도와주시우. 우리야 축산전문농장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성미가 불같은 윤섭이었지만 반죽종계 늘어지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은정이가 열른 아버지의 귀에 대고 《꼭 성공해야 돼요.》 하고는 주먹까지 꼭 쥐었다놓는다.

윤섭은 태연하게 방안에까지 들어가 틀고앉으며 직광 들이냈다.

《한 열댓마리만 달란 말입니다. 몇해 지나서 꼭 보상하겠습니다. 그것두 몇배루 말ियो.》

녀성관리위원장은 듣다못해 허거르게 웃었다.

《비위가 반철농량이라더니 여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자넨종염소의 첫 종자를 구하고 한마

리, 두마리 불구고있는지 알기나 하고 그런 혈한 소릴 합니까?》

《그러게 몇배루 보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본위주의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중에 녹는 건 나라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두는 꼭 감고 도와주는게 애국이라는건가요?》

《암, 그렇지 않구요. 그런 애국의 마음을 안고 딱 한번만 도와주시우.》

윤섭은 언제 자기의 입이 이렇게 다사스러워졌는지 놀랄 지경이었다.

그가 쉽게 물러갈 차비가 아니라란걸 직감한 모양 녀성관리위원장은 한동안 꼼짝 않고있다가 씨원스럽게 승낙을 했다.

《헌데 보상은 필요없어요. 앞으로 축산을 잘하여 전국적으로 1등 농장이 되면 그것이 곧 빛을 갚는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귀잡고 절을 하리다.》

큰소리로 웨치고난 윤섭은 방바닥에 너푼 엎드렸다.

《아니?...》

돌발적인 윤섭의 그 행동앞에 녀성관리위원장은 아연해져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날 밤으로 자넨종염소들을 차에 싣고 귀로에 올랐다....

이렇게 구해다가 해마다 불구어 이제는 몇백마리를 해아리는 자넨종염소였다. 헌데 그 목쓸놈의 음병이 퍼져 벌써 네마리가 폐사되었다니 윤섭은 너무도 안타까와 영영 울고싶어졌다. 최속으로 달리는 급행열차도 더디게만 느껴져 공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안을 왔다갔다했다.

지루한 열차달리기끝에 그가 명포리로 갈라지는 역에 내린 때는 밤 9시경이었다.

사위는 어느새 캄캄해지고 인적도 뜸해진 상태였다. 여기서 명포리까지는 80여리쯤 되는데 그곳으로 가는 빠스는 래일 아침에야 있었다.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생각한 윤섭은 가방을 둘러메고 걷기 시작했다. 한 시오리가량 갔을 때 비방울이 투닥투닥 떨어졌다. 요새는 구름장마다 비가 끼여있어 찍하면 쏟아지곤 했다. 비웃이 있었지만 윤섭은 그것으로 가방을 꼭 감싸쥐고 채우쳐 걸었다. 한참 걷다가는 픽픽 쓰러지는 염소들이 눈앞에 얼른거려 진창을 텅기며 냅다 달리곤 했다.

이렇게 몇시간을 걷고 달리노라니 점차 기온이 진해졌다. 명포리에 들어섰을 때에는 다리가 중풍을 만난것처럼 제 맘대로 놀면서 자꾸만 비틀거려났다.

비에 쫄딱 젖은 몸이 덜덜 떨려나면서 안해가 기다리고있을 따듯한 아랫목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하지만 윤섭은 입술을 꼭 깨문채 소재지를 지나쳐 또다시 달음질을 놓았다. 그러다가 쓰러지기



를 그 몇번...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법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먼동이 희미하게 떠오르고있었다.

윤섭은 그곳에서 밤을 밝히고있는 리당비서와 기사장에게 약을 넘겨주고나서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신철준이 와락 자기를 부둥켜안고 툭툭툭툭 떨구는 자책의 눈물을 윤섭은 의식하지 못했다.

×

석달후 어느 청청한 가을날에 명포축산전문농장에서는 선군시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세포지구에 수십마리의 종자염소를 보내주었다. 그날 온 농장의 축복속에 신진호와 김은정 사이의 결혼식이 뜻깊게 진행되었다.

한잔 마신김에 신철준이 김윤섭에게 진속을 더 놓았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고보니 대학시절이 생각나누만. 졸업하면 벌방으로 내뺄 궁리를 하고있는 자네를 욕질하며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신칙하던 일이 말일세. 그래서 우린 다같이 이 명포땅에 발을 붙였지.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하고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일세. 나야말루 고향땅에 발은 붙였다고 하지만 심장은 바치지 않고 쉽게 살아가려고 한 알짜 건달군이였네. 심장을 바치지 않는 한 백년천년을 이 땅에서 산다고 해도 고향은 결코 변영하지 않는다는걸 내 오늘에야 똑똑히 깨달았네.》

《허허. 사돈님, 지나간 일 애긴 그만합시다. 그저 저 애들을 힘껏 도와서 축산을 더 잘해볼 이야기나 합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윤섭은 환히 웃으며 신철준의 두손을 힘있게 잡아흔들었다.

## 대 학생 각에서

김 무 릍

새벽안개같은 창가림너머  
불어오는 백두의 바람에  
저도 몰래 가슴이 설레어  
아, 잠들수 없는 대학생각의 밤이여!

혁명전적지답사길에도  
탐구의 길 쉬임없으라고  
고요한 숲속에 자리잡은 대학생각은  
아늑한 잠자리로 불러주건만

숲속에 울리는 산새소리도 물소리도  
투사들이 부르던 노래소리로 들려와  
가없는 밀림의 설레임소리도  
투사들이 웨치던 격전의 웨침소리로 들려와

행군길의 설참에도 펼쳐보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야영지의 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부르던 《사항가》

대학시절이면 누구나 견게 되는 답사행군  
여기선 한생을 지니고 살 혁명의 진리를  
강의로만 다 배우지 않는다  
전적지의 그 모든것 신념의 교과서이거니

아, 이밤 너의 처마밑에서 나는 생각한다  
대학교정의 처마와 너의 처마는 멀리 있어도  
내 한생 빛내며 살 하나의 높은 처마처럼!

## 상 식

### 축구경기의 11명 선수규칙

축구는 현재 11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와 진행하고있는데 이 규칙이 나온지는 오래전부터였다.

현대축구의 발상지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만 하여도 통일적인 경기규칙이 없이 15~20명정도의 인원으로서 경기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마다 규칙이 달랐기때문에 학교대항전은 드물게 진행되었으며 대학생들도 고등학교 동창생들과만 축구를 할수 있었다. 그러던것이 윈체스터, 체터하우스, 이튼 등 사립학교들의 기숙사대항전이 벌어지면서 통일적인 경기규칙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모두 기숙사를 운영하고있었는데 매 호실에는 학생 10명과 호실장 겸 사감역할을 하는 상급생 1명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학교들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호실단위로 축구경기를 진행하였는데 호실장 겸 사감역할을 하는 상급생은 문지기를 맡곤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처음으로 축구경기규칙이 규정되게 되었으며 1846년부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에서 이 규칙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한다. 축구경기를 11명의 선수들로 하기로 결정한것도 여러 사립학교들의 축구팀 주장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축구경기참가선수인원을 11명으로 정한 규칙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것은 19세기말이다.

축구가 올림픽경기종목으로 처음 받아들여진 1908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와 1930년 우루과이에서있는 제1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11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축구경기 11명 선수규칙이 최종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 휴식날의 이야기

박 혜 란

가정을 떠맡은 주부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식구들을 위한 헌신의 날인 동시에 더없이 기다려지는 휴식날이기도 하다. 더우기 직장엔 출근하는 여성들인 경우 휴식날의 계획은 정말이지 《방대》하다. 아침에는 집안팎을 정돈하고 점심에는 식구들을 위하여 일요일의 특식을 푸짐히 차리고 또 오후에는 밀렸던 빨래를 하고... 그러면 어느덧 저녁시간이 된다.

온 식구가 텔레비전앞에 마주앉은 저녁에도 주부들은 손에 일감을 잡는다. 여성들의 일요일은 오랜 세월 이렇게 기다림으로 찾아들고 헌신으로 흘러왔다.

이해의 마감을 앞에 둔 어느 한 일요일도 이렇게 찾아들었다. 새해를 앞에 둔 휴식날이라 아침부터 그릇들을 닦아내고 새맛이 나게 방안의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앉아볼새도 없이 뱅뱅 돌아치는 속에 어느덧 점심참이 되었다. 오래간만에 함께 모인 식구들을 위하여 나는 또다시 부엌에서 별로 신통치 못한 솜씨로 《성찬》을 차리기에 여념이 없다. 방안으로 풍겨들어오는 고소한 기름냄새에 처음부터 코를 들썩이던 두 아들은 음식상이 차레지자 주저없이 풍성한 음식상을 《점거》해버린다. 경쟁이나 하듯 맛나는 음식을 입에 집어넣느라 어머니의 수고에 대해서는 깜박 잊은듯싶다. 그래도 나의 마음은 기쁘기만 하다. 먹지 않고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순간에는 피부로 절감된다.

방안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가 흥취를 돋우고 창밖에서는 해빛도 따사롭다.

12월치고도 정말 따뜻한 날씨가 찾아든듯싶다.

맑은 날씨가 한창나이의 청년들의 심신을 든장질하는지 아들들은 수저를 놓자바람으로 영치를 들썩인다. 이 좋은 겨울날씨에 집에 앉아있기보다 밖에서 운동하는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면서 배구공을 가지고 온 식구가 밖으로 나가잔다. 그 배구공으로 말하면 지난 10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단연 1등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큰아들이 기념으로 상점에서 사온 공이다.

온 나라가 체육열풍으로 들끓은 올해에 우리 가정에서도 배구열풍이 일어 일요일이면 두 아들은 살림집지구마다에 새로 꾸러진 배구장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기어이 어머니를 개명

시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성화를 먹이는것이 아닌가.

《너희들이나 나가놀렴.》

그러나 애들은 막무가내다.

《어머니, 우리가 배워주겠으니 오늘은 배구공을 잡아보세요.》

《애두 참, 내 나이가 몇인데 공을 잡는단 말이냐.》

하지만 나이많은 이 어머니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약속한듯 아들들은 몹시도 성화를 먹인다.

《어머니, 일요일날 사람들의 체육열풍을 체험하는것도 작가의 의무란 말이예요.》

갑작꼴을 잘 쓰는 작은아들이 나의 직업까지 꺼들이며 조르는 바람에 세사람의 합의는 결국 2:1로 결정되고말았다.

드디어 집을 나서 걸음을 재촉하는 자식들과 함께 일요일의 거리를 걷는 나의 마음은 풍선마냥 부풀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일요일에 온 가족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해본적이 몇번이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며 새록새록 후회감이 든다. 이제 저 애들이 장가를 들면 언제 이 어머니와 산보를 해보랴 하는 생각에 나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애들의 걸음을 따라잡는다.

오히려 내편에서 걸음을 재촉하고는 소리없는 웃음을 지었다.

우리 세사람이 평양대극장의 덩지 큰 건물을 지나 로라스케트장이 있는 넓은 공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만 놀라운 광경에 부딪쳐 우뚝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각양각색의 운동복을 입은 남녀로소가 더운 입김을 뿜어올리며 배구를 치고 바드민톤을 하느라 야단법석을 치고있는 것이 아닌가. 와- 와- 들려오는 함성소리와 까르르 터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도 모였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감탄을 연발하는 작은아들애의 목소리가 나의 귀전을 때린다.

《야! 배구공이 서툰개가 넘어요. 저것 봐요. 할아버지와 손자도 함께 배구를 치고있어요.》

정말 한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을 다루는가 하면 대학생들과 로동계급팀이 각각 팀을 구성하여 배구경기를 하고 땀이있는 운동복을 차려입은 몸매고운 처녀들이 한패도 아니고 일여덟패

나 모여 바드민톤을 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도 황홀하였다. 예술만이 황홀하다 하라, 이 광경  
이야말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할만큼 멋진 풍  
경이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온 나라에 뿔어번지는 체  
육열풍의 한 화폭이라는데요. 어머니 이런걸 못  
보고 어떻게 체육열풍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나  
요.》

어제 출판사의 편집원으로부터 이 주제의 글을  
써달라는 전화청탁을 받은 어머니를 비판하는 큰  
아들의 말에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래, 이런 훌륭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체육열풍  
에 대한 수필을 쓰려고 하다니.

두 아들은 어느새 이 어머니를 잊은듯 배구공을  
안고 사람들속으로 뛰어들어간다. 하나의 공을 놓  
고 두리에 모여 들썩이던 어느 팀인가 공을 안고  
달려오는 그 애들을 띄어보고 와— 환성을 지르며  
벌떼처럼 모여들더니 어느새 새 팀을 구성하고 경  
기를 시작한다.

체육바람이 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문  
득 올해의 뜻깊은 날과 달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만드시려는 원대한 구  
상을 펼치신 정월달부터 12월에 이르는 날과 달은  
참으로 체육강국으로서의 자랑차고 빛나는 열매를  
수확한 날과 달이 아니었던가.

나에게는 아침마다 《로동신문》이 도착하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적어넣는 일지가  
있다. 작가수첩이라고 할가. 여기에 1년 36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발전을 위해 수놓으  
신 자욱들을 꼭꼭 적어넣을 때면 우리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선군령도자욱앞에 저절로 눈굽을 적  
시곤 하였다.

올해 1월 우리 나라에 온 미국통구선수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경기까지 보아주신 우리 원수님의 깊은  
뜻을 나는 속으로 되새겨본다. 그것은 새해의 진군  
길에 나선 우리 인민의 걸음에 활력을 부여주시고  
세계앞에 조선의 체육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발전하  
는가를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기에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에서 체육  
발전을 중요한 몫으로 정해주시고 체육부문을 민족  
의 영예를 떨치는데서 가장 중요한 전선으로 내세  
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참으로 올해 이 땅을 뜨겁게 달군 체육열풍은 어  
떻게 시작되었던가.

강성국가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체육선수들의 긍지와 열의를 북돋아주시려고  
수차례에 걸쳐 전문체육단 선수들의 축구결승경

기도 보아주시고 뜻깊은 전승절 명절에도 남자배구경  
기를 보아주신 그이의 사랑과 은정속에 이해의 날  
과 달이 흘러왔다.

지난 5월에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텔레비존화면에서 뵈올 때 사람  
들은 전설같은 그이의 사랑에 대하여 격동속에 전  
해들으며 얼마나 감격해하였던가.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 전국소년축구경기  
대회에 참가한 평안남도팀과 함경남도팀 학생들과  
의 축구결승경기를 보아주시고 그들과도 사랑의 기  
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인민은 사랑의 화신을 심장  
속에 깊이깊이 우러모셨다.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늘 마음을 쓰시며 크  
나큰 사랑과 헌신을 바쳐오시어 온 나라에 대중체  
육의 세찬 열풍을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참말이지 지난 10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녀자축  
구선수들과 체육인들을 맞이할 때 수도의 거리들에  
파도치던 격동과 환희를 그이의 사랑과 령도를 떠  
나서 생각이나마 할수 있으랴.

꿈만 같다. 일요일이면 한주일간에 쌓인 피로를  
풀려고 유원지나 맥주집을 찾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저마다 바드민톤채를 잡고 배구공을 안고 곳곳에  
새로 생긴 배구장으로 달려오고 일터들에 꾸려진  
정구장으로 《출근》하는 이 랑만적인 광경이야말로  
이해에 꽃피난 새로운 풍경이 아닐가.

청년들과 아이들만이 아니다. 얼마전까지만 해  
도 아빠트의 현판밑에서 장기나 두며 여생을 즐기  
던 70나이 로인들도 우리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로  
동당시대의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를 부르며  
배구기술을 련마해가는 날과 달속에 인제는 제법  
아들대의 배구선수들과 한조에 망라되어 인민반의  
배구선수로 경기에 출전하니 저절로 세월이야 가  
보라지 하고 소리높이 웨칠만도 한것이다. 그뿐이  
랴, 소학교아이들은 또 그들대로 축구바람이 나서  
저저마다 축구소조에 들어가 공을 차겠다고 부모들  
한테 성화란다. 온 가정이 배구바람, 정구바람, 바  
드민톤바람이 나서 일요일을 기다리는 속에 인제는  
가정주부들도 집안사람들의 뒤시중을 들리고 휴식  
날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실컷 웃  
어보고 떠들어보고싶어 일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으  
니 세월이 변했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가?

문득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에게 사회주의문명국  
의 혜택을 안겨주시고 이 한해를 바쳐 이 일요일의  
랑만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시각  
기쁨에 웃고떠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휴식의  
하루를 즐기신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소원이 가

## 우리 사는 등대마을

김 명 성

갈매기가 바다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등대마을 사랑합니다  
세 가정 오בות이 마을 이루고  
끝없는 행복을 누려갑시다  
아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수님사랑 넘친 우리 등대마을은  
조국의 한복판의 마을입니다

세 아이 위해서 학교가 서고  
배움의 종소리 울려갑시다  
도시도 벌방도 좋고좋지만  
등대마을 정들어 예서 삽니다  
아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수님은정 넘친 우리 등대마을은  
조국땅 한복판의 마을입니다

배들을 맞아주고 바래여주는  
등대는 내 조국의 눈빛입니다  
여기서 아들딸 어엿이 키워  
등대마을 대를 이어 지킵시다  
아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수님믿음 넘친 우리 등대마을은  
조국땅 한복판의 마을입니다

## 탄전의 단풍철

리 명 학

탄전의 산발마다  
단풍이 물드니  
탄부의 마음도 불타라

오곡은 영글고  
백과는 무르익어  
산을 보라 들을 보라 바다를 보라  
만가지 농사 풍성한 이 계절

단풍은 붉게 타  
또 한해 겨울을 재촉하는데  
탄부의 심장 불타야  
조국땅 달아오르지 않으랴

아, 불타는 단풍  
천만잎새 모두모두  
탄부의 가슴에 내려앉아라  
더 많은 석탄을 마련할 들끓는 가슴에

슴속에 소중히 자리잡는다.

마음속 소원을 안고 멀리 대동강너머로 눈길을 가져가니 문수물놀이장이며 룡라인민유원지의 현대적인 체육설비들이 나의 눈굽을 더듬히며 한눈에 안겨든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오탄아동공원의 멋진 체육기구들에 매달려 장수힘을 키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정하게 안겨온다.

나의 발길은 어느새 배구장으로 향해진다. 나를 띄워본 두 아들이 어서 들어오라 나에게 손짓한다.

(그래, 너희들과 함께 이 어머니도 배구공을 날리자꾸나. 나의 희망을 실어, 나의 마음속 소원을 배구공에 실어 저 푸른 하늘에 새겨놓으련다.)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녀성이라고 이 랑만적인 풍경속에 몸과 마음을 적시지 않고 관망하기만 한다면 어찌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는 작가라 하랴.

누군가 이쪽으로 날려보낸 공이 나에게 날아온다. 나는 두손을 모아잡고 눈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받아 힘껏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어머니, 최고예요.》

큰아들이 힘을 주는 목소리에 저절로 힘이 백배로 솟구치며 나는 몸을 날려 또 한번 옆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아챘다. 그 바람에 내 몸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와하— 하는 흐드러진 웃음소리가 떨기떨기 웃음꽃을 피운다. 또다시 새로운 상념이 가지를 친다.

세월의 흐름을 자연은 나무에 새기고 사람은 추억에 새긴다.

그러면 이해의 추억은 무엇으로 새겨질가?

체육열풍으로 끓어번진 이 휴식날의 류다른 풍경이 아마도 나의 추억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것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랑만이 래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배가의 힘과 용기를 낳으며 래일의 번영을 펼쳐올것이다.

주체103(2014)년의 한해는 이해의 이 일요일풍경으로 세월의 갈피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시 초

## 축구열풍- 애국열기

박 철

###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얼마나 멋이 있는가  
김일성경기장 여기에 펼쳐진  
우리 선수들의 축구경기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  
이 나라의 한 공민으로

종잡편락과 번개같은 돌입  
그것도 신비롭고 화려하지만  
끝문을 뚫는 그 통쾌함  
어이 다른 체육경기에서야  
온몸으로 안아볼수 있으랴

끝을 이루면 내가 득점이나 한듯  
심장이 터치는 환호  
그 걱정 선수들과 함께 나누며  
일고잡는 흥분속에  
경기장을 질주하는 마음이어

온넛을 통채로 그러잡는 축구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시기  
나라의 존엄 공화국기로  
세상에 떨치는것이 체육이라면  
그 체육의 상징인 축구!

그래서였던가  
일요일 명절날 따로없이  
내 경기장을 찾는것은  
찾아와 12번째 선수가 되어  
이처럼 축구에 사랑을 바치는것은

바라보면 오늘도 저기 주석단에  
우리 원수님 계시는듯  
가슴속의 뜨거운 애와 정  
만면에 환한 미소로 담고  
축구발전의 길도 밝혀주시는듯

벽차다 레일이 일어선다  
원수님의 열렬한 축복을 안고  
거세찬 축구열풍속에  
날마다 키를 솟구는 우리 축구  
날마다 커가는 이 마음의 기쁨

이제 우리 선수들  
강국의 국력 축구로 파시하고  
국제경기에서 따올 영예의 금메달  
오, 그것은 조선사람  
내 가슴에도 빛날 금메달  
나는 인민은 축구를 사랑한다!

### 단발머리 날린다

왜 그리도 마음에 정겨운가  
얼굴도 아릅답고 담찬  
우리 처녀축구선수들이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날리는  
저 단발머리들이

키워온 딸의 단발이 떠올라?!  
키우는 손녀의 단발이 보여와?!  
딸처럼 손녀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처녀선수들의 머리채  
가뿐하고 고운 저 단발

알지 않느냐 사람들아  
어제날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저같이 검은 단발 힘있게 날리며  
기술과 투지 조선처녀의 기개로  
우승을 떨쳐온 선수들을

오늘도 생생한 그 얼굴들  
하늘에 공화국기 울리고  
우러러 드리던 거수경례  
아, 승리자의 딸들을 둔 감격에  
두볼 뜨거이 적신 우리 인민

그날의 감동 저들에게서 안아본다  
힘겨운 육체훈련 기술훈련...  
조국을 빛내리라 이겨내고  
저렇듯 미덥게 자라난 처녀선수들  
또다시 우승의 패거 안아오리

꿈을 이룬 날 세계패권을 쥔 그날  
인민의 사랑 우리 처녀선수들  
애국의 땀방울로 만들어낸 금메달  
조국의 가슴에 삼가 달아주리라  
저 정겨운 단발머리 깊이 속이고



## 꿀!

오로지 이 하나 꿀을 위해  
축구선수들은 뛰고뛰다  
혼신의 힘을 다해 팀이 하나돼  
전후반 90분 전기간을  
추가시간 마지막 1초까지

다리에 쥐가 일어도 일어선다  
목에서 겨볼내가 나도 달린다  
보라 머리에 봉대를 감은 저 선수  
축구경기는 한차례의 격전  
그 승과 패를 가르는 꿀

그물을 흔들어 가슴을 흔드는  
꿀! 그 환희를 터치려고  
눈비속에서도 선수들  
훈련의 땀 얼마나 많이 흘렸더니  
그 땀의 무게여라, 꿀은

여기 국내경기만이라  
국제경기에선 나라의 기상  
세계에 빛나 솟아오르기에  
축구는 선수들이 하지만  
꿀은 온 나라 인민의것!

오, 꿀! 그래서  
상대방 문을 향해 슛할 때  
그 한 선수만이 차지 않는다  
우승을 열망하는 선수들과 감독들  
그 마음 그 넓이 함께 찬다

사랑하는 조국 사회주의 내 나라  
금메달로 세상에 받들리라  
그 신념 그 의지의 폭발  
그 불같은 충정 그 애국심이 찬다  
아, 우리 축구선수들의 꿀!

##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경기장에 오셨습니다  
막내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사람들은 선망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저 팀의 10번 중앙공격수  
그를 키운 어머니라고

축구는 아들의 꿈이어서  
축구는 그자신이기도 했답니다  
잠도 많고 놀음도 세차던 학교시절  
아들이 축구소조에 빠질세라  
참말로 애도 많이 써왔답니다

그 모든것 가슴에 묻고 이겨낸것은  
학교의 작은 운동장너머  
오늘의 이 넓은 경기장에  
늘 마음이 가있었기때문입니다  
어서 조국을 떨치는 선수가 되라고

가슴타던 소원대로 아들이 자랐습니다  
상대방 문전에서 공만 잡으면  
곧바로 이어지는 통쾌한 득점  
터져오르는 관중의 환성 그것은  
어머니에게 안겨주는 꽃다발입니다

그 순간이면 마음 조이던 어머니  
얼굴에 밝게 짓는 웃음  
아들에게 바쳐 조국에 드리는  
그 순결한 사랑이 아님니까  
아들팀의 승리는 어머니승리입니다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머니시여  
이제 아들이 출전할 국제경기  
거기에 게양되고 게양될 공화국기  
그 기발은 아들팀 11명과 함께  
조국을 위해 당신이 바친  
그 한생이 어린 공화국기발입니다

## 박수와 인사

관람석에 뿔어번지던 열기가  
경기장앞 여기로 이어졌구나  
경기성파를 축하해주려고  
선수들이 탄 뺄스를 겹겹이 에워싼  
수십수백명 사람들의 물결

누군가가 흥분하여 소리친다

—문지기얼굴을 봅시다!  
그러자 열리는 뺄스문 나서는 문지기  
잘했다! 일시에 터지는 박수  
머리숙여 인사하는 그

또 누군가의 열띤 목소리  
—중앙공격수도 나오시오!

땀에 젖은 얼굴 그가 나서자  
멋있는 꼴이야! 우뢰같은 박수갈채  
머리숙여 인사하는 중앙공격수

어이 짹- 목이 메는가  
떠나려던 뺨스까지 멈춰세우고  
진정 다해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며  
그앞에서 눈가에 눈물을 담고  
인사를 드리는 선수들을 보며

무엇인가 이 감동적인 화폭은  
물어보면 사람들은 말하리라  
물어보면 선수들은 대답하리라  
오늘처럼 국제경기에서도 이기라고

오늘처럼 국제경기에서도 이기겠다고

툭툭- 심장이 터치는 말이여  
선수들은 언제나 안고 뛰리라  
인민의 기대 이 박수소리를  
언제나 인민은 잊지 않으리라  
선수들의 맹세 저 인사를

오늘의 박수와 인사 그것은  
온 세상에 애국가를 승엄히 울리고  
원수님의 품 조국에 돌아올 그날-  
아, 래일의 선수들의 인사, 인민의 환호  
그 말없는 굳은 약속이여라!

## 펼치라 번호를! 이름을!

수백명도 넘건만 이제 안다  
어느 팀에선 몇번 선수 누구가  
문전결속을 기발하게 하는지  
어느 팀에선 몇번 선수 누구가  
최종방어에 특기가 있는지

우리 원수님도 아신다  
국내국제경기에서 1등한 선수들  
대견하여 손도 파뚱이 잡아주시고  
어서들 사진을 찍자고  
정답게 불러주신 이름과 번호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고  
번호는 조국이 달아주었지만  
떼놓을수도 가를수도 없어라  
이름과 번호는 하나의 운명  
그 하나의 운명은 우승!

부모의 소원 조국의 기대 그대로  
팀엔 특기있는 선수로  
나라엔 훌륭한 명수로

경기마다 승리를 빛내면  
우리 원수님 못내 기뻐하시나니

숭고한 국사의 하나로  
낮에 때로는 밤에 우리 원수님  
경기를 보아주시는 그 뜻  
그 마음의 간곡함 가슴마다  
공화국기로 받아안은 축구선수들

오늘의 이 경기장 세계에 펼치고  
펼치라 번호와 이름을!  
날리라 람홍색국기를!  
온 세상의 경탄과 찬양속에  
내 나라의 국호는 금메달로 빛나리

그때면 오, 그때면 하나  
선수들의 이름과 번호는 조선!  
어서 오라 기다려 밤을 지새신 원수님  
사랑의 한품에 그대들을 안아  
높이 애국의 단상에 세워주시리라!

## 상 식

## 사단, 련단, 련대, 대대

군대에서 사단은 1873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무어졌다. 매 사단밑에는 2개의 보병려단과 1개의 기병려단, 2개의 포병중대를 두었다. 그후 로씨야와 기타 다른 나라 군대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련단은 프랑스어를 번역하여 생긴 말이다. 처음에는 련단인원수가 고정되어있지 않았다. 16세기에 스웨리에국왕이 련단의 편제를 고정시키었다. 련대는 로어를 번역한 말이다. 14세기전에 련대는 로씨야부대의 총칭이었다. 후에 단어뜻이 점차 변하면

서 군대의 아래단위의 전투부대로 되었으며 정규군을 조직할 때 련대는 고정된 편제로 들어갔다. 대대는 영어를 번역한 단어이다. 본래 뜻은 작다 또는 적다는 뜻이다. 14~15세기에 대대를 네모난 부대라고 하였는데 고정된 편제는 없었다. 15세기에 와서 프랑스군대는 대대밑에 17개 중대를 두었는데 사병은 400명이었다. 뽀프르1세는 로씨야군에 대대를 두었으며 대대밑에 3~4개 중대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 리 기 창

△때:현대  
△곳:어느 해안도시에서  
△나오는 사람들  
은심:대학졸업생  
덕준:전쟁로병(영예군인)  
분옥:전쟁로병(덕준의 처)  
명호:제대군인  
송순:해안식당 책임자  
만기:은심의 삼촌  
정실:우편통신원  
그외 섬마을사람들

### 1경

△무대:부두가 가로등밑에 긴의자가 놓여있으며 무대 한쪽에 해당화가 피어있다. 그너머로 푸른 파도 설레이고 갈매기들이 날아에는 바다가 보이는데 긴의자옆에는 배낭과 기타가 놓여있다.

△파도소리, 갈매기울음소리 들리는 속에 막이 열리면 대학생복차림의 은심 약초화분을 소중히 안고 왼쪽에서 나온다.

은심:(부두가를 바라보며)배가 언제 건너올까? 꽃섬에 빨리 건너가야 할텐데...(약초화분을 보다가 놀라며)어마, 약초잎이 시드네. 여기 어디 물이 없을가?(사위를 둘러보다가 오른쪽으로 달려나간다.)

△잠시후 해군복차림의 명호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들어오다가 해당화를 보자 멈춰선다.

명호:(혼자소리로)여기에도 해당화가 붉게 피었구나!

△이때 송순 지함을 들고 왼쪽에서 나온다.

송순:저 해병동무, 러객선이 왔는가요?

명호:아직 안 왔습니다.(송순을 여겨보며)이제 누굽니까? 해안식당 책임자아주머니로구만요!

송순:응? 낮은 익은데 누구더라?!

명호:지난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녀가신 우리 해군부대에 원호물자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송순:맞아. 그때 동문 수산대학에 추천받아 가게 됐다고 했던가. 오락회때 기타독주를 하던 분대장!

명호:그렇습니다.(의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만날줄이야. 좀 앉읍시다.

송순:(의자에 앉으며)그래 대학엔 붙었나?

명호:예, 찰떡처럼 떡 붙었지요, 하하하...

송순:그때 집이 평양이라더니 여긴 왜 오나?

명호:저기 꽃섬에 가자구요.

송순:꽃섬에 친척이 있나?

명호:친척은 없지만 좀 불일이 있어서...

송순:그럼 처녀 보러 가는 모양이지.

명호:처녀 보러요? 하하하... 아주머닌 저 꽃섬에 계시는 최덕준로인을 아십니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꽃섬을 지켜싸우다가 영예군인이 된 로인을 말입니다.

송순:알다뿐이겠나? 지금도 그 불편한 몸으로 바다가양식을 직심스레 도와주고있다네.

명호:예?!

송순:그리구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구 그 집자손들은 또 얼마나 훌륭하다구. 아들은 저 서해안의 섬방어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또 영선이라는 손자는 자네처럼 해병이었는데 화제가 난 집에 뛰어들어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셔내오고 어린이들까지 구원하고 그만 희생되었다네.

명호:제가 그 영선동무의 분대장이였습니다.

송순:뭐?! 그럼 임잔 그 집에 가는 길인가?

명호:예, 래일이 바로 영선동무 할아버지의 생일이 아닙니까.

송순:그러니 영선이 대신 찾아가나?

명호:영선동문 앞으로 제대되면 꽃섬에 와서 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만... 하기에 제가 인사라도 드리자구 갑니다.

송순:나두 그 집에 특별봉사를 가는 길이라네.

명호:그렇습니까? 야, 함께 가게 됐구만요!

△이때 은심 다시 들어온다.

은심:(그들에게 인사하며)저, 미안하지만 배가 언제 오는지 모르시나요?

송순:이제 오겠지. 처녀도 꽃섬에 가나?

은심:네.

송순:보매 대학생 같구만.

은심:올해에 졸업했어요.

명호: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은심:의학대학을요.

송순:그럼 의사선생이 되겠구만. 집은 어딘데?

은심:함흥이에요.

송순:그럼 도시처녀가 꽃섬에 배치받아가나?

은심:저...(수집어한다.)

명호:(감동되어)대학을 졸업한 도시처녀가 저 외진 섬으로 간다! 그러니 꽃섬에 또 한송이의 아름다운 해당화, 선군시대의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겠구만요!(은심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축하합니다!

은심:아이참, 전 아직...

명호:아니, 그럼 꽃섬에 간다는건요?

은심:저, 사실은...(고개를 숙이며 돌아선다.)

△이때 자동차 멧는 소리에 이어 만기 보약병들이 담긴 구력을 들고 왼쪽으로 나온다.

만기:은심아.

은심:삼촌, 그래 어떻게 됐어요?

만기:(주머니에서 배치장을 꺼내보이며)자, 새 배치장이다.

은심:(받아보며)야. 삼촌, 고마워요.

만기:애, 말두 말아. 한번 배치받았던 곳에서 다시 옮긴다는게 쉽지 않더구나.

은심:그렇거예요.

만기:(보약병구력을 주며)이 보약들도 가져가자꾸나.

은심:아이, 이런것까지 다... 삼촌은 정말...

만기:(부두가쪽을 보며)헌데 러객선은 왜 보이지 않니?

은심:이제 오겠지요 뭐.

만기:가만.(손목시계를 보며) 그새 난 꽃섬진료소에 갖다줄 약재때문에 해안약국에 잠깐 갔다오마.

은심:새 배치장을 다시 떼간다고 꽃섬사람들이 쉽게 동의할가요?

만기:넘려말아. 이 삼촌까지 꽃섬에 가서 설복하면 마다하지 못할게다.(왼편으로 나간다.)

은심:아니, 저 삼촌, 내 말 좀 들으세요. (따라 나간다.)

송순:이제 보니 그 처녀가 이미 배치받았던 꽃섬

에서 도시로 빠져나오자는게로구만, 원참.

명호:그러게 말입니다. 꽃섬에 붙게 될 해당화인 줄 알았더니 부평초였군요.

송순:부평초라니?

명호:땅에 뿌리를 박지 못한채 물결따라 둥둥 떠다니는 보잘것 없는 풀이란 말이지요.

송순:하긴 영선이란 청년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자기의 목숨도 청춘도 바쳤는데 그 처녀 어찌면 당에서 배치한 꽃섬에서 빠져나가자구 저런 꾸레미를 들고다닐가, 원...

명호: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 처녀가 꽃섬으로 간다기에 전쟁로병인 영선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돌봐줄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참!

△명호 걱정예 넘쳐 기타를 탄다.

송순:내 배시간을 알아보고 오겠네.(부두가를 내려간다.)

△명호 기타를 타며 노래를 부른다.

포연속에 피어나던 바다가 해당화

영웅들의 뉘이런가 오늘도 붉게 타네

아 청춘을 어떻게 빛내였는가

나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해당화 해당화

△은심 들어오다가 노래를 들으며 해당화를 어루만진다.

은심:(감동되어)노래가 참 좋구만요.

명호:(통명스럽게)바다가를 떠나갈 사람한테도 이 노래가 좋게 들립니까. 해당화도 바다가에서 피니 아름답지 도시에서 핀다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소.

은심:예?

명호:바다를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해당화의 아름다움도 모를거요.

은심:바다는 해병만이 사랑하는가요?

명호:뭐라구요? 동무! 저 꽃섬엔 동무와 같은 의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전쟁로병, 영예군인들도 살고있단 말입니다.

은심:아니, 그럼 동문 저를...

△이때 송순 다시 달려나온다.

송순:이 사람 분대장, 야단났구만.

명호:왜요?

송순:글쎄 어제부터 배시간이 달라져서 마지막 배가 이미 떠났다는단.

명호:뭐라구요?!

은심:야참, 오늘 꼭 건너가야 할텐데, 어찌나.

송순:나두 그렇다네. 더구나 배를 수리한다더군.

명호:그렇다면 할수 없군. 아주머니, 그럼 전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송순:(의아해서)뭐?!

은심:해병동무, 저도 같이 건너가게 해주세요.

명호:동무두요?

은심:네. 잠깐만!(급히 달려나간다.)

송순:어떻게 건너간다는건가?

명호:저 옷쪽에 해군부업기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부탁해보겠습니다.

송순:임잔 해병출신제대군인이니 태워줄거네.

명호:그럼 다시 만납시다.(걸어간다.)

은심:(보자기에 쓴 약초화분을 안고 뛰어들어오며)저 해병동무, 저도 좀 같이 가자요.

명호:꽃섬을 떠날 동무야 오늘 가면 어떻게 래일 가면 뭐랍니까?

은심:(보자기에 쓴 약초화분을 가리키며)이게 시들가봐 그래요.

명호:그런것이나 들구다니는게 부끄럽지 않습니까?(힉 나간다.)

은심:예?!(긴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어쩌면 좋담... (화분에 씌운 보를 들춰본다.)

송순:그게 뭐데?

은심:몸보신에 특효가 있는 진귀한 약초예요.

송순:약초?! 그걸 어디로 가져가나?

은심: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최덕준이라는 로인한테요.

송순:아니, 뭐라구?! 진작 그렇게 말할테지. 헌데 이미 배치받았던 곳에서 새로 배치받아간다는 건 무슨 소린가?

은심:사실 의학연구소에 배치받았는데 꽃섬진료소로 옮겨가서 영예군인인 최덕준로인님의 건강을 돌봐주려구요.

송순:원, 세상에... 그런걸 우린 또... 가만, 내가 매생이라도 얻어볼테니 함께 가자구.

은심:정말 고마워요.(인사한다.)

송순:고맙긴. 우리도 그 영예군인할아버지네를 찾아가는 길이라네. 잠깐 기다리라구.(나간다.)

은심:네.(약초화분을 소중히 어루만지며)이 약초가 시들기 전에 꽃섬에 옮겨심어야 할텐데...

△음악이 울리는 속에 무대 어두워진다.

## 2경

△때:1경으로부터 얼마간 후

△곳:꽃섬

△무대:영예군인 최덕준의 집. 마당가에 해당화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고 담장결에 그물과 칙넌줄이 걸려있다. 그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인다. 왼쪽으로는 바다가양식장과 진료소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부두로 가는 길이다.

△무대 다시 밝아지면: 한팔이 의수로 되어있는 최덕준로인 의자에 앉아 칙넌줄을 사리고있다.

△잠시후 분옥 약그릇을 들고 집에서 나온다.

분옥:(약그릇을 내밀며)이젠 그만 하시구 어서

약이나 드시라구요.

덕준: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약그릇을 받아 들고 마신다.)

분옥:약이라면 쓴외보통 하던 평감이 그 처녀가 보내준 약을 꿀물처럼 달게 자시니 웬일이우?

덕준:그거 참 신통하거던. 이 초약을 먹은 후부터 온몸이 거뜨해진단 말이야.

분옥:그러기에 진료소소장도 말하지 않습디까. 우리 나라에 흔치 않은 약초라구요.

덕준:정말 기특한 처녀지. 얼굴도 모르는 처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 돌봐주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게 편지를 보내지.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로 웅장하게 일떠서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전투장에 원호물자랑 가지구 올라갔을 때엔 또 이런 진귀한 약재까지 집에 갖다놓고 갔지.

분옥:친자식이면 그보다 더하겠수. 그러기에 난 그 처녀가 이제라도 문득 집에 들어서는것만 같아서 잠이 다 오질 않습다.

덕준:로친네, 그러다가 막상 그 처녀가 찾아오면 어쩔테요?

분옥:난 그저 우리 영선이한테 못다한 사랑까지 합쳐서 금이야옥이야 떠받들어주겠습다.

덕준:당에서 대학공부까지 시켜서 의학연구소에 배치한 처녀연구사인 남의 귀한 딸이 우리같이 늙은것들한테 와서 한생 뒤바라질이나 하게 해서야 되겠소. 그러지 않아도 섬방대대에서 복무하는 영선이 애비가 우릴 오라는것도 부담이 될가봐 끝내 응하지 않았는데...

분옥:하지만 은심이라는 그 처녀 어쩐지... 영선이 대신 친손녀 삼아...

덕준:(엄하게 군대식으로)전사 리분옥동무!

분옥:예?!

덕준:그런 생각일랑 말고 어서 이 칙넌줄이나 잡소!

분옥:원참,(군대식으로)특무상사 최덕준동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호호호...

덕준:좋소, 하하하... 여보 로친네, 우리가 늙었다구 그런 공대나 받아서야 되겠소. 전화의 그날처럼 살자구요!

분옥:알겠습다.

△그들이 칙넌줄을 사리는데 명호 들어온다.

명호: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분옥:아니, 이게 누군가? 언젠가 우리 영선이란 함께 왔던 분대장이로구만.(배낭과 기타를 받아 퇴마루에 놓으며 반색한다.)

덕준:수산대학에 입학했다는 편지를 보내더니 여긴 어떻게 왔나?

명호:래일이 영선동무 할아버님의 생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선동무대신 인사를 드리자구 왔습니다.



덕준:고맙네, 고마워. 하지만 이 바쁜 때 생일은 무슨 생일, 입잔 그런 원심을 쓰지 말구 대학공부에 전심하라구.

분옥:입찰 보니 마치두 우리 영선이가 온것 같구만.(명호의 어깨를 두드려준다.)

명호:(휙통구리를 보고)이건 어데 쓰려구요?

덕준:양식장에 갖다주자는거네.

명호:그 불편한 몸에 이런것까지...

분옥:어디 그뿐인줄 아나. 우리 섬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꼭 오실것만 같다면서 글썽 길가에 해당화랑 각종 꽃들과 잔디를 심고 가꾸며 정성을 다한다네.

명호:예- 그래서 영선동무가 해당화의 노래를 것처럼 즐겨부르곤 했구만요.

덕준:우리 영선이가?

명호:(기타를 가리키며)저 기타도 영선동무가 타던겁니다.

분옥:그래?!(기타를 소중히 쓸어만진다.)

덕준:(마당에 놓인 휙줄을 집으려다가 허리의 동통으로 신음한다.) 아...

명호:아니, 왜 그러십니까.(달려와서 덕준의 허리를 만진다.)

덕준:(짐짓 태연하게 웃으며)허허... 이따금씩 신경통때문에 그러네. 명호 이 사람, 우리 꽃섬에서도 요즘 새로운 방법으로 양식장을 꾸리네.

명호:제가 앞으로 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와서 힘껏 돕겠으니 걱정마시고 오늘만이라도 좀 쉬십시오.

덕준:허나 바다농사는 벌방농사와 같아서 하루라도 늦잡으면 1년농사를 망친다네.

명호:예?!

△이때 꽃섬체신소 우편통신원인 정실 우편가방을 메고 들어온다.

정실:안녕하세요?

분옥:통신원이 또 어떻게?

명호:안녕하십니까?

정실:아니, 그때 영선동무와 함께 왔던 분대장동무도 왔구만요.

덕준:신문을 가져왔나?

정실:전보가 왔어요.

분옥:누구한테서?

정실:누구긴 누구겠나요. 하루가 멀다하게 편지를 보내던 그 은심이라는 처녀한테서 왔지요. 자요.(전보를 준다.)

분옥:뭐? 어디 보자구.(전보를 받아서 읽는다.) 16일 도착 손녀 리은심...

덕준:그만큼 오지 말라구 회답편지를 했는데두...

정실:손녀가 생겨 기쁘겠어요. 어떻게 생긴 처녀지 이따가 보러 오겠어요.(인사하고 나간다.)

명호:손녀라니 누굽니까?

분옥:글썽 얼굴도 모르는 처녀가 오겠다질 않나.

명호:어데 있는 처녀데요?

분옥:의학연구소에 있는 처녀라네.(전보를 준다.)

명호:(호기심어린 눈길로 전보를 받아본다.)

분옥:여보, 오늘 온다니 어쩌면 좋수?

덕준:어찌겠소, 돌려보내야지.

분옥:난 차마 그렇게 못하겠수다.

덕준:내 그만큼 말했는데 또... 괴롭지만 등을 떠밀어서라도 돌려보내자구!

분옥:그렇게야 어떻게...

명호:제가 그 처녀를 마중나가보겠습니다.

덕준:이제 올텐데...

명호:저도 오늘 배가 다니지 않아 부업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 양식장의 매생이라도 얻어가지구 마중갔다오겠습니다.(서둘러 나간다.)

덕준:이 사람아.

분옥:나두 가볼가요?

덕준:그만두라구요. 가뜰이나 인정이 무른 당신이 그 처녀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수 있다니.

분옥:맘 폭 놓으시우다.

덕준:그새 우린 때줄이나 양식장에 갖다주고 오자니까, 어서.(휙통구리를 막대기에 끼운다.)

분옥:원참.(막대기를 마주 든다.)

덕준:로친네, 보낼 땐 보내더라도 양식장에 빨리 갔다와서 그 처녀를 맞을 준비 하자구.

분옥:알겠수다.(휙통구리를 마주 들고 나간다.)

△잠시후 송순을 따라 은심, 만기 들어온다.

송순:(집에 대고)할아버님, 누가 오나 보시라고요.(응답이 없자) 비였나? (집안으로 들어간다.)

은심:(약초화분과 트렁크를 놓으며)어데 가셨나.

만기:은심아, 이 집이냐?

은심:그래요.

만기:어디 나간 모양이구나. 그새 네 배치때문에 꽃섬진료소에 먼저 갔다오겠다.(왼쪽으로 나간다.)

은심:빨리 오세요.

송순:(다시 나오며)어디 갔는지 내 찾아볼테니 여기서 좀 기다리라구.

은심:알겠어요.

송순:(마루에 있는 배낭과 기타를 보자)응?!

그 해병동무가 벌써 온게로구나. 하긴 매생이를 타고온 우리보다야 앞서 왔겠지.

은심:정말 좋은 동무로군요.

송순:그 동무도 처녀가 여기로 왜 왔는지 알게 되면 무등 기뻐할거야, 호호호...(나간다.)

은심:아이참...

△은심 약초를 옮겨심을 자리를 살피는데 노대를 들고 지나가던 명호 그를 보자 놀란다.

명호:동무가 어떻게? 뭘 타고 왔소?

은심:그 아주머니와 함께 매생이를 타고 왔지요.  
명호:그렇소? 꽃섬진료소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무대 왼쪽을 가리키며)저쪽에 있소.

은심:예?(그쪽을 바라보다가)아니, 저기에 가시는 분들이 그 영예군인이 아닐까?!

명호:웁소. 이미 동무한테 말했지만 이 섬엔 바로 동무같은 의사의 정성이 필요하단 말ियो. 하기에 어떤 처녀는 정든 고향을 떠나 영예군인의 친손녀로 오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은심:그게 정말이예요?(저으기 놀란다.)

명호:그렇소. 이 전보를 좀 보오.

은심:(그가 내미는 전보를 조심히 받아서 펼리는 눈길로 더듬어보다가 자기가 보낸 전보임을 알아)아마나...

명호:(충고하듯)동무도 그걸 보니 뭔가 가책되는게 있는게로구만. 그러니 동무도 당에서 배치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길 바라오. 나는 그 처녀동무를 마중가오!

은심:아이참, 그 처녀가 뭐라구 마중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명호:뭐요? 이 동무가 정말...(은심의 손에서 전보를 와락 빼앗아들며) 동무!(트렁크와 약물병구렁을 가리키며) 저런 꾸레미나 들고다니지 말고 (전보를 흔들며보이며) 이 처녀처럼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란 말ियो, 뜨겁게. 알겠소?(오른쪽으로 나간다.)

은심:아니, 저, 해병동무...(멀어져가는 그를 뜨겁게 젖어드는 눈길로 바라보다가 팔소매를 걷고 약초를 꽃밭에 한포기, 두포기 정성담아 옮겨심기 시작한다.)

△그의 마음을 담아 음악이 흐른다.

은심 옮겨심은 약초들에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있는데 덕준, 분옥 들어오다가 은심의 모습을 띄여보자 자못 놀라며 멈춰선다.

분옥:여보, 함흥에서 오는 그 처녀가 아니우?

덕준:글썸?!

분옥:(은심에게로 다가가며)저, 이 보라구. 혹시 은심이라는 처녀가 아닌가?

은심:(그제야 돌아보고)네. 아니, 그럼?! 안녕하십니까. (다소곳이 머리숙여 절을 한다.)

분옥:이러지 말라구. 우리가 평양에 간 사이에 귀한 약재를 갖다놓고가더니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덕준:저기 꽃밭에 심은건 뭐고?

은심:약초예요. 마른걸 달여서 잡취도 좋지만 생즙을 짜서 복용하면 약효가 더 있다기에...

덕준:(목이 메여)처녀, 그만큼 오지 말라구 회답을 했는데 저런 귀한것까지...

은심:할아버지, 할머니! 전, 전 아주 왔습니다.

덕준:뭐라구?! 당에서 대학공부를 시켜 중요한

의학연구소에 배치했으면 거기서 기술적으로 보답하는게 옳지 이 늙은것들의 뒤바라질이나 하겠는건가?

분옥:처녀의 창창한 앞길도 생각해야지.

은심:의학연구소에서 일하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전 영선동무를...

분옥:영선이라니?!

덕준:그럼 우리 영선이와 이미부터 아는 사이였나?

은심:아니, 아니예요.

분옥:그런데?

은심:제가 그 동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것은 지난 가을 저녁무렵이었어요. 그날 제가 깊은 산중에 가서 약초를 한배낭 채취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목을 상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역으로 가는데 한 해병동무가 뒤따라오더니 약초배낭을 자기가 메다주겠다면서 무작정 빼앗아드는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고마운 해병동무였어요. 이야기를 해보니 그 동무는 표창휴가를 받고 꽃섬에 계시는 전장로병이며 영예군인인 할아버지한테 가는 길이라더군요. 어느덧 갈림길에서 그 동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약초배낭을 받아메고 얼마간 가는데 글썸 산골짜기의 외딴 집에서 불길이 치솟는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전 황황히 소리쳤답니다. 《화재가 났어요. 불이예요, 불-》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 해병동문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그리로 달려가더군요. 제가 뒤따라 그 집앞에 갔을 때 그 해병동문 삼단같은 불길속에 뛰어들어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셔내오고 화염에 질식한 소녀를 안아내왔어요. 불길에 군복이 타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해병동문 오히려 의식을 잃은 소녀를 흔들며 정신차리라고 소리쳐부르는게 아니겠어요. 이윽고 의식을 회복한 소녀가 몸을 일으키더니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글썸 장농속에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때 수여받았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대표중이 있다는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 해병동문 그런 몸으로 이끌거리는 불길속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지붕이 무너져내렸어요.

아- 이윽고 온몸이 불덩이가 된채 해병동문 품속에 대표증을 소중히 안고 나왔으나 그만...(말끝을 맺지 못하고 흐느낀다.)

분옥:(눈물을 삼키며 눈굽을 닦는다.)

덕준:처녀가 그걸 직접 목격했던 말이지...

은심:만일 그날 그 집에 화재가 난것을 보았을 때 남을 소리쳐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달려가 화염속에 뛰어들었다더라면 그 해병동문 희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의 뜻을 이어 조국

의 바다를 지켜갈 그 동무가 말이예요.

분옥:처녀...

은심:전 그 동무의 모습에서 선군시대 청춘들의 참된 삶에 대한 뜨거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무대신 이렇게 왔답니다.

덕준:그렇다구 처녀가 자기의 부모님결을 떠나 우리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

은심:예?

덕준:그러지 않아도 당에서는 우리 영선의 소행을 평가하여 높은 표창을 하도록 해주었구 또 우리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친히 불러주시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을뿐아니라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셨다네. 그러니 우리 걱정은 말라구.

은심:아니예요. 이 땅의 청춘들이 당과 수령을 위해,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고있습니다. 꽃같은 처녀들이 얼굴도 모르는 영예군인들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어줍니다. 우리 시대 청춘들의 그 참다운 삶의 료리를 저도 따르게 해주세요.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전쟁로병영예군인인 할아버지를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하던 영선동무의 그 마음을 제가 대신할수 있게 해달란 말입니다. 더우기 태일은 할아버님의 생일이 아닙니까!

덕준:처녀의 그 마음은 알겠네만 우린 웅할수 없네. 우리가 남의 공대나 받자구 지난날 피를 흘리며 싸운줄 아나.

분옥:지금 우리가 당의 혜택을 받는것만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는데 나라에 보탬을 주지 못할망정 남의 신세까지 지며 살아야 무슨 면목이 있겠나.

은심:할머니, 제발...(그의 손을 잡는다.)

분옥:이러지 말라구.(눈을 습벅이며 돌아선다.)

덕준:더이상 우릴 괴롭히지 말아주게. 처녀만이 아니라 우릴 돌봐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영선이를 대신해서 분대장 이랑 봉사자들도 찾아왔구.

△이때 명호와 송순 들어오다가 멈춰선다.

덕준:그러니 오늘은 쉬구 태일 떠나가주게.

은심:뭐라구요?! 어쩌면... 아! (얼굴을 싸쥐고 흐느끼며 꽃밭으로 달려가서 약초들을 어루쓸어만진다.)

명호:(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걱정을 더치며) 은심동무! 날 용서하오! 난 동무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는줄 모르고... (덕준이앞으로 다가서며) 어쩌면 것처럼 무정할수 있습니까. 저도 방금전에야 알았지만 저 은심동무는 영선이 대신 이 꽃섬에 영원히 옮겨와서 영선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겠다구 이미 배치받았던 의학연구소도 마다하고 이곳 진료소로 새 배치장까지 받아가지고왔단 말입니다.

덕준, 분옥:(놀라며)아니, 새 배치장까지?!

명호:그렇습시다.

분옥:(목이 메어)은심아, 우릴 리해해라구. 저 법같은 평감도 너한테 그런 회답편지를 쓸 때 눈물을 삼키며 썼단다...

은심:예?!

명호:할아버님!

덕준:(젖어든 목소리로)이 사람아, 나두 우리 영선이처럼 이 처녀를 데리고있고싶은 마음이 없는줄 아나. 하지만 안될 말이니네, 안될 말...

은심:(애절하게)전 죽어도 못 가요. 만일 제가 간다 해도 앞으로 수많은 아들딸들이 나처럼 또 끝없이 찾아올거예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나요. 전 못 가요. 이대로는 절대로 못 가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흐느낀다.)

덕준:(처녀의 진정에 그만 목이 메어)은심아!

은심:할아버지!(달려가 덕준의 품에 안긴다.)

분옥:(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은심아... 고맙다.

△음악이 울린다.

△만기와 정실 들어와 그 광경을 본다.

은심:(만기를 보자)삼촌!

만기:은심아!(덕준의 손목을 뜨겁게 잡으며)

아버님, 제가 이 애의 삼촌입니다.

덕준:그렇습니까?!

만기:우리 가정에서 이미 토의가 있었으니 우리 은심이를 영선동무처럼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 주십시오!

덕준:원, 별말씀을...

정실:(무대밖을 가리키며)저기 섬사람들이 축하하러 옵니다.

△이윽고 어로공을 비롯한 남녀 섬사람들이 꽃다발, 오색테프, 꽃보라를 들고 달려나온다.

모두:우리 꽃섬에 뿌리내린 해당화처녀동무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은심에게 꽃다발을 안겨준다.)

은심:아니, 이 꽃다발은 할아버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꽃다발을 덕준에게 안겨준다.)

명호:할아버지.

덕준:은심아, 명호야, 저 해당화가 바다가에서 만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너희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붉게 피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꽃송이들이구나!

(그들을 안아준다.)

△모두 박수를 치며 오색테프와 꽃보라를 뿌려준다.

△방창이 울리는 속에 갈매기들이 날아에는 바다에 붉은 노을이 불탄다.

아 청춘을 어떻게 빛내였는가

나에게 말하네 나에게 말하네 해당화 해당화

△천천히 막이 내린다.

# 오늘도 우리를 부르는 《자기 위치 앞으로!》

강 영 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들끓는 현실에 뛰어들어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간생활과 현실을 깊이 체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설가들이 현실속으로 들어가고있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드높이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해 우리의 소설가들이 현실속으로 들어가고있다.

누구는 로동계급속으로 또 누구는 농업근로자들에게로 또 누구들은 최첨단돌파전에 나선 미더운 지식인들을 찾아 또 세포동판을 찾아...

그들이 서로 바래우고 서로 고무하며 우스개삼아, 그러나 의미깊게 주고받는 구령이 있다. 《자기 위치 앞으로!》

《자기 위치 앞으로!》- 가장 적중한 시기에 가장 적중하게 어울리는 인상깊은 이 구령!

소설가라면 또 열성독자라면 누구에게나 귀에 설지 않고 눈앞에 그 장면들이 방불히 떠오르는 이 구령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창작된 어느 한 단편소설의 대목에서 유래된다.

우리는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에 대해 그리고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 엄단웅에 대해 잊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 ××지역에 새로 일떠서는 대야금기전설장의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을 맡은 ××건설사업소 지배인 전창민은 25톤기중기 하나를 15리밖에 옮겨오는데 녀달이 걸려야 한다는 기술적계산을 두고 고민한다. 하기는 그것을 처음 접수해올 때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던가. 그때에 비하면 두달 앞당긴셈이나 지배인 전창민으로서는 또 전진하며 비약하는 시대는 녀달이라는 시간을 용납할수 없다. 두달안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것도 길다.

전창민의 이 고민을 풀어준 사람은 뜻밖에도 대건설장의 가장 평범한 기중기운전공처너- 순금이다.

처너는 자동차떼를 무어 25톤기중기에서 나사못 하나 풀지 않고 그냥 통채로 두달이 아니라 단 하루동안에 땅이 요구하는 장소에 옮겨놓겠다고 말하며 자기의 대담한 착안을 다람쥐꼬리원리로 간단히 비유한다.

《우리는 25톤기중기의 팔을 떼지 않고 그 팔을 리용하려고 해요. 다람쥐의 꼬리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금은 바로 그 기중기를 자기가 운전

할 단호한 결심을 토로한다.

이로부터 터져나오는 지배인 전창민의 의미심장한 내면독백과 인상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그대로 되새겨보자.

《나는 어째서 여직 한대오속에 있는 이 동무들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는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이 항상 군중들속에 들어가 사업해야 한다고 그토록 간곡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는가. 그는 문득 아침 기사장에게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일이 되살아났다. 그러면 여직 지휘관으로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공격전투시에 맨앞장에 서고 어려운 후퇴시기에 맨뒤에 서있었는가? 행군하는 때에는 대오 한복판에 서서 힘겨워하는 전사의 총과 배낭을 메다주기도 하고 부축해주기도 하였는가?...》

《그러나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는 순금이같은 이 건설장의 주인들을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그들의 곁을 바람처럼 스쳐지나기만 하였다. 오늘 아침 구내길에서 지배인을 붙잡는 용접공로인의 곁을 분주히 지나가버렸듯이 그는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줄 몰랐다.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전사들속으로! 포병중대 전사들과 함께 76밀리런대포를 어깨로 떠밀며 벼랑을 기어오르던 그때와 같이 또다시 자기 위치에 들어서자!》

《출발에 앞서 지배인은 기계화행군대오에 망라된 전체 성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준비상태를 검열하였다. 그는 행군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꼼꼼히 상기시키고나서 오래간만에 군대식으로 구령을 쳤다.

〈자기 위치 앞으로!〉

정렬했던 대오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디며 각기 제자리로 흩어져갔다.》

《승용차 한대가 급히 달려오더니 그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그것은 항상 지배인을 따라다니던 그의 승용차였다. 운전사는 출발시간이 늦을세라 차에서 뛰어내려 지배인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전창민은 그냥 차의 곁을 스쳐지나가면서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차를 들여다세워놓소. 나는 이제부터 이 동무들과 같이 가야겠소. 내 위치는 저기요.〉

지배인은 25톤기중기의 운전실을 손으로 가리켰다.》

《〈기사장동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의 지휘관처럼 언제나 로동자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소. 우리 지휘관들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싸우는 전사들 곁에, 전호속에 같이 있어야 하오. 그러나 지난날 우리는 그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지내왔소.) 전창민은 기중기의 쇠다리를 오르다가 걸음을 멈추고 밑을 굽어보며 큰소리로 웅쳤다.

〈기사장동무는 맨앞에 서서 불도젤로 새길을 닦으며 나가시오. 출발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빨리 자기 위치에 들어서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엄한 질책과 절절한 회오, 텅기여 일어나 자기 위치를 빨리 되찾는 전창민의 형상은 솔직하면서도 전개력이 있는 미더운 지휘관의 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는 곧 이 소설을 창작한 소설가 엄단웅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속에, 대중속에 들어가야 하기는 전창민이나 엄단웅이나 무엇이 다른가. 일군이나 작가나 맨먼저 맨 깊이 차지해야 할 자기 위치가 있는 법이다.

소설가 엄단웅이 어느 한 광산에 내려가 현실 체험을 할 때 일이다.

엄단웅은 채굴막장에 나가서 착암기를 직접 손에 잡아보기도 하고 착암조수가 되어 물호스를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 한번은 발파수들의 일손을 도와 준 일이 있었다. 도화선에 불이 달리고 70센치밖에 안되는 도화선이 치직치직 타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제 5분후이면 폭발이 진행되는것이다. 발파공들은 빨리 대피장으로 먼저 나가라고 거듭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도화선에 불이 달리는 아슬아슬한 광경을 제 눈으로 꼭 보고싶은 호기심과 그리고 발파수들과 똑같이 행동하리라는 결심을 품고 고집스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드디어 마지막도화선에 불이 달리고 발파수들이 대피소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자 소설가도 그들과 함께 광석무지를 헤집으며 대피장으로 내달리었다. 그러다가 쇠돌무지에 발이 걸려 엎어지면서 허리를 풀치었다. 요행 대피장소에 거의 다달았을 때 일이어서 발파공들이 소설가를 대피장소에 끌어들여주었다. 때를 같이하여 요란한 발파소리가 일어나며 돌파편들이 날아와서 맞은편 갱도벽을 후려갈겼다.

엄단웅은 풀친 허리때문에 며칠 고생을 하였는데 그보다도 발파공들과 함께 겪은 그 순간들을 더 귀중히 여기었다.

만일 그때 엄단웅이 발파공들의 선의에 떠밀려 대피장으로 먼저 달려들었다면 것처럼 보고싶었던 마지막도화선에 불을 다는 장면을 진실하게 체험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자기 위치 앞으로!》라는 구령은 단편소설의 주인공 전창민과 소설가 엄단웅이 동시에 자기에게 내리는 구령이다. 이는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현실로! 생활의 한복판으로 깊이깊이 들어가는 우리 소설가들의 발걸음을 떠미는 힘있는 구령이기도 하다.

##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을!

김 청 송

현실주제소설창작에서 형상의 대지는 현실 그 자체이다. 지나간 과거를 그리는 력사소설도 아니고 아직은 먼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환상소설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주제소설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의 진실성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문학에서는 자주적인 인간과 그의 생활을 미적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높은 미학적리상으로 그려내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생활과 실지 생활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에 따라 현실주제소설의 진실성여부가 평가된다.

때문에 현실주제소설창작에 들어선 작가의 걸음걸음은 늘 무겁다.

어느 세부, 어느 대사, 어느 인물성격이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리상화하거나 혹은 비속화하진 않았는지 늘 재여보고 심사숙고한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현실주제소설의 진실성문제를 론할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와 함께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을 제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을 내세우는것은 그 어떤 리상화도 리상주의도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현실주제소설이 진실로 도달해야 할 또 하나의 심중한 형상고지이다.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김하늘 작)은 현실주제작품으로서 오늘의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을 진실하게 보여준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국제무역지대가 창설되고있던 동북변 항구도시의 공장, 기업소들앞에는 사회주의원칙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새 세기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섰다.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은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양한 인간관계와 생활적인 이야기로 펼쳐보고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상에 남는 처녀 리현숙이 있다.

소설의 서두에 펼쳐지는 평양건설전대대학(당시) 졸업반학생들의 도시건축형성환상경연에 대한 이야기속에 리현숙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환상의 무대는 새로 창설되고있는 류진국제무역지대, 지형자료만을 놓고 지질조건, 건설능력 등 일체의 조건들을 다 무시해버린 완전히 환상적인 도시건축형성환상경연이었다. 인구 백만도시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더 첨부되었을뿐...

경연에는 열한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나 점차 기권하는 축들이 생겨 경연의 마감날에는 5명이 남았다.

《전변》, 《희망》, 《부강》, 《미래》. 매 제목의 환상도들이 컴퓨터로 뽑아져 하나씩 나뉜다.

감탄, 놀라움...

드디어 현숙의 차례가 왔다. 그는 전지 열장이나 이어붙인 《류진국제무역지대중심부건축형성》이라는 환상도를 내걸었는데 모두가 입을 딱 벌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대도시! 으리으리한 초고층건물들, 그와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상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다층, 소층, 단층건물들, 건물의 바다를 힘있게 쪽쪽 헤가르며 뻗어나간 립체도로들, 위력한 가공공업지구와 목직하게 틀고앉은 금융거리, 특색을 뽐내는 관광지들과 상업봉사거리들...

...

환상이 대답하면서도 섬세했다. 항구로 배를 타고 들어올 때면 마치 미단이문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열고 들어오는것 같은감이 들게 했다. 파수같이 웅건한 술섬을 지나면 안주인처럼 몸매 작으면서도 화려한 폴섬이 나타나고 정면으로 마주선 해안거리의 자태와 그 등뒤의 수림 무성한 구룡이 한눈에 안겨오게 되어있었다. ... 반대로 배를 타고 도시를 떠날 때면 그 미단이문들을 차례로 닫아가는감이 들것이다.》

한참만에 누구인가가 《현숙동무, 환상두 정도지 이건 너무 환상적이지 아니요?》한다. 그러자 현숙은 목소리의 입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포부가 작으면 실천도 작지요.》 하고 툭 쏘아버린다.

현숙의 환상설계의 제목은 《결심》.

《결심》은 특등으로 선포된다.

현숙의 환상도가 정말로 지나치게 환상적이었던가? 아니다. 현숙이가 내건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결심이다.

물론 그의 환상도가 누구나의 경탄만 불러일으킨것은 아니다.

현숙의 소꿉동무이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 진해심은 현숙의 환상도를 보고 놀라며 기뻐하는것

과 동시에 현숙이 관광지로 설계한 폴섬을 보고는 실망한다.

《...하지만 폴섬엔... 양식장이 있어야 돼.》

폴섬에는 양식장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해심의 아버지 진영일과 외사촌오빠 윤철의 넋이 깃들어있다.

해심의 절절한 속삭임을 들은 현숙은 현실에, 해심의 마음속에, 류진사람들의 기대속에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했던 자신을 질책한다. 그리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류진산업설계사업소로 파견장을 받았을 때 그가 제기하여 받은 첫 과제는 폴섬양식기지설계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떠서는 폴섬양식기지를 알심있게 설계하여 두각을 낸 현숙이 류진시건축설계사업소 산업설계실장으로 임명된다.

그는 처녀실장으로서의 실력과 배짱, 도고함으로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제껴나간다.

형타수리공장을 건설강제공장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는 설계가 제기되자 현숙은 《...주강공정과 압연공정을 먼저 들어앉히고 생산을 시작하세요. 그우에 건물을 씌우면 되니까요. 말하자면 설비조립을 먼저 하고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씌우자는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세상에 공장건설을 그렇게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안에 설비들을 들여다가 조립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수군수군한다.

현숙은 자신있게 《그렇게 타산하고 건축설계와 공정설계를 잘하면 되지 않겠나요.》 하고 덧붙인다.

영똥하면서도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

물론 실천과정은 쉽지 않다.

현숙을 포함하여 부분설계원, 사도공들까지 하루 스무시간이상 전투를 벌린다.

분과 초를 쪼개가며 침식을 옮겨가며 아글타글 결사전을 벌리는 처녀실장 리현숙, 혼절하여 쓰러져서도 꿈속에서 설계도의 점 하나, 선 하나를 부여안고 몸부림치는 처녀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당조직의 신입과 말없는 부축, 사려깊은 눈빛이 그를 언제나 감싸안는다.

그는 나아가서 송진산련봉의 높은 골짜기를 가로막아 산정의 호수를 만들고 그 물을 펴구어 전기를 일으키며 시안의 먹는물공급도 자연흐름식으로 한다는 통이 큰 설계를 내놓고 설계원들의 앞장에서 촉랑기를 메고 심심산밭을 누빈다.

《...나는 너의 특등작 환상설계 〈결심〉을 생각했어. 너는 한생의 결심을 담은 거창한 설계도를 이렇듯 하나하나 실천해가는구나.》

해심의 일기에 적히는 이 글은 곧 독자모두의 평가이기도 하다.

보는바와 같이 현숙의 리상이야말로 현실이 바라

# 아들아 두눈을 부릅뜨라!

—남녘의 윤일병 어머니를 대신하여—

한 동 선

기막히구나 아들이  
너 한마디라도 말하려무나  
날마다 보고싶다던 이 어머니가 왔는데  
성한데 없는 명들은 이 알몸으로  
이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나  
그 싸늘한 땡장고당반우에 누운채

말해라 널 때려죽인 놈 어느놈인지  
지독한 살인마들은  
네가 남긴 수첩마저 없애버렸다지만  
죄다 씌어져있구나 너의 몸 피멍든 자국마다에  
지긋지긋한 병영생활의 하루하루  
진저리나는 《국군》살이의 순간순간들이

못매와 발길질은 너무도 평범한 일  
철갑모 씌운채 의자로 내리치고  
주사까지 놓아가며 덮씌운 고통  
학대와 수모의 악착한 고문들은  
가지가지 도대체 몇십가지였더냐

침대미를 기며 가래침을 활아먹게 한  
개 돼지보다 못한 굴욕살이  
생생하다 《국군》에 끌려가던 날  
사형수의 걸음처럼 무겁던것이  
너는 그날에 벌써 알았구나  
《국군》살이는 죽음의 길  
《국군》은 미군의 총알받이라는것을  
《국군》은 허가받은 인권유린장  
그런 너를 죽음터로 보낸

이 어머니를 저주해다오

고운 딸을 낳으면 양키의 노리개가 될가봐  
아들 낳기를 바랐던 어리석은 이 어머니  
피멍든 너의 몸  
이 땅의 거친 흙으로 어찌 덮으랴  
피젖은 너의 뱃  
한가닥 연기로 어찌 날려버리랴  
울어 눈물로써는 이 원한 못 풀어  
넉두리로 원혼을 눈감길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윤일병은 내 아들만이 아니거니  
윤일병의 어머니도 이 땅엔 나 혼자만 아니거니

내 아들의 명복을 아지는 빌지 말라  
쌍이고쌍인 원한과 울분에 불을 질러  
살인마들을 징벌하기 전에는  
울분에 불덩어리가 된 이 몸  
아들아 너를 안고 거리로 나아간다  
너를 앞세운 이 어머니는 죽음도 두렵지 않거니  
이 땅 천하에 대고 웨친다  
—《국군》은 생지옥이다

자식들을 《국군》에 절대로 보내지 말라  
아들아 두눈을 번쩍 부릅뜨라  
불붙는 그 눈총에 살인마들 기절케 하라  
너처럼 눈먼 젊은이들 정신 번쩍 들게 하라  
부릅뜬 눈으로 웨치고 또 웨치라  
—나처럼 죽지 말라 투쟁만이 살길이다!  
박근혜와 군부강패악당들을 때려죽이라!

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이다.

리상과 리상주의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리상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중국적목표에 대한 표상이며 앞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가장 높고 훌륭한 희망이고 지향이다.

리상주의는 추상적인 리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 견해이다.

현실주제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리상주의는 웅당 경계하여야 할것이지만 리상은 웅당 내세우고 실천으로 지향시켜야 할 귀중한것이다.

우리의 현실주제소설들에 현숙의 리상같은것이 결여되어있다면 그것은 패일이 없고 지향이 부족한 형상이 아니겠는가.

리상이 있어야 결심이 서고 실천이 따른다.

포부가 작으면 실천도 작다.

현실주제소설은 오늘의 현실을 실지 생활이 흐르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는것과 동시에 현실이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리상을 독자들앞에 진실하게 그려주어야 한다. 이것 역시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온 세상이 부러움게 일떠세우는 오늘의 현실은 참되고 높은 리상을 그 어느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적의미에서 놓고볼 때도 장편소설 《함께 사는 사람들》에서 리현숙의 리상은 작가들모두, 독자들모두에게 자신들의 가슴속에 자태우는 목표와 그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스스로 재어보게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 집으로 돌아와

김 달 수

1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시작되었다.

행렬은 끊임없이 북쪽으로 흐르고있었다. 거기에는 인민군대와 함께 늙은이, 어린이, 녀인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들속에 나도 섞여있었다.

흐릿한 하늘에서 훑날리는 가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스며든다.

《엄마, 나 배고파.》

옆에서 울리는 말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열두살가량 되어보이는 소녀애가 손에 자그마한 종달바구니를 들고 중년의 녀인결에서 걸고있었다. 바구니속에서 재빛비둘기 한마리가 오돌오돌 떴다. 꼭 내가 남쪽에서 날린 비둘기같았다.

녀인은 자그마한 보자기를 꿰저쥐고 등에는 이불집을 졌다. 이제는 지쳤는지 딸애의 말에 돌아보지도 않고 짜증을 내었다.

《자꾸 칭얼대지 말아.》

그러자 소녀애는 용하게도 색깔은 어머니치마자락에 얼굴을 문대고는 입을 꼭 다물고 타발타발 걸음을 옮긴다. 비를 맞아 착 달라붙은 머리칼, 파리한 입술, 곱게 머리단장을 하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양지바른 자기 집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며 뛰어놀면 그렇게도 귀염상스러울 애이건만 지금은 그저 애처롭기만 하였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길가의 남새밭에서 뽑아넣었던 크지 않은 무우 한개를 그의 작은 손에 쥐여

주었다.

《고마와요.》

나를 빠끔히 올려다보며 말하는 소녀애의 목소리는 가냘팠다. 올려다보는 별스레 긴 속눈썹이 바르르 떠는것 같았다. 녀인도 돌아보았는데 그 눈길은 고마움에 젖어있었다.

《고향이 북쪽인가요?》

녀인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남편이 의용군에 나갔어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남편이 인민군대에 나갔으니 미군놈들이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이 란리에 무작정 북으로 가면 집은 어디 있고 누가 반겨주겠는가.

녀인의 약간 길쭉한 얼굴에 피곤이 한껏 실려있다. 그러나 이 길을 꼭 가내교야말겠다는 결심인지 입은 꼭 앙다물려있었다.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후— 하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도 이 녀인은 자기가 정한 목적지라도 있지만 나는 그 어디에도 갈곳이 없다. 그러니 그보다 나의 처지가 더 가궁하다고 봐야 할것이다.

《엄마, 나 밭 아파.》

소녀애가 또다시 하는 소리이다. 측은했다. 지금껏 자기 마을의 동구밖을 벗어나보지도 못했을 애가 먼길을 밤낮으로 걷자니 오죽하랴.

《자, 나에게 업혀라.》

등을 돌려대고 다짜고짜로 소녀애를 업었다. 그러자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해졌다.

꼭 내 아들 영남이를 업은것 같다. 그도 지금 그 누군가의 등에 업혀 이 길을 가고있을것이다.

하루아침에 집과 아들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이다가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하다싶이 한 나였다.

《아저씨도 평양으로 가나요?》

소녀애의 목소리가 잔등에서 울렸다.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물었다.

《넌 왜 평양으로 가니? 거기 가면 친척이라도 있냐?》

그러자 소녀애는 또 재잘거렸다.

《아니요, 그러나 거기 가면 잘살수 있대요, 집도 있고…》

《누가 그러던?》

《어머니가요. 엄마, 그렇지?》

딸애의 말에 녀인은 고개를 돌리며 나에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나는 그러한 말을 이 길을 걷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었었다. 그럴만도 하다. 오랜 세월 왜놈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고 또 해방은 되었으나 미국놈들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여온 남조선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남녘땅을 해방한 인민군대에 의하여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해보았다. 토지도 분여받고 공장의 주인으로도 되어보았으니 민심이 북으로 쏠리는것은 웅당하다.

길우에 주련이 늘어져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니 나 혼자만이 세월의 흐름에서 밀리운듯 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공감하고 가는 이 길을 나는 갈수 없는것이다.

이미 5년전에 북반부에 죄를 지었던것이다. 나의 운명은 왜 이렇게 모질기만 한지… 자기자신에 대한 고민과 좌절감이 온몸을 휩쌌다.

밋밋한 등성이우에 올라서니 앞에 개성역이 보였다. 해방후에 번듯하게 꾸리였던 흔적은 뚜렷하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폭격에 적탄을 맞았는지 역사는 한쪽벽체만 서있었다. 그래도 내가 해방전에 기관사를 하면서 자주 오고가던 정거장이여선 지 감회가 새로웠다.

반나마 허물어진 건물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의 머리에 북으로 들어가는 열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 정거장에 들어가봅시다. 기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더 갈수 없는 몸이니 이 녀인만이라도 기차를 태워주고싶었다.

잠시 주저하던 녀인은 내가 입은 철도정복을 바라보고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역사를 지나 철길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면서 주변을 얼추 훑어보았으나 철길들은 텅 비어있었다.

하긴 후퇴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미군비행기들이 때없이 날치는 때이니 대낮의 열차운행은 어림도 없을것이다.

그래도 행여나 하여 서성거리는데 앞에서 한 인민군대군관이 우리쪽으로 걸어왔다. 외모가 단정했다. 규칙적인 걸음새, 틀잡힌 몸가짐을 보니 저절로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좀 주저하였으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 북으로 들어가는 열차가 없습니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행렬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녀인은 발가락이 보이는 한쪽신발을 다른 발로 가리켰다.

《없습니다. 힘들지만 걸어야 합니다.》

몰인정하게 느껴지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밤마다 군수열차들이 활발히 움직인다는것을 잘 아는 나였다. 군인에게 동정을 바란것이 어리석은것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잠깐.》

군관은 메고있던 가방에서 자그마한 보자기를 꺼냈다.

《가면서 잡수십시오.》

펼쳐보니 강냉이가루에 남새를 섞어만든 쥬기빵이었다. 그것을 소녀애의 손에 들려주며 나는 그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여 사의를 표시하고 돌아섰다.

《동무.》

몇걸음 옮기는데 그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나는 멈춰섰다.

《기관차를 몰아본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은 철도제복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북과 남의 철도복이 서로 어슷비슷한것이 다행이었다.

《기관사였습니다.》

얼결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까?》

그의 얼굴에 반색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럼 우리를 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말투는 공손하였으나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나는 주뭇거렸다. 신분을 밝힌것을 은근히 후회하였다.

《갑시다.》

어떻게 할것인가.

내가 북반부에 죄를 짓고 남에서 기관사를 했다는것을 그가 안다면, 그렇다고 그의 말에 불응하면 무작정 권총을 빼들지도 모른다.



할수 없지, 운명에 순응하는 수밖에.

기관차의 정비나 보수 같은 소소한 일을 시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소 마음의 위안을 하였다.

역사를 벗어나는 너인과 소녀애를 일별한 나는 한손을 내리굿고나서 러벌러벌 군관을 따라섰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그 군관으로 하여 나의 운명이 그후 어떻게 달라지겠는가를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는 대피선에 서있는 기관차에로 나를 데려갔다.

《이제부터 이 기관차에서 조수로 일하여야 하겠습니까.》

군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기관차에 태우려고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기관사는 이제 올것입니다. 저녁에 출발하겠으니 그때까지 증기압도 올리고 정비도 하면서 떠날 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소.》

다짐하듯 하는 그 말에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어디까지 갑니까?》

나의 물음에 군관은 처음으로 빙긋 웃었다.

《평양으로 갑니다.》

아마 나도 복행길에 오른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군관이 언제 기관차에서 내렸는지도 모르고 한동안 멍히 서있었다. 기관차에 환멸을 느끼고 다시는 기관차를 타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나였다. 그런데 운명의 희롱은 나를 다시 기관차에 올려놓았다. 그것도 인민군대의 군수열차에...

기관차의 증기압도 올리고 정비도 하면서 기관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수면계를 바라보니 물이 얼마 없었다. 이 석탄과 물을 가지고서는 몇정거장을 달리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 역에는 석탄적재장과 급수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나는 피씩 웃었다. 내가 걱정할게 뭐란 말인가. 인민군대의 군수열차가 달리든 멈춰서든 나에게는 상관없이 없는것이다.

한참 땀을 뺀고나서 조수자리에 앉아 숨을 돌리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기관차뒤에 꼼꼼히 위장한 유개화차들이 주련이 매달려있었다. 군수물자들을 실었을것이다. 그런데 고사기관총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바빠 후퇴하다나니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모양이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역구내쪽에서 철도복을 입은 한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이 보였다.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관사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가 기관차에 오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듯 하였다. 해방전에 나의 조수였

으며 지금은 매부이기도 한 청년, 나의 지난날 과거를 잘 알고있는 철범이가 앞에 나타났던것이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 굳어졌다. 세상은 그렇게 넓는데 운명은 우리를 다시 이 좁은 기관차에서 만나게 해주었다.

《출발합시다.》

어느새 기관차에 오른 호송군관의 말에 나도 편뜻 정신을 차렸다.

## 2

해방전에 나는 서흥기관구에서 기관사로 일하였다. 아버지는 읍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 기관사양성소를 다니게 해주었고 돌아오자 기관사로 일하게 하였다.

기관구에서 조선사람기관사는 유독 나 하나였다. 그리고 왜놈기관사말에서 조수로 일하는 철범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왜놈들에게 잃고 집도 없이 외롭게 살고있었는데 어느 하루 몰래 기관차를 몰아보았다고 하여 왜놈들은 그를 류치장에 가두고 반주검이 되도록 때렸다. 며칠만에 놓여나온 그를 나는 성의껏 치료해주고 몸이 회복되자 나의 기관차에 조수로 타게끔 노력해주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하였다. 같은 조선사람이라는 동정심과 기관사라고 하여도 나를 천시하고 멸시하며 하늘땅같은 차별대우를 하는 왜놈들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고마와서인지 철범은 군무가 끝나 우리 집에 오면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주는 등 허드레일을 도와주곤 하였다.

그러다나니 아버지는 물론 서울에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일을 하는 누이동생과도 어느덧 무릅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가 우리 집과 더욱 가까와진것은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때였다. 그때 철범은 자식처럼 호상도 서고 굶은일, 마른일을 모두 맡아하였다.

그후 나는 그가 누이동생을 마음에 두고있다는것을 알아챘으나 모르는척 하였다. 한갓 기관차조수와 서울에서 공부까지 한 누이동생과는 너무도 짝이 기울어 그들의 성례는 될번도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방이 되었다. 해방은 나에게 기쁨과 함께 위구심을 가져다주었다. 이제 서게 될 정권이 일본놈들밑에서 기관사까지 한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어느날 나는 철범에게 나의 마음을 그대로 터놓았다.

그는 해방이 되어 기관구에서 노동자규찰대 대장을 하고있었다.

《철범군, 자네 생각에는 이제 공산당에서 날 어떻게 할것 같나?》

그러자 그는 놀라운듯이 짙은 눈섭을 쫓깃거렸다.

《무슨 소리를 하오? 형님이 비록 왜놈들밑에서 기관사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놈들을 얼마나 미워했소? 그건 우리 기관구가 다 아오.》

《그런데 공산당이 그걸 알아줄가?》

《그건 걱정마오.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비롯한 우리 기관구로동계급이 형님을 보증해나서겠소.》

철범의 말을 듣고나니 나는 한결 숨이 나갔다.

《고맙네, 참 내가 이번 서울승무를 나가있는 동안 우리 집과 누이동생을 좀 잘 봐주게. 나는 자네가 우리 동생을 맘에 두고있다는걸 아네. 그도 자네를 생각하고있고....

그러니 내가 이번 승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잔치를 하자구.》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지킬수가 없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어떻게 조아무개라는자가 알고 나를 찾아왔다. 일본류학때 알고지낸 사이였는데 그때 나는 그와 그닥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손에 모래를 쥐고잡아도 미끄러져나갈 녀석이었지만 그래도 동창이라고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가웠다.

《이게 얼마만이요. 막역지우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는 몹시 기뻐하며 무작정 나를 서울의 어느 고급료정으로 이끌었다.

《어서 가지요. 내 술 한상 내지.》

둘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상준군, 서울에 온김에 여기에 눌러앉으라구. 이제 북에는 과거와 출신을 따지면서 계급투쟁을 하는 공산정권이 서게 되네. 자네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썩둑 한단 말일세.》

그자는 이렇게 말하며 자기의 목을 베는 시늉을 했다.

《그러니 어서 결심하라구. 자네만 동의하면 내 미군정청에 말해서 기관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지.》

그러나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북으로 가야겠네. 거기엔 내 집이 있어. 자네 성의는 고맙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네.》

《집, 집이라, 그건...》

눈알이 게슴츠레하고 희뿌연 긴 상판을 흔들거리

던 그자가 나의 결심을 돌려세우기는 코집이 틀린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약삭바른 웃음을 지었다.

《할수 없지, 그러면 내 말은 없었던것으로 치자구. 그러나 앞으로 후회할 날이 있을걸세.》

그리고나서 오늘은 마음껏 즐기며 접대원에게 또 술을 요구하였다.

《난 그만두겠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그는 짐짓 노여운듯이 성을 냈다.

《정 이러긴가, 친구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니.》

할수없이 나는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후의 일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보니 웅근 반나절이 지난 뒤였다.

황급히 기관구에 돌아오고보니 뜻밖의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조아무개라는자가 나의 기관차를 몰고 도망쳤던것이였다.

망연자실하여 서있는 나에게 그 누군가가 그날 신문을 가져다주었는데 거기에는 내가 북반부에서 기관차를 끌고 남으로 도주하였다고 큰 활자로 써여져있었다.

후에 안데 의하면 그것은 나의 기관차를 빼앗려고 미국놈들과 그 족제비같은 조가가 꾸민 연극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하루아침에 기관차를 잃어버리고 북에서 남으로 도망쳐온 반역자가 되었다. 이제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나는 죄의식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방황하는 나그네신세가 되었다.

남쪽에서의 5년세월, 나는 어쩌서 나의 운명이 그렇게 불우한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기관차를 잃어버리고 여러날이 지나 가까스로 통산기관구에 취직은 하였지만 그것은 기관사가 아니라 기관차에 석탄을 싣는 석탄운반공이였다. 하루종일 지게를 지고 발판을 오르내리거나면 온몸이 땅에 잦아드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판이였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누이동생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으며 철범은 기관사가 되었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때의 처지에서는 어쩔수 없는 행동이였다고 애써 자신을 위안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나는 퇴근길에 역구내의 하수도구멍에 빠져 사경에 처한 한 처녀를 구원하여 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팔자를 고치

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기관주임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석탄운반공으로부터 기관사로 승급하였다.

6개월 후에는 그 처녀와 결혼하였는데 그의 성격이 데면데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화목하였다. 그도 그렇지만 나도 그가 생명의 은인이니 서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자그마한 집도 생겼다. 안해는 아들을 낳았고 나는 집처마에 비둘기장을 매달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어느날 저녁 기관차정비를 하던 나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주임(가시아버지)을 보았다.

반정신이 나간것 같았다.

《야 영남이 애비야, 빨리빨리...》

나는 기관차에서 뛰어내렸다.

《왜 그래요?》

《저기 7번선철길에서... 네 처가...》

동당지 않는 말을 들으며 나는 어리둥절했다. 방금전에 저녁밥을 싸가지고 나왔던 안해였다.

《뭘 멍청하니 서있느냐. 빨리 가서...》

영문도 모르면서 뛰어갔다.

철길우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 가운데 옷을 갈가리 찢기운 안해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다.

숨이 킁 막혔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렬차를 타고가던 미국놈들이 정차시간에 자네 안해를 통욕하고 이렇게 내버린채 달아났네.》

누군가가 하는 말에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놈들이... 그놈들이 어디 있소?》

텅 빈 철길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영남이 아버지.》

안해가 겨우 눈을 떴다. 두손으로 머리를 받들니 피가 질척하다. 반항하는 그를 총탁으로 내려친것 같았다.

《미국놈들이... 미국놈들을...》

이 말을 남기고 안해는 머리를 떨구었다.

아아아, 나는 시뻘건 두손을 쳐들고 몸부림을 쳤다.

나의 운명을, 우리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미국놈들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짝 찼다. 또한 어리석고 미련하여 고향에 있는 자기의 정든 집을 잃어버린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동시에 온몸을 휩쌌다.

안해가 죽은지 두달만에 전쟁이 터졌다. 아들을 옆집녀인에게 맡기고 몸을 피했던 나는 천신만고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아들을 만날수 없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었던것이다. 내

가 서울에 도착하기 하루전에 미군비행기들의 폭격을 받아 마을이 모두 불탔다고 한다. 그때 옆집녀인은 죽고 불속에서 울고있는 우리 아들을 후퇴하던 인민군대가 구원하여주었다고 한다. 그들이 업고가는걸 봤다는 사람이 있을뿐이었다.

안해는 죽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이때에야 비로소 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집이 얼마나 소중한과 귀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집, 그것은 인간의 보금자리이고 요람이다. 정답고 포근한 그 품에서만 자기의 삶을 참되게 빛낼수 있는것이다.

자칫 잘못하여 그 품을 잃으면 벌써 그 생명은 죽은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나는 불타버린 집자리에 주저앉아 주위를 망각하여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득 무너진 벽체잠에서 애처로운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벽돌장들을 헤치고 조심히 비둘기를 안아들었다.

《비둘기야, 우리가 편히 살 집은 그 어디에도 없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손에 들린 비둘기의 잔등을 몇번이나 쓸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도 없이 두손을 높이 들어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버렸다.

나의 두볼로는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후 나는 아들을 찾아 북행길에 올랐다.

### 3

개성역에서 떠난 우리 열차는 리현역에서 멈춰섰다. 석탄과 물을 보충해야 했던것이다. 기껏 두 정거장을 온셈이다.

나는 여기도 적비행기의 맹폭격을 받았다는것을 알았다. 석탄적재장과 급수탑은 형체도 알아볼수 없게 파괴되어있었다. 송수관이 터졌는지 온 역구내가 물바다였다.

우뚝 솟아있던 저쪽석탄적재장자리에는 길다란 L형강의 쇠불이가 엇가락처럼 꼬여 달빛아래 머리를 수그리고 서있었다. 그 주변에서는 아직도 시커먼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올랐다.

나는 역사앞의 허리가 뭉텅 잘리운 커다란 느티나무기둥에 어깨를 기대었다. 한쪽에 붙어있는 가는 가지끝에서 찌르러기 한마리가 찌룩, 찌룩 하고

궁상맞게 울었다.

《서흥, 황주의 급수장들도 모두 파괴되었다구? 가만, 렬차사령동무, 거 기관차대사령을 좀 바꿔 주시오.》

운전실쪽에서 철범의 목소리가 찌르러기소리를 누르며 들려왔다

후- 나는 한숨인지 안도의 숨인지 모를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군수렬차는 더 갈수 없다. 석탄과 물이 없는 기관차는 쇠덩어리와 같은것이다.

철범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기관사가 군수렬차를 도중에 세워놓았으니 군법을 어긴셈이다. 아마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유난히 밝다. 쟁반같은 둥근달은 유유히 헤엄치는데 못별들은 못 박힌듯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모른다. 아마 저 별들도 우리처럼 발목을 잡힌 모양이다.

저벽, 저벽, 역구내의 물을 건너차며 누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철범이라는것을 알아보자 나는 고목에서 허리를 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나?》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동정을 담아 물었다.

《어떻게 하다니?》

달빛아래 마주선 철범의 눈이 번쩍었다.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렬차를 목적지까지 무조건 물고가야 하오.》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손달구지나 자동차라고 끌고가겠는가.

고집스러워보이는 그의 눈빛을 외면하며 나는 통명스레 말했다.

《마음대로 하게. 난 가겠네.》

기관차가 죽었으니 내가 여기에서 할일은 없는 것이다. 몇발자국 옮기는데 철범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디로 간다는거요?》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의 말이 등뒤에서가 아니라 머리우에서 울리는것 같았다.

정말 어디로 가겠는가?

남에도 북에도 갈데가 없는 나였다. 마치 벼락을 맞았을 때처럼 온몸이 나른해왔다.

철범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형님은 지금까지 방황하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소?》

그가 천천히 나의 곁으로 다가왔다.

《형님이 미국놈들때문에 집과 안해를 잃었다는걸 아오. 그리고 아들을 찾아 방황하고있다는것

도. ... 룡산기관구에 들러 앉았소.》

철범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코마루가 시큰해졌다. 그러니 나의 생사여부를 알려고 애썼구나. 자석에 끌리듯 그에게로 돌아섰다

《우리 아들 소식을 아나?》

《아니, 모르오. 하지만 인민군대가 구원해주었다니 그는 분명 육아원에 갔을거요.》

《육아원?》

《그렇소, 나라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해 그런 집들을 지어주었소.》

꿈같은 소리였다.

《그게 어디 있나?》

다급히 물었다.

《온 나라 여러곳에 있소. 평양에 가면 아들소식을 알거요.》

그의 말에 새까맣게 재만 남았던 나의 가슴에서 한점의 불꽃이 확 피었다.

아들이 살아있다, 평양에 가면 만날수 있다.

《누이동생은 잘있나? 집은 ...》

《집은 형님이 살던 그때 그대로요. 그런데 누이동생이 오빠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줄 아오? 5년동안을 말ियो. 지금도 가마에 파끈한 밥과 국을 넣어두고 동구밖에 나와 서있을거요.》

순간 센 술을 마셨을 때처럼 온몸이 훈훈해졌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날 용서할가. 내 과거야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철범은 나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형님두 참, 육중한 기관차를 다루던 기관사가 지금은 졸장부가 되었군요. 그 사건이 형님의 본의가 아니었다는걸 우린 다 아오. 뭐라고 하든 우린 형님을 믿소. 기관구로동계급이 뭐 어제날의 사람들인줄 아오?》

철범은 소리내어 웃었다.

문득 일본에 있을 때 본 외국미술가의 그림이 떠올랐다. 제목이 《불효자식 돌아오다》였던지.

그때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자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눈빛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그런 눈길로 맞아주겠는가.

《아니, 나는 집으로 갈수 없네.》

나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어깨에서 그의 손을 내리웠다.

이때 웅성웅성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군인들과 인민들, 철도일꾼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이 보였다. 내가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하는데 철범이 그들앞에 나섰다.

《여러분들의 복행길을 지체시켜 미안합니다. 기관차에 석탄과 물이 떨어졌는데 석탄적재장과 급수탑은 파괴되었지, 그래서...》

그러니 철범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것이다.

모여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였다.

《이 전쟁을 이기려고 열차를 몰아가는데 우리가 응당 도와야지.》

《빨리 석탄과 물을 실읍시다.》

《고맙습니다.》

철범이 하는 말이였다.

《그럼 질통을 가진 사람들은 석탄을 나르고 물통을 든 사람들은 물을 길어주십시오.》

나는 철범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가 분명 5년전에 나의 조수로 일하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놈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가 몇년어간에 너무도 판 모습으로 나타났던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기관차쪽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앞에서 《소대장동지.》하는 웨침소리가 들렸다.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상등병(당시)견장을 단 애어린 병사가 군수열차를 지키며 서있는 호송군관에게로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접니다. 〈백두산〉 시를 읊어 소대장동지의 치하를 받은...》

《아, 3분대꼬마.》

군관이 탄성을 올렸다.

《어떻게 여기에 불쑥 나타났나?》

《후퇴하는 길입니다.》

아마 호송군관이 데리고있던 옛 전사일것이다.

《그런데 소대동무들은...》

호송군관의 물음에 전사는 인차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뿔거렸다.

《많은 전우들이... 락동강전투에서...》

전사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두툼한 책같은것을 꺼냈다.

《이게 뭐요?》

《소대동무들이 째째이 채집한 식물표본입니다.》

잠시후 전사는 무슨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린듯이 서있는 군관의 두눈에서 달빛이 어린 물기를 보았다.

기관차로 돌아와 증기압을 올리면서도 나는 한동안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 준엄한 때에 식물표본이라니...

기관차에 석탄과 물을 실는 일은 새벽이 다되어서야 끝났다.

어쩔수없이 우리는 날이 밝아서 열차를 몰아가야 하였다. 철범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뭘라구? 그건 안되네.》

대낮에 대피장소도 차굴도 없는 구간을 달리다니. 그것은 미국놈비행기에 군수열차를 통채로 내맡기는 무모한 행동이였다.

《다른 길은 없지 않소?》

철범이 하는 말이였다.

《지금 평양에서는 무기와 탄약을 실은 우리 열차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소.》

나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목숨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길이네.》

나는 고개를 돌려 이제 열차가 달려야 할 철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새벽의 려명속에 길게 뻗은 레루장들이 시뻘겋게 보였다. 마치 앞서간 열차가 피를 흘리며 달려간것 같았다.

《형님이 왜 지금껏 불행한 류량자의 설움을 겪어야 했는지 아오? 진정한 자기 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요. 집은 운명이요.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소. 그런데 이제는 제 나라가 있고 지금은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이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소?》

집은 운명이다. 철범의 말이 나의 가슴을 쿵 울렸다.

문득 까치등지를 털려고 나무우에 올라갔던 어릴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까치들이 얼마나 영악스레 덤벼들었던지 나는 더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보잘것 없는 새들도 제 등지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는가?...

《중위동지, 사령대에서 5분간만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평양까지의 모든 역들을 다 개통시켜놓겠다고 합니다.》

역운전실에 갔던 철범이 기관차에 오르며 하는 말이였다.

그는 좀 흥분한것 같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여기서 평양까지는 200km가 넘는다. 도중역들의 석탄적재장과 급수탑들이 파괴된 조건에서 이 석탄과 물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기관차가 한번의 멈춤도 없이 최대속력으로 달려야 했다. 내가 알기에는 이런 열차운행은 단 한번도 없었다.

철범은 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 두툼하게 말아 호송군관에게 내밀었다.

《아니, 피우지 않습니다.》



군관은 사양하였다.

철범은 나에게도 담배를 권하고는 껍삼으로 화실의 불뿔이를 꺼내 불을 붙인 다음 맛갈스럽게 들이켰다.

《중위동지는 전쟁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정적을 깨치며 철범이 물었다.

이제 가야 할 험난한 길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것이 험등하게 알렸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였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군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이는 스무서너살쯤 되어보였다.

타고난 군인이라고만 생각해온 그가 학생이였다니, 그러고보니 진취적인 두눈이 더 웅심깊어보였다.

《나는 그때 꿈이 컸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우리 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다 연구하리라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러니 식물학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예.》

나는 밝은 교실에 앉아 강의를 받는 그를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우리에게 식물학을 배워주던 선생이 처녀였는데 얼마나 요구성이 높았던지... 밤을 새워가며 해도 못다할 과제를 주고서는 그 다음날에 꼭꼭 받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녀선생에게 <따벌> 이라는 애칭까지 달아주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허우대도 큰 그가 차렷자세로 처녀선생에게 꾸지람을 듣는 장면을 상상해보았다.

《우리가 군복을 입었을 때도 그 선생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갖가지 식물표본을 백여개씩 해오라는것입니다.》

《예-》

철범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길게 하였다.

《그때 따벌처럼 생각되던 선생님이 지금은 우리 모교의 전부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어 자기도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고 궁지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해방전에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던 광부였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김일성종합대학까지 다니었으니 인생의 제일밑바닥에서 최고절정에 오른셈이다.

군관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들었다. 나는 그것이 었저녁 상등병병사가 그에게 준것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전선에서 싸우던 내가 조동되기 전에 소대원들

에게 그 처녀교원에 대하여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식물표본을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동무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락동강 전투에서 많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표본 하나하나가 소대원들의 모습으로 떠올라 가슴이 미여집니다.》

그의 마음이 리해되였다. 소대원들모두가 자기 집,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조국을 두번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목숨 바치였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는데 군관이 문득 물었다.

《기관사동지는 지금 아들도 잃고 방황하고있지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철범동무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번 승무만 끝나면 꼭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두 반가이 맞아줄겁니다.》

그러니 이 군관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것이다.

집은 운명이라던 철범의 말이 다시금 뇌리를 쳤다.

이때 기관차벽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희석희석한 조역이 통표휴대기(출발을 알리는 신호기)를 올려주며 말하였다.

《자, 어서 떠나오. 평양까지 모든 역의 철길이다 열렸소.》

우리들은 급히 자기자리들을 차지하였다.

《평양까지 최대속도로! 출발.》

기관차는 길게 기적을 울렸다...

렬차는 금천역을 지나 한포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이제는 저 멀리의 산발들이 자기의 자태를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아마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빠른 렬차를 탔다면 비행기에 올랐을 때처럼 즐거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즉흥적인 기분에 잠겨있을 경황이 못되였다.

나는 증기압을 최대로 올리기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어느 순간에 적비행기가 불쑥 나타날가봐 속이 조마조마해있었다. 그래서인지 5키로그람은 실히 담길 커다란 껍삼으로 련속 석탄을 퍼넣었다.

철범은 가감변과 당기기내기를 하는듯 하며 연방 하늘을 쳐다보곤 하였다. 그의 얼굴에도 땀이 질퍽하였다.

《힘들지요?》

기관차지붕우에서 하늘과 렬차를 감시하던 호송

군관이 어느새 내옆에 다가와 하는 말이였다. 나는 눈앞에 어룡거리는 땀방울을 팔소매로 문대며 썩 웃어보였다.

그를 만난지는 기껏 하루도 안되었지만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사람으로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는 자기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하였다. 그러다가 철범이 한쪽눈을 깜빡해서야 그에게 손을 넘겨주었다.

《화실벽을 따라가며 석탄을 끌고루 뿌려야 증기가 잘 오릅니다.》

나는 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미래의 식물학자에게 제법 혼시질을 하였다.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니 시원한 바람이 확 안겨들었다. 옆의 전주들이 길게 누워 마치 금을 그은듯이 보였다. 기를 쓰고 따라오던 저 멀리의 산발들도 우리와의 달리기경쟁에서 포기한 듯이 한자리에 주저앉아 다리섬을 하고있다.

달그락, 달달그락, 페루의 이음짚을 지나는 차바퀴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긴장하게 기관차를 몰아가는 철범과 서툰 솜씨로 화실에 석탄을 퍼넣는 호송군관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들은 모두 왜놈들에게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집을 갖고 자기의 조국에서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다. 그런데 나는 제 집, 제 나라를 찾지 못해 지금껏 인생을 방황하였다. 값없이 살아온 지난날을 되새겨볼수록 돌로 굳어져버리고싶은 심정이였다. 이런 자책과 함께 마음속에 정든 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강렬하게 자리잡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차는 기세 좋게 달렸다.

## 5

열차는 누런 벼이삭 설레이는 논밭을 옆에 끼고 달리고있었다. 한껏 숨을 들이키니 구수한 난알향이 폐부를 찌른다. 그러자 해방된 제 나라, 제 땅에서 맘껏 농사를 짓고 쟁파리를 두드리며 춤을 추고 덩실덩실 기뻐하였을 농민들의 얼굴들이 환히 떠올랐다.

문득 논관우에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저게 무엇인가. 내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적기다.》하는 철범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연 적비행기 4대가 머리 위에 떠있었다.

그것은 경폭격기 《그라망》이였다.

나는 저놈의 비행기를 잘 안다. 하늘우에 몇시간이라도 떠있으면서 대상물들을 악착스레 폭격하는 놈들이다. 화실에 석탄을 퍼넣으면서 나는 속이 한 줌만 해있었다. 허허벌판에서 적기에게 발견되었으니 칼도마우의 도미신세였다.

잠시 우리 머리위를 빙빙 돌던 적기가 드디어 내리꽂히며 뚜루룩하고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기관차의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졌다. 폭풍이 확 기관실에 몰려들며 화약내가 코를 찔렀다.

두번째 적기가 내리꽂혔다. 석탄무지에 펍펍하며 기총탄알들이 박혔다.

기관차지붕우에서 호송군관의 기관단총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맞받아쏘는 모양이였다.

석탄을 퍼넣으려던 나는 삽우에서 노란 총탄을 보고 흠칫 몸을 떨었다. 우리가 무사히 갈수 있을가 하는 우려가 순식간에 나의 머리를 쳤다. 공포 비슷한것이 온몸을 휩쌌다.

세번째 적기가 내리꽂히는 소리가 별스레 크게 들렸다.

호송군관은 탄수차우에서 자기를 드러낸채 적비행기에 총탄을 퍼붓고있었다.

《중위동지, 불입니다.》

철범의 웨침에 나는 삽을 던지고 창문에 매달려 기관차뒤의 화차들을 바라보았다. 맨뒤쪽에서부터 두번째인지, 세번째인지 화차지붕우에 불이 붙고있었다. 불길은 점점 크게 번져가고있었다.

나는 석탄무지우로 엉금엉금 기어올라갔다.

《어찌자는겁니까?》

군관이 나의 옷자락을 짹 잡는 바람에 고개를 돌렸다.

《제가 불붙는 화차를 떼어버리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열차가 위험합니다.》

《그럼 거기에 실은 무기와 탄약들은...》

나는 주춤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빨리 자기 위치로!》

호송군관은 나를 석탄무지우에서 굴러뜨렸다. 그리고 자기는 화차지붕우를 건너 불붙는 화차쪽으로 달려갔다. 불을 끄려는것이였다.

어쩔수없이 기관실로 돌아온 나는 드세게 삽질을 하여 증기압을 최대로 올리면서도 자주 창밖을 내다보곤 하였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 그우에 먹이를 본 까마귀떼처럼 날뛰는 적비행기, 화차지붕우에서 타래쳐 오르는 검은 연기, 작렬하는 폭탄, 그속에서 불사신이 되어 불을 끄는 호송군관...

《앗.》 다시 그쪽을 바라보던 나는 창문틀을 짹

그러줘였다.

호송군관이 한쪽무릎을 꿇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다. 기총탄에 맞은게 분명하였다.

나는 철범에게 달려가 가감변을 켜 그의 손을 무작정 그러줘였다.

《당장 세우오, 호송군관이...》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에서 불이 뿜어져나왔다.

《왜 그러나. 철차를 세우면 내가 그를... 그를...》

애원에 가까운 말투로 사정하да싶이 하였다. 그러나 철범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이 없다.

《철차는 세울수 없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 가서... 빨리...》

나는 책 돌아서서 호송군관에게로 달려갔다. 두꺼운 나무로 되어있는 화차지붕우에 기총탄알들이 폭폭 박혔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파리소리만큼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섭게 달려갔다.

불길은 이미 꺼져있었다. 군관은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었다. 급히 혁띠로 졸라맸으나 피는 계속 흘러내렸다.

내가 잔등을 돌려대고 돌쳐업으려고 하자 그는 만류했다.

《그만두시오. 화차사이를 어떻게 건느겠습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나서 그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다.

《평양에 가면 반드시 아들을 만나게 될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등을 밀었다.

《어서빨리 가시오. 기관사에게 절대로 철차의 속도를 늦추면 안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갈수 없었다. 그를 남겨두고 어떻게 간단 말인가.

머뭇거리는 나에게 그는 명령조로 이렇게 소리쳤다.

《가시오, 빨리... 이 길이 바로 자기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의 말이 나의 심금을 울리었다. 그는 지금껏 나의 운명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한 모양이다.

나는 황황 불타는듯 한 그의 두눈에서 나의 지난날을 모두 용서하는듯 한 자애로운 빛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기관차에로 돌아왔다.

《저걸 보십시오.》

화실에 석탄을 퍼넣던 나는 철범의 말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려쫓히던 적기 한대가 기우뚱거리고있었다. 호송군관의 명중탄에 얻어맞은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그대로 땅에 곤두박치고말았다.

적기들은 더 악착스레 달려들었다. 낮추 급강하는 하지 못하고 높이 떠서 마구 폭탄을 떨어주었다.

기관차의 앞뒤를 살피던 나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물탱크에 구멍이 뚫려 물이 팔팔 쏟아져나오고있었다. 피같은 물이었다.

물탱크에 매달려있는 좁은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다급히 비상함에서 나무췌기와 망치를 찾아들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내가 물탱크에 오르려는데 어느새 철범이 다가와 공구들을 뺏어들었다.

《이 기관차의 구조는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는 물탱크에 오르며 소리쳤다.

《최대속력으로 기관차를 모시오.》

그러나 나에게 기관차의 운전을 맡기고 자기가 물구멍을 틀어막으려는것이였다.

어쩔사이없이 순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나는 기관사자리에 앉아 가감변을 억세게 틀어쥐었다. 주변에서 폭탄이 터지고 아츠러운 비행기소리가 귀전을 때렸으나 끄떡없이 기관차를 몰아갔다. 물탱크벽에 있는 좁은 사다리에 붙어 물구멍을 틀어막는 철범의 망치질소리가 폭탄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려왔다.

망치질소리, 미국놈비행기소리, 힘차게 달리는 철차의 동음소리...

어느덧 철차는 긴등고개를 넘어서고있었다.

이때 기관실에 들어서던 철범이 비칠거렸다.

나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고 가슴을 헤쳤다. 거기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참, 일도 맹랑하게 되였군. 평양에 거의다 왔는데...》

《좀 참소, 내 이제...》

나는 두서없이 말하며 내의를 찢어 상처를 처치했다. 그의 얼굴이 별스레 하얗게 보였다. 아픔을 참느라고 두툼한 입술을 짹 깨물었는데 거기에서도 피가 흘렀다.

《전 일없습니다. 계기들을 좀 보십시오.》

《증기13, 물1부, 속도90...》

눈물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는 찻찻한것을 삼키며 말하였다.

《마지막속력을 내야 합니다.》

철범은 손을 뻗쳐 가감변을 쥐였으나 당기지는

못하였다. 기력이 진해진 모양이었다. 그의 손을  
덜싸고 나는 힘껏 가감변을 당겼다.

중화역부근에 들어서자 평양을 보위하는 인민군  
대의 고사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그때야 적기들은 황황히 줄행랑을 놓았다.

화차우를 바라보니 방금전까지 적기를 향해 총을  
겨누던 호송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마 그는 나  
를 떠나보낼 때 이미 비장한 결심을 하였을것이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미국놈들을 쳐부시고 정다운 대학정문에 들어서  
서 마중나온 처녀교원에게 파제로 내여준 식물표본  
책을 내보이는 그날을 그려보았는지 모른다. 아니  
면 해빛밝은 교실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동무들과  
얼싸안은 광경을 상상하였을수도 있다.

내가 주수기를 동작시켰으나 썩- 하는 소리만  
들릴뿐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철범이, 물이 떨어졌소.》

그러나 그의 얼굴은 혼연하였다.

《일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막이니까요.》

이렇게 말한 철범은 품속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  
내들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나에게 고개를 돌  
렸다.

《우리 아들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집으로 돌아  
가면 진철이 어머니가 몹시 반가워할거요.》

나는 사진을 받아들였다. 우리 집을 배경으로 누  
이동생과 꼭 나를 닮은것 같은 조카가 행복에 겨  
워 웃고있다.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사진우에 떨어지는 눈물  
방울을 손바닥으로 문대며 나도 그들과 같이 웃  
었다.

이제는 물도 증기도 다 떨어졌다. 내가 기적변을  
당겼으나 기관차는 기적도 울리지 못한다. 저앞에

평양역의 열린 신호기가 보였다.

《평양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철범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  
가 어렸다.

《드디어 왔군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다.

《철범이.》

의식을 잃은 그를 부둥켜안고 나는 몸부림쳤다.  
아마 기적소리를 대신하여 나의 목소리가 저 평  
양하늘가에 울려갔을것이다.

렬차는 서서히 평양역에 들어섰다. 내가 제동변  
을 돌렸으나 사실 렬차는 저절로 멈추어섰다.

우리를 마중하기 위하여 인민군군인들이 구내에  
나와있었다. 몇몇 군인들이 기관차에 올랐다. 나  
는 그들에게 호송군관이 있는 화차우를 가리켜보  
였다.

평양역홈에 두개의 담가가 놓여졌다.

호송군관의 머리옆에 두툼한 봉투가 있었는데 그  
것은 피에 젖어있었다. 나는 겉봉에 씌여진 《리정  
철》이라는 이름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나는 평양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에서  
비둘기 한마리가 자유롭게 날아오고있다. 꼭 내  
가 남에서 날려보낸 비둘기같다. 이윽도록 바라  
보고 있는데 또 한마리의 비둘기가 보인다. 그것  
은 분명 평양길에 올랐던 소녀애가 들고있던 비  
둘기였다.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평양으로 왔구나.》

해빛에 두눈을 쏘프리며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들에게로 인민군대군관 몇명이 다가왔다. 그  
들은 나와 담가에 누워있는 철범이, 호송군관을 이  
윽도록 바라보더니 엄숙히 거수경례를 하는것이였  
다. 그것은 조국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인사였다.

## 승 전 비

박 정 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이 행성에서 미제를 통채로 뽑아내치듯  
굴착기삽날에 떠실린 가련한 미제의 물골  
오! 녹슨 미국제포탄까지

이렇게 우리는 폭발물들과 그 잔해들을  
이 행성에서 미제를 영영 없애듯  
이렇게 우리는 폭탄이 숨어있던 자리마다  
세운다 발전소와 만년대계창조물들

미제는 오산했다

조선은 백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허나 우리는 그 망상의 백년을 무덤속에 처넣고  
이 땅우에 천만년 행복의 성새를 세우거니

끝없이 태어나고태어나는 창조물들은  
련전련승 반미대결전의 승전비  
이제 조선은 력사에 우뚝 솟아 빛나라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기념비로!

## 언제우에서 외 2편

김 경 석

성미 급한 강줄기를 가로지른채  
엄엄히도 솟아오른 언제우  
마지막휘틀에 쏟아지는  
혼합물을 다지는 기꺼움이여

아득한 저아래 발전기실  
나사못 조이는 조립공들 웃음소리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려오고  
언제아래 푸르싱싱 나무를 옮겨심는  
돌격대치녀들도 성수났구나

강추위도 폭우도 휘어잡으며  
한치 또 한치  
타입공 우리가 다져올린 이 언제  
건설장전역에 차고넘치는  
가슴벅찬 환희를 안아온 이 언제

누구나 눈앞에 그려보리라  
이끌저끌에서 흘러온 물줄기들을

송두리채 모아안은 이 언제아래  
푸르른 호수엔 옥실대는 물고기떼  
추너높은 휴양각이 그림처럼 비낀 호수우에  
꽃잎같은 뽀트들  
집집마다 일터마다 기쁨을 더해줄 열과 빛

강성번영 펼쳐가는 조국에  
더 많이 보내줄 전기를 위해  
례성강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우리  
조립공 혼합공모두의 열망을  
언제로 다져온 타입공의 이 보람을 떠나  
멋쟁이발전소를 생각할수 있으랴

오, 천하제일강국으로  
세계앞에 빛을 뿌릴 나의 조국에  
우리는 다름아닌 언제타입공  
이 땅의 하많은 강의 흐름을  
전기의 흐름으로 바꿔놓으며  
한생을 이렇게만 즐기치게 이어가리라

## 새 노래

완공을 앞에 둔 발전소의 기쁨신고  
줄줄이 늘어지는 은빛송전선  
푸르른 하늘을 바탕 삼으니  
새 노래 씌어질 오선지런듯

윙-윙 돌고도는 발전기타빈소린  
도레미화... 어느 음일가  
글쎄 그쫘한건 어렵지 않다 해도  
그 소리가 일으킬 갖가지 음향이아

도시로 그리고 고향으로 일터로  
아낌없이 달음쳐갈 불빛의 아름다움  
생산의 동음속에 곳곳에서 높아질  
웃음소리 노래소리 어찌 다 새길가

한꺼번엔 도무지 다 담을수 없는  
행복의 음향들을 실어나를 송전선아  
새겨도 새겨도 끝이 없을 그 소리  
발전소가 연주하는 새 노래 아니냐

## 장석을 쌓으며

한돌기 또 한돌기  
언제에 만년갑옷을 입혀가는  
이 돌 하나하나 묵직해서 좋다

한치 또 한치  
귀맞춰 쌓아가는  
이 돌 하나하나 두툼해서 좋다

발전소건설자 아니라면  
보고도 무심히 지나쳤을 돌

보물처럼 네귀 맞춰 쌓아가는 장석이여

언제와 더불어 모아잡는 물  
그대로 전기여서 불이여서 힘이여서  
한방울도 새지 않게 쌓아가는 언제의 갑옷

돌과 함께 쌓이는 이 마음 이 진정  
천년만년 행복을 담보하는 성새처럼  
제자리 고이 지켜 드놀지 않으리라



## 작가 엄홍섭의 해방전 창작생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우리 나라 현대문학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새긴 재능있는 작가들 가운데는 농민들의 의식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을 발표하고 일약 프로레타리아소설가로 등장한 작가 엄홍섭도 있다.

1906년 9월 경상남도 진주시의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엄홍섭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모진 고생을 다 겪으며 작가로 성장하였다.

그의 창작활동은 1927년 단편소설 《국밥》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엄홍섭은 1929년에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을 잡지 《조선지광》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자기의 존재를 확고히 드러냈다. 그후부터 그는 사회현실의 모순을 예리하게 발가농고 근로인민대중의 항거정신을 뚜렷하게 반영한 소설작품들을 많이 창작 발표하였다. 장편소설 《봉화》(1940)와 중편소설 《정열기》(1937), 《명암보》(1938), 단편소설들인 《아버지소식》(1938), 《가책》(1935), 《출범전후》(1930), 《꿈과 현실》(1930), 《길》(1936) 등 해방전 그가 창작발표한 작품들 가운데는 장편 11편, 중편 2편, 단편이 80여편이나 되며 그 밖에도 수필, 평론 등이 있다.

해방전 엄홍섭의 창작생활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로동자, 농민, 지식인 특히 교육자들의 생활을 그린 소설들을 많이 창작한것이다.

농민들의 대중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그린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 어민들의 대중투쟁을 형상한 《출범전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교육자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 《아버지소식》 등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며 작품에 그려진 생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인물군상속에서도 그는 항상 교육자들을 그리는데 관심을 돌리고 교육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해방전 교육자를 그린 대표작들은 대부분이 엄홍섭이 창작한것이다. 중편소설 《정열기》, 《명암보》의 김영세, 단편소설 《아

버지소식》에서 영재의 아버지와 선생님, 《가책》의 권선생 등 그의 작품들의 주인공들중에는 진보적인 지향과 리상을 지니고 투쟁하는 교육자들이 많다.

해방전 엄홍섭의 창작생활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식민지착취사회현실에 대한 항거정신이 뚜렷하며 고난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기세로 싸워나가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형상한것이다. 이것은 그가 진보적인 세계관과 미학관을 지니고있었던것과 관련된다. 그의 세계관과 미학관은 1935년에 《조선일보》에 발표한 평론 《올해년의 창작결산, 조선작가는 어디로》에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평론에서 그는 《카프》해산후 저조해진 문단의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까밝히고 그 원인을 일체의 악랄한 탄압에서 찾았다. 그리고 일체의 탄압앞에 겁을 먹고 주저앉은 배신자들과 변절자들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진보적인 문학은 주저앉지 말고 자기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조건에서도 미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가지며 량심과 지조를 견결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을 창조할것을 문단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그는 이 시대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량심과 지조를 지켜나가는 인간을 찬미한 현실주체소설, 일신의 향락에 눈이 어두운자들을 조소한 풍자소설, 민족의 일을 깨우쳐 주고 력사적과거에 비추어 오늘과 래일을 내다볼 줄 알게 하는 력사소설 등을 창작할데 대하여서도 주장하였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 량심과 지조를 지켜가는 인간의 형상을 창조한 진보적소설을 대표하는 성과작들도 련속 내놓았다. 동맹휴학과 파업투쟁을 지도하고 지하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한 인간에 대한 찬양의 감정을 아버지를 그리는 어린 딸 영재의 시점에서 생활적으로 특색있게 보여준 단편소설 《아버지소식》, 경찰의 집요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운동을 계속해나가는 선진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그린 《가책》, 무산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육자들의 형상을 창조한 중편소설 《정열기》, 《명암보》 등 그의 작품들에는 언제나 뚜렷한 항거정신과 미래에 대한 지향세계가 명백하게 제시되고있다.

해방전 엄홍섭의 창작생활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계급의식이 뚜렷하게 구현되고 거기에 반일의식

이 결합된 작품들을 창작한것이다. 그것은 그의 작품들에서 착취자들이 친일분자들로 형상되어있으며 특히 능란한 형상수법으로 일제식민지통치현실에 맞서 굴함없이 싸우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창조한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단편소설 《홀려간 마을》에서는 백만장자이며 도평의원인 지주 최병식을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일떠선 농민들의 대중적투쟁모습을 그리고있다.

그리고 《출범전후》는 일제에게 어장을 빼앗기고 어업회사의 고용노동자가 되어 땀과 피, 목숨과 정조까지 빼앗기던 어민들이 쌓이고쌓인 분노를 무섭게 폭발시켜 일제의 어업회사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에 일떠선 모습을 그리고있다.

## 자 료

# 쑨베르소설가 아. 이와노브와

##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

쑨베르시대의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찬양으로 특징지어지는 아. 이와노브(1928~ )의 창작은 로씨야쑨베르문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일명 씨비리작가로 불리우는 아나톨리 스페빠노비치 이와노브는 1928년 동부까자흐스탄주의 쉐모나이하에서 태어났다.

작가는 까자흐스탄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세미팔라틴스크시신문인 《쁘리이르찌슈카야쁘라우다》에 취직하였다. 그는 이 신문사에서 1년 일하고 붉은군대에 초모되어 군사복무를 하였다.

그는 군대에서 초기에 전사로 복무하다가 군대신문에 몇건의 기사를 투고하여 발표된것이 계기로 되어 그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다.

제대된 후 노보씨비르스크주신문사에서 편집원의 직무를 권고하자 그것을 승낙하였다.

후날 작가는 이때의 일을 두고 자기의 선택과 선택의 기회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글을 남긴바 있다. 한것은 그곳에서의 기자생활이 그에게 장편소설을 창작하는데 아주 유익한 체험과 많은 시간을 주었기때문이며 그 나날에 그가 기자의 직업정신을 깨닫게 되었기때문이다.

오래동안 기자생활을 한 아. 이와노브에게 있어서 기자의 직업정신은 소설창작에도 독특하게 구현되어 남다른 창작적개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아. 이와노브는 자기의 기자생활과 창작생활을 회상하면서 《작가는 신문을 써보아야 한다.》는 유명한 말도 남기였고 기자는 생활과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사소한 현상과 사변에서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도출할줄 아는 능력, 임의의 시각에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려는 신념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명한바 있다.

일제가 진보적경향의 작품들, 특히 반일경향의 작품창작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던 조건속에서도 반일의식이 뚜렷한 작품들을 발표한것으로 하여 엄홍섭은 진보적인 작가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뚜렷이 차지하고있다.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사회력사적조건과 작가들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본질적이며 절실한 문제들을 제대로 형상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이 시기 우리 나라 현실과 인민들의 사상감정, 우리 문학의 창조발전정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지 선 아

신문사 기자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 이와노브는 신문사에서 얼마간 일하다가 생애의 많은 기간을 역시 출판부문의 기자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렸다.

그는 이 나날에 자기 창작의 력작으로 되는 장편소설 《그림자는 정오에 사라진다》(1963), 《영원한 부름》(1부 1970, 2부 1976) 등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빛내여 나가자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체득할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키는것을 도덕적의무로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상과 리념으로 하는 투쟁이며 참다운 인간성과 도덕률리에 바탕을 둔 인류적위업이다.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세운 사회주의10월혁명전야로부터 쑨베르인민이 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한 쑨도전쟁이후시기까지 근 반세기에 이르는 사회주의건설투쟁이 방대한 생활력역속에서 펼쳐지고있다.

노보씨비르스크의 미하일롭까마을에 태를 묻은 싸벨리에브네 삼형제를 축으로 하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에서 기본이야기는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 벌어진 쑨도전쟁시기의 현실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1941년 6월 22일 평화로운 일요일에 미하일롭까마을에 돌아오는 이완파 그들 삼형제의 생활에 대한 소개로부터 작품은 시작된다.

오랜 혁명가이며 리보브의 큰 기계공장 직장장인

만인인 안톤과 달리, 또 구역에서 혁신자로 이름있는 둘째 표도르와 달리 셋째인 이완은 두번이나 로동교화생활을 한 《출소자》이다.

이전에 만형 안톤이 지하투쟁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밥먹듯 할 때 표도르도 빨치산에 들어가 싸웠으나 뜻밖에도 이완은 백과도당에 가담했었다.

하지만 이완은 그렇게 너절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가 비록 한순간 각오가 부족하여 그릇된 운명의 길에 들어섰으나 실지 혁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릇된 인간은 표도르였다. 그는 철저한 리기주의사상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기에게 리익이 되는 일만 찾아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이다.

하여 이 삼형제의 운명은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 다투고 엇갈리고 교차되어 흘러가며 그들의 운명선과 함께 구역당비서 크루첸린, 꼴호즈위원장 나자로브, 체까일군 알레이니코브, 이전 백과장교의 아들 주보브, 이전 헌병대에심원 라흐놉스끼 등 많은 인물들의 운명선이 복잡하게 얽히며 돌아간다.

준엄한 세월의 흐름속에 야속한 운명의 곡절을 새긴 싸벨리에브네 삼형제는 전쟁의 초시기에 다시 산파라에 모였으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자기의 지향을 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말이 안톤은 소개되어온 큰 농기계공장을 전시 조건에 맞게 군수공장으로 전환시킨 직후에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부임되어 헌신적으로 투쟁해간다. 그러다가 공장에서 뜻밖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공장을 구원하고 희생된다.

그러나 둘째 표도르는 오래전부터 자기 하나의 안락을 위해 부농 까프다노브에게 붙어먹던 기질을 무섭게 자래워 준엄한 전쟁마당에서 변절하여 개죽음을 당한다.

그는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형제들과 함께 생활의 고난을 겪어왔지만 일찍부터 비인간적탐욕에 물젖어 어떻게 하면 자기 팔자를 고칠 것인가 하고 궁리한다. 하여 벌써 어린 나이에 부농 까프다노브와도 거래하게 되었고 백과도당의 앞날이 어둡게 보이자 빨치산에 들어가 자기 속심을 감추고 《용맹》하게 싸운다. 그리고 공민전쟁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공평하지만 풍족치 못하게 살아가는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나날을 보낸다.

하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속을 주지 않고 안해인 안나를 멀리하며 이웃에 사는 끼리안의 처 안피사와 비도덕적인 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

물론 그는 주위사람들이 일밖에 모르는것처럼 여겨지도록 혁신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너절한 속심을 실현할수 없는데로부터의 무분별한 객기에 불과했다. 실지 남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데 아무런 도덕적의무감도 느낄줄 모르는 그였기에 초모되면서 커다란 불안과 고민을 안고 전선으로 떠나간다.

근로하는 인민들의 행복과 조국의 운명을 지켜 목숨을 내대야 하는 준엄한 전쟁시기에 이러한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 가는 길은 불보듯 뻔하다.

전쟁의 진리를 결코 알수 없었던 더러운 배신자 표도르는 자기와 다른 신념과 기질을 가진것으로 하여 그가 평소에 그렇게 미워한 자기 동생 이완의 총에 맞아 처단되고만다.

평화시기에 다름아닌 자기 친형인 표도르의 신고로 교화생활까지 한 이완은 곡절을 겪으며 조국의 귀중함에 대해 깨닫는 인물의 성격이다.

혁명전에 부농 까프다노브밑에서 천대를 받으면서도 계급적각성이 부족하여 놈들을 도와주고 백과편에 가담했던 이완이었지만 그때 그의 행동은 사상과 신념으로부터의 목적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는 량심이 있었으며 집단과 대중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할줄 아는 도리를 알고있었다. 비록 조국앞에 일시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 죄를 성실한 땀으로 씻었으며 필요한 때에는 피를 바쳐 자기의 청백함을 보여주었다. 억울하게 교화소걸음을 하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자기를 보여줄 날이 오리라 믿으며 시련을 묵묵히 이겨낸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으로 달려나가 조카인 세몬과 한땅크승조가 되어 꾸르스크격전에서 적땅크 11대를 소멸하고 레닌훈장수훈자로까지 된다.

드디어 이완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의 귀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았고 자기의 량심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증명했던것이다.

하다면 것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어쩌서 똑같은 출신과 가정적바탕에서도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가 생겨나며 전쟁은 어떻게 매 인간들에게 진실을 안겨주게 되는가. 슬픔이 왜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덕행을 키워주며 원수를 철저히 증오할수 있게 하는가. 《범죄자》들에게도 귀중한 조국은 과연 무엇이며 진정 조국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소설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물음들은 궁극에 가서 조국과 준엄한 시련이라는 하나의 고리에 귀착된다.

총적으로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은 이러한 사회적문제들을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참된 인간성의 무기로 조국을 지켜낸 쏘베트인민의 넓은 영원한 메아리를 남긴다는 생활철학속에 판통시켜 감동깊게 보여줌으로써 쏘베트문학사의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영원한 부름》은 생활이 안고있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도덕적측면에서 새롭게 투시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긴 쏘베트시대의 성과작이며 작가 아. 이와노브는 독특한 개성으로 쏘베트문학사를 빛내인 훌륭한 작가, 공산당원이다.

## 리 종 국

# 력사적사실의 진실성과 묘사의 생동성

조성찬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고있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우리 문학예술이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민족적전통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정의감이 강하고 용감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폐의도덕이 밝은 우리 민족의 생활을 이어가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선사화전설집》(21권)에 실려있는 사화전설들은 민족의 존엄수호와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랑문제를 총적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서로 각이한 인물들과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존심,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데로 부터 생겨나는것입니다.》

사화전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우선 력사적사실과 생활을 옳게 탐구하고 그것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극적으로 엮어놓고있다.

사화전설창작에서는 력사적사건과 력사적자료를 그대로 묘사하는것을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력사적사실 그 모든것을 문학에 다 반영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문학은 어디까지나 묘사가 기본인것만큼 전형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이나 자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하여 실재한 력사적사실이나 자료를 정확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여 보여주면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초점으로 되는것은 력사적사실이나 자료가운데서 정수적인것을 어떻게 골라내어 그것을 주선으로 하여 이여의 생활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엮어나가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창작가는 묘사형상의도와 종자를 바로 잡고 거기에 기초하여 정수적인 력사적사실이나 자료와 함께 의의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옳게 탐구해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젊은 시절 무술을 련마하던 과정을 보여주는 《홍산이야기》(강덕무)와 씨족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룡교만박》(한웅빈)이 그러하다.

이 작품의 종자는 진정한 애국은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며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라는것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환웅의 각별한 관심과 엄격한 요구밑에 무술훈련을 한것으로 하여 열세살의 어린 나이에 단군은 활쏘기와 창쓰기, 기마술 등 모든 면에서 장수로서의 당당한 체모를 갖추고있다.

앞으로 큰 일을 이룰 단군의 어깨에는 한갓 제 몸이나 유지하는 남아로서가 아니라 모든 씨족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이끌고나아가야 할 막중한 짐이 짊어져있었다.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과 그 전도가 단군을 더 억세고 담차며 가슴속에 웅지를 안은 거인으로 키울것을 바라고있었다.

하여 환웅은 안해의 눈물어린 하소연도 뒤로 미루고 아들의 놀라움과 원망도 외면한채 그를 집뜨락에 꾸러진 무술장이 아니라 생사를 기약할수 없고 귀향의 날 또한 막연한 대자연속으로 떠나보낸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의혹과 야속함을 안은채 아달산의 무성한 나무숲과 덩불더미, 높고 험한 바위들을 뚫으며 무술을 련마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 나날 온몸이 늘 땀투성이가 되고 바위와 가시덤불에 찢기위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였고 제판의 자신심을 가지고 산을 내렸다가 설익은 무술솜씨로 하여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여 아버지의 맹혹하고도 무자비한 벌을 받기도 한다.

그 파정에 그는 사나이라면, 종족의 앞장에서 백성을 이끄는 장수라면 백번 싸워서 백번 승리해야만 된다는 심각한 진리를 가슴속깊이에 간직하게 되며 그것은 곧 낮과 밤을 잊고 훈련에만 열중하게 하는 힘과 열정을 낳게 한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의 무술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의 말발굽이 짓이겨놓은 산은 풀 한포기 자라지 못하는 홍산으로 되였다.

그속에서 단군의 마음과 의지도 더욱 억세어졌으니 그러한 아들에게 환웅이 넘겨주는것은 단지 종족의 머리수만이 아니였다.

《장하다! 이제는 네 어깨에 우리 박달족의 래일을 떠맡길만 하다. 이제부터 너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예와 출중한 지략을 가지고 박달족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명장이 될 때 박달족이 흥함을 볼수 있을것 이로다.》

작품은 실재한 역사적사실이 단군의 환웅이 단군을 한갓 제 몸이나 유지하는 사내로서가 아니라 크고작은 씨족들을 묶어세우는 장수로 키우는 과정을 주되는 사건으로 선정하고 그속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을 서슴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심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역사적사실이 단군의 활동의 본질적특징을 보여줄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그것들을 사회전설의 종자를 해명하는 사건으로 엮어놓을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마련되었기때문이다.

사회전설은 이와 함께 작품의 종자를 보다 풍부하게 밝혀낼수 있는 생활들을 극적인 사건으로 선택하여 그리고있다. 《붉은 갈》(리일통)이나 《북판대첩비》(리성덕)는 세상에서 가장 강의하고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궁지와 자부심, 그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모습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인질로 끌려간 임금의 막내동생 미해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왜나라땅으로 가는 《붉은 갈》의 주인공 박제상.

박제상의 벼슬은 신라의 삼랑주간, 따라서 박제상의 이 《의로운》행동은 어디까지나 봉건적충군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것이며 박제상이야말로 봉건판료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하지만 《충군》이라는 장막을 벗겨버릴 때 박제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그의 이야기가 먼 후날까지도 미담으로, 전설로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까닭은 어인 일인가.

천만신고하여 미해를 고국으로 떠나보낸 후 왜장앞에 끌려가 온갖 위협과 고문, 회유와 감언리설로 자기를 굴복시키려는 놈들에게 박제상이 웨치는 소리가 아직도 귀전에 들려온다.

《...나는 어제든 오늘도 계림의 신하요. 그것이면 과분하니 더이상 은혜를 베풀 생각일랑 마오. 또 우리 계림사람들은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땅의 신하는 되지 않소.》

《나는 보인다. 고국산천의 모습도 보이고 처자들의 얼굴도 보인다. 난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네놈들의 벼슬과 록봉은 받을수 없다.》

바로 그래서 고국이 주는 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도 조선민족답게 땀이 땅에 묻혀야 한다는 불같은 의지와 자각이 그를 굳센 인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조선사람이다.

이러한 박제상의 민족적자부심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있으며 사회전설 《북판대첩비》에서도 느껴지고있는것이다.

임진조국전쟁이 끝난지 100여년이 지나도록 부패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무관심과 보수적인 립장으로 하여 섬나라오랑캐들을 전율시키며 자랑찬 승전만을 거두었던 함경도인민들의 의병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남아있지 못하고 점차 사람들의 기억속에 희미해지고있었다.

바로 이것이 자기의 살점을 뜯기우고 심장을 통채로 들어내는것만 같아 함경도의 인민들이 자기의 집재산을 모두 기울이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바로 북판대첩비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던것이다.

랑반사대부들의 정사는 고사하고 기억에조차 남아있지 못했던 의병들의 전승사적이 바로 백성들의 애국열의에 의해 역사에 길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생활그대로 보여주는 생동한 형상이다.

작품들은 또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은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로 창조해놓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애착과 그를 길이 보존하고 빛내이려는 의지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다시 찾은 경천사 흰 대리석탑》(전철호)과 《불목하니》(리빈)는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에 눈독을 들이고 체계적으로 약탈해간 도적무리들과의 갈등속에서 이 나라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순결함을 숭상하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담아 흰 대리석으로 12각의 모를 내어 화려하고 섬세하며 정교하게 13층으로 쌓아올린 민족의 자랑 경천사 흰 대리석탑.

선조들의 넋과 슬기가 어려있고 민족의 유구하고 뛰어난 문화를 보여주는 이 국보를 도적맞혔으니 대를 두고 그를 지켜오던 억기며 그의 할아버지의 가슴은 실로 찢겨지는데 하였고 그 소식에 접한 리상재며 장지연을 위시한 애국인사들, 젊은이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민족적의분은 하늘을 치받았다. 더우기 교활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왜것들이 흠쳐간 탑을 도둑의 어느 한 공원에 빠졌이 세워놓고 조선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런 석탑을 세울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원나라가 고려에 세워준것을 저들이 조선에서 사온것이라고 떠들고있다니 이 통분함을 어찌 참을수가 있으랴.

하여 처음에는 온 서울장안이, 다음에는 여러 지방의 인민들이 대중적투쟁에 떨기해나섰으며 결국 여기에 질집한 일제는 여러 변명끝에 끝끝내 경천사석탑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불목하니》 역시 문화재약탈에 미쳐날뛰는 섬나라 왜놈들의 검은 손에서 귀중한 재보인 월정사의 백호(부처의 이마에 순금으로 된 일명 《기미》라고 하는 장식물을 의미함.)를 되찾고 목숨바치는 한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의 얼, 겨레의 넋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생활적으로 보충하거나 지선의 형식으로 밀착시키고있다.

한편 《유적발굴기》(리빈)는 선조들이 남긴 우



수한 재보에 대한 사랑이 민족적자존심과 결부되어 있어 또 다른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작품에 주선과 지선, 구체적인 사건들의 융합은 어디까지나 종자의 요구를 밝히는대로 지향되고있다.

실례로 명필 김륙진이 비문을 쓴 경주 무장사의 기적비(해당 절간의 사적을 기록한 비석)는 그 뛰어난 필체로 하여 국보적의의를 가지는것이지만 아쉽게도 잃어져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있다. 그러던것을 홍량호가 1782년 경주부윤으로 임명되어 무장사일대를 살살이 뒤져 온갖 고생끝에 찾아냈으나 그것은 겨우 옷부분의 반토막뿐이었다.

작품은 특히 주선에 놓여있는 매개 사건들의 내용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 극적으로 맞물려놓고있다.

작품에서 보는것처럼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유적이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은 김정희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하였으며 더우기 과거 송나라나 청나라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유명한 명필가들인 김생, 김륙진의 필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왕희지의 글이라고 우겨대며 우리를 깎아내리고 모욕까지 한 사실은 김정희의 민족적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으며 무장사 기적비를 기어이 찾으려는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민족의 징표인 유산! 민족의 지향과 감정 그리고 정서와 슬기가 깃들어있는 그 유산을 하루빨리 찾아내어 남의것을 제것이라 억지를 쓰며 타민족을 깔보는 이웃의 찌그러진 입들을 막고 민족앞에, 역사앞에, 후대앞에 뚝뚝하게 나서자.

하여 그는 년로하고 고질적인 위병으로 고생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기적비를 찾는 일에 나섰다.

작품에서 역사유적에 대한 애착은 단지 김정희 한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집 기둥을 고이고있는 주추돌이 행여 그 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가문이 망하는것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주저없이 그 주추돌을 뿔을 용단을 내리는 허씨부자의 형상에서도 생동하게 그려볼수 있다.

사화전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다음으로 외세의 발굽에 짓밟히는것을 한탄만 하거나 순종하는것이 아니라 제 한목숨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인민들의 생활선을 기본사건선에 밀착시켜놓음으로써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데 반증적으로 작용하게 하고있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사건속에 주인공을 내세우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인민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간이라는것을 절절하게 체험하는 인물로, 성격적으로 발전하는 인물로 형상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은 선택한 역사적사실과 다양한

생활을 순수 사건을 엮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격창조의 수단으로 되게 하였으며 종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맞물려놓은것이다.

이것은 작품이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라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견지에서 매개 사건의 내용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왜적의 대군이 이 나라 강토를 피로 물들인 임진년의 그날, 비겁하고 무능하여 제 한목숨 살리려고 급급히 도망치고 쫓겨다니는 량반사대부들에게 침을 뱉고 스스로 의병대를 무어 침략자와 맞서싸운 평범하면서도 의로운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있는 《폐성의병대》(전철호)는 력사기록에 그 사적은커녕 존재여부조차 남기지 못한 평범한 의병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게 란도질당할 때 그 아픔에 누구보다 가슴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복수의 칼을 든 진정한 애국자는 다름아닌 이름조차 변변히 가질수 없었던 백성들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이 정신은 《임진년의 <죄인>》(리일룡)에서 주인공 김여물의 종인 먹쇠의 형상속에도 깃들어있다.

《태평성대》를 너두리처럼 외우며 나라의 군력강화에 무관심한 봉건사대부들의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하여 1592년 드디어 이 나라는 왜적의 칼날아래 자기의 아들딸들을 내맡겨야만 하는 치욕을 강요당했다. 불난 집마냥 조정의 관리들은 모두 살구멍을 찾아 피난의 길에 오르고 수천명밖에 안되는, 그것도 병기조차 변변치 않은 군사들이었다. 그마저도 아무런 방비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적을 막아야 하였다.

이러한 때 간신들의 모함으로 《죄》를 짓고 간헐하다가 풀려나온 김여물은 누가 찾은 사람이 없건만 자진하여 전장으로 나가면서 잔치를 앞둔 자기 종만은 살리려는 마음에 그를 땔구어두려고 하며 그러한 주인의 앞길을 막아나서며 먹쇠는 말한다.

《이놈을 위해주는 나리의 마음을 소인은 왜 모르겠소이까. 하오나 이놈은 싸움판에서 체살구멍을 찾는 그런 너절한 놈이 되고싶지는 않소이다. 오랑캐들이 당장 들이닥치겠는데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이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라를 위해 적의 칼날앞에 자신을 서슴없이 내대고 이 땅을 지켰다.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 그 운명을 위해서라면 마지막피 한방울까지도 갇그리 바치며 오히려 그것을 옹양한것으로, 공지로 여기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어 이 땅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하늘은 보다 더 푸르러지는것이다.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족의 원한을 거족적인 항쟁으로 폭발시킨 3월 1일의 대오

속에 당당히 들어서서 력사에 자기의 자욱을 남긴 《순국처녀》(박춘명)의 류관순의 모습은 또 얼마나 장한가.

그의 나이는 열일곱살.

아직은 살아온 날보다 즐겨야 할 생이 더 길고 죽음이라는 말은 생각조차 못해본 애어린 처녀인 그가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태를 묻고 자라온 고국산천이 왜적에게 참혹히 짓밟히고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원주의 총칼에 숨겨지고있는데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와 자기는 비록 죽어도 이 나라는 꼭 독립된다는 굳은 확신이 그를 애국의 단상에, 력사의 한페이지에 당당히 올려세웠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시위에 떨쳐나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친다.

《여러분, 우리모두 만세를 부릅시다. 조선독립 만세를! 지금 우리 나라는 왜놈들에게 짓밟혀있습니다. 왜놈들은 총칼을 내두르며 우리의 이천만겨레를 사나운 구두발로 짓밟고있습니다. 우리의 력사를 없애고 우리의 말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모두는 상가집 개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지녔기에 관순은 시위의 앞장에서 총칼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갔으며 놈들에게 붙잡혀 모진 악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웨쳤고 죽음도 맞받아갔던것이다.

작품은 바로 이러한 세부적인 사건과 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애국심은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위하여 싸울 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참된것으로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묘사하고있다.

《조선사화전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력사적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흥미있는 사건들과 자료들의 유기적인 배합과 제시된 주제사상적내용에 맞는 일관한 이야기줄거리조직,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이와 같은 형상적인 처리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사건적인 예술로써가 아니라 성격의 예술로 되게 하고 인간의 성격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서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볼수 있다.

실로 《조선사화전설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참뜻을 다시한번 의미해보게 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김정일애국주의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12호 (루게 제806호)

###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12월 1일
발 행	주체103(2014)년 12월 5일

7-46119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